건축사 540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4 04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오름을 알면 제주의 속살이 보인다
금정산 '파크'와 현대물리학
특 집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포르 단면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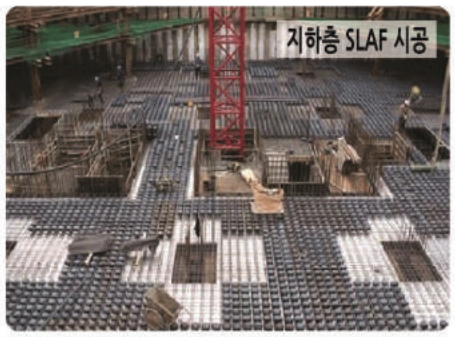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SLAF 공법 지하층 및 지상층 모두 적용 가능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기존 건물] [SLAF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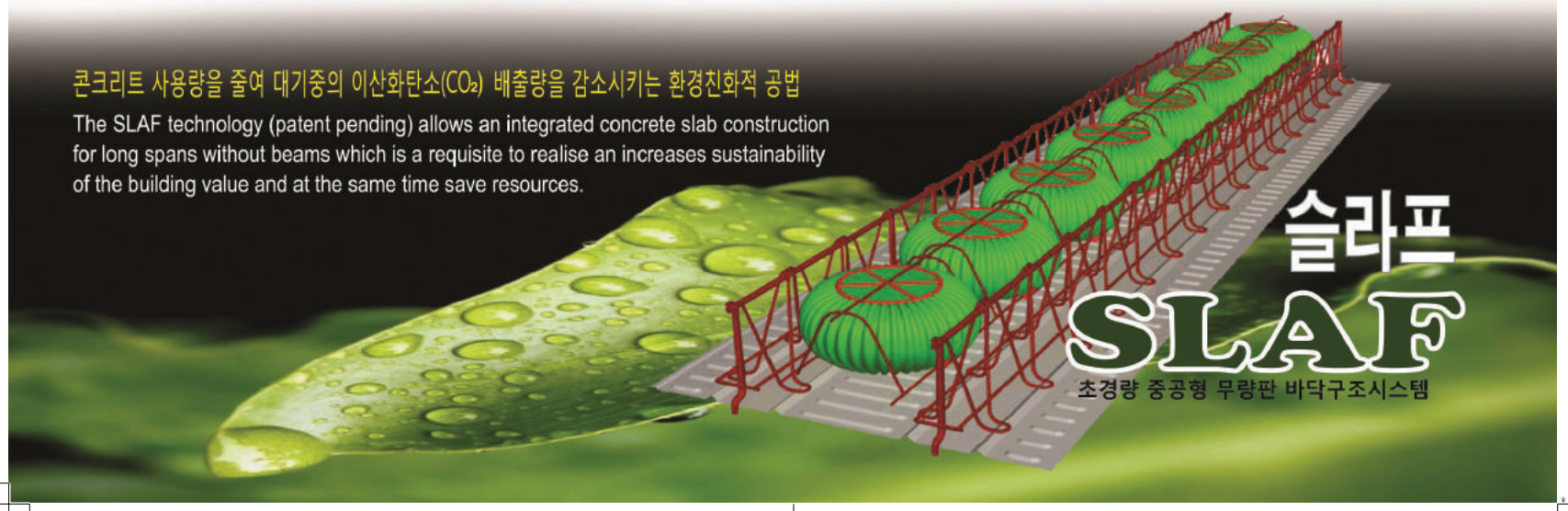
SLAF 공법 층간소음(경량 및 중량) 차단성능 탁월



SLAF 공법 내화성능(2시간내화) 만족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설계(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 세움터인증, 현장지원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부산사무소 :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20번길 58-14　TEL : 051)316-4488

■ 본사 및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EURO-ZINC PANEL (디자인등록 제30-0658085 / 유사1 / 유사2)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특허 제10-1219639호)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문화의 신창조자
서진공영주식회사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246번길 7(오류동 438-84)
공장 :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95번길 108(석정리 32-1)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www.syp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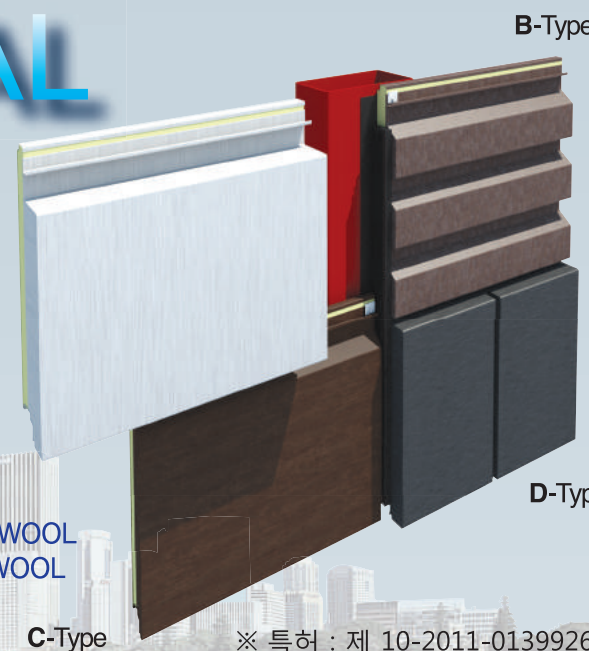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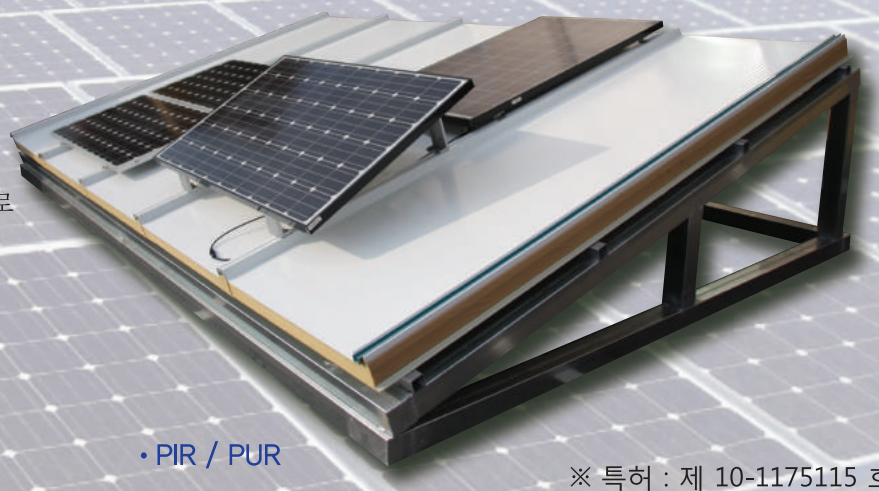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에스와이패널(주)

설계영업부(기술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13 효제빌딩 301호
TEL. 02) 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국토해양부 고시 에너지 효율 열관류율 2.1 w/m², k 기밀성 1등급 기자재 전문 생산업체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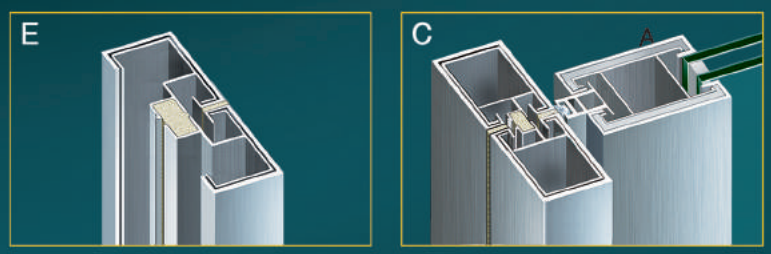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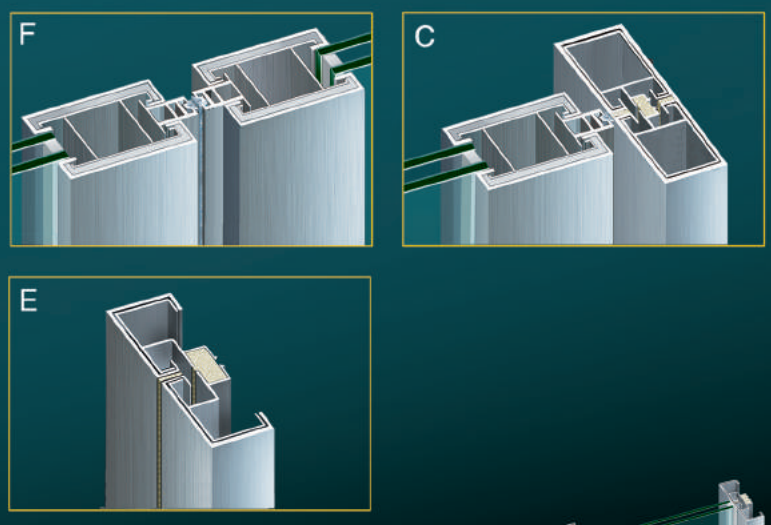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리 • 갈바 불소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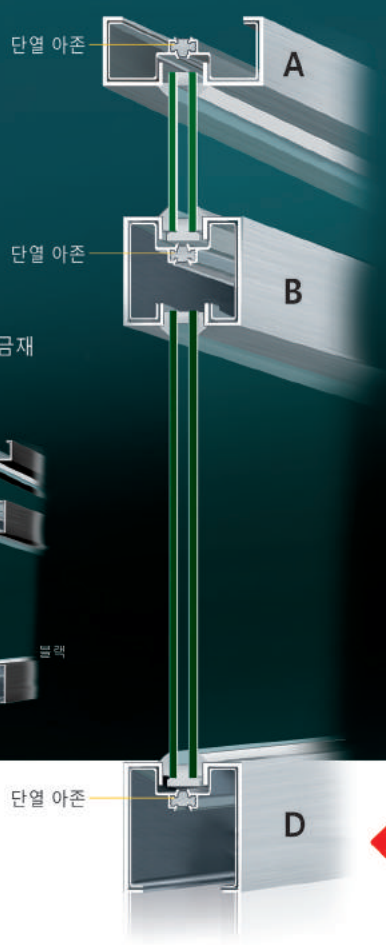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100 x 45 x 2.4T BAR 프레임
*120 x 45 x 2.4T BAR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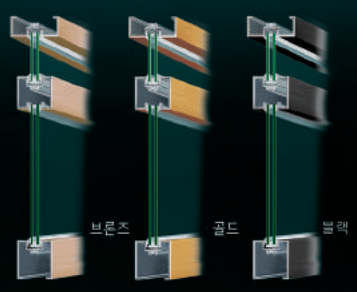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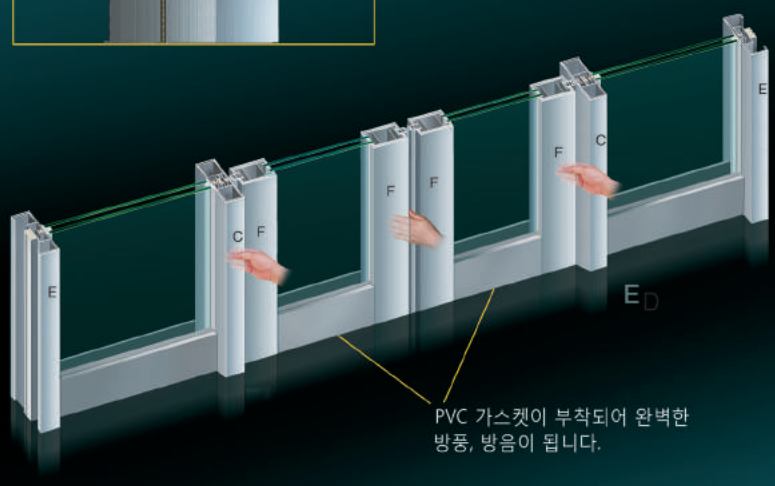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상세도면 :
홈페이지 캐드 다운로드 검색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사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26길 11 (읍내동)
TEL : (053)325-9800/325-9801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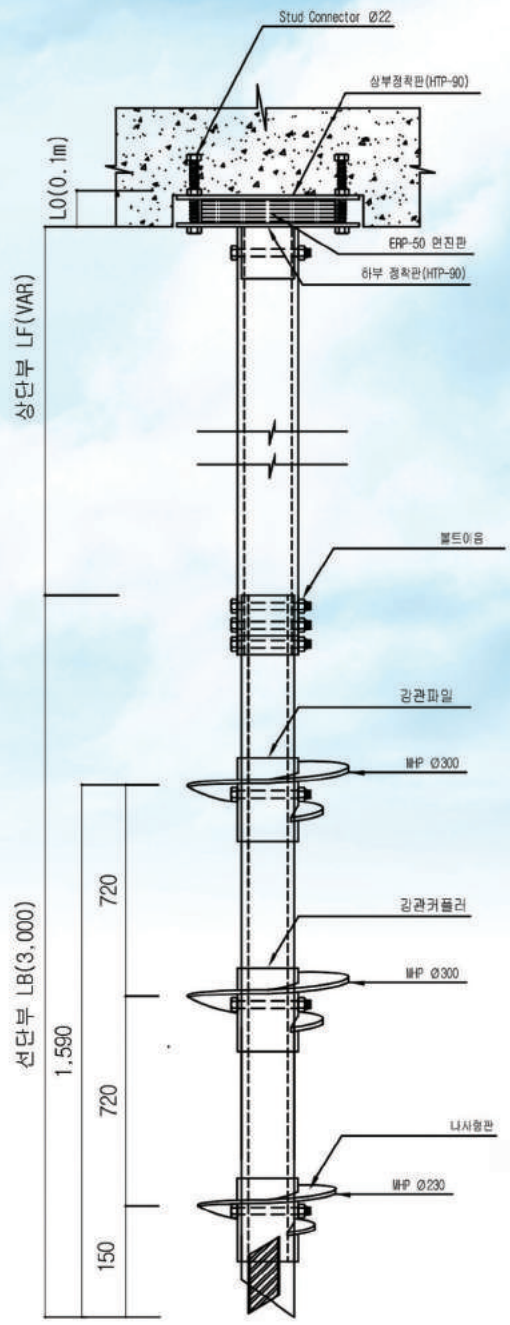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나선형강관파일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설계 · 시공 전문업체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 천 제 품



▶ 공법의 개요

나선형강관파일(MHP공법)은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기초로서 고강도 특수강관 하부에 나선형판을 장착하여, 특수장비로 회전시켜 설계 깊이까지 박은 후 파일주변을 그라우팅하는 형식으로 연약지반에서 지지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파일공법이다.
그리고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나선형강관파일 기초상부에 면진장치를 장착하여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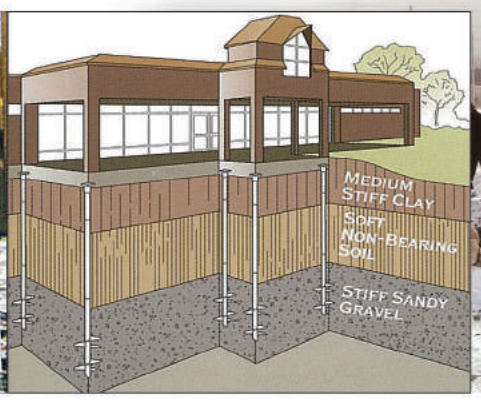
▶ 공법의 특징

1. **내진성능**
   기초 상부에 면진장치가 부착되어 내진성능이 우수하다.
2. **안정성**
   나선형강관파일을 회전 관입하고 2차로 기초파일 주변을 그라우팅하여 마찰 지지력이 높게 형성된다.
3. **공기단축**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4. **친환경적**
   무소음, 무진동으로 비토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5. **시공성**
   수중 및 경사지에서 다양한 각도로 파일시공이 가능하다.
6. **경제성**
   공장제작으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비가 경제적이다.

▶ 공법의 적용

1. 건물신축 기초파일
2. 공장 및 플랜트시설 기초파일
3. 해양구조물 기초파일
4. 기울어진 건물 복원 기초보강
5. 옹벽, 흙막이 구조물 앵커파일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드파이브웍스동 A-610호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KIRA Magazine
2014 April
no.540

Contents







COLUMN 편집인 칼럼

013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ESSAY 에세이

014 **오름을 알면 제주의 속살이 보인다**
You Can See the Inmost Aspect of Jeju if you Know Oreum
임재영

016 **금정산 '파크'와 현대물리학**
Valley Park and Modern Physics
이종필

TRAVEL SKETCH 여행스케치

019 이관직

SPECIAL 특집

020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Jeju Regional Architecture

WORKS 회원작품

032 **에스엠원 하우스**
SM'1 House
선은수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038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안내소**
Hallasan National Park-Seongpanak Visitor Center
김상언_KIRA | 건축사사무소 담

044 **녹고뫼 방문자 센터**
Nokgomoe Visitor Center
임성추_KIRA | 예원 건축사사무소

050 **제주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Reserch & Extension Services
오용화_KIRA | 건축사사무소 예림

056 **그海제주**
The Sea Jeju
박현모_KIRA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1

062 **Homo Ludens's Silva–NXC 센터**
Homo Ludens's Silva-NXC Center
양 건_KIRA | 가우 건축사사무소

NOTICE 공고

068 **201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Korea Architecture Award 2014

ARCHITECTURE TRAVEL 건축기행

072 **제주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Looking for the Landmark in Jeju
정이숙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BOOKS 책 속을 거닐다

075 **패션디자이너의 열정과 창조적인 마인드**
The Passion and Creative Mind of a Fashion Designer
김창길

KOREAN ARCHITECTS
건축사

READING LOVE LETTER 연애편지를 읽다–열 번째이야기

076 **꽃이 없어 꽃을 그려 드립니다**
I Have no Flower, So I Paint Flowers
정이숙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과 법률이야기

078 **상가개발비**
Development Cost for the Commercial Arcades
김재환

SERIAL Ⅰ 연재 Ⅰ

080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그 도시적 의미(2/3)**
Background in Situating the Ho-Seo Bank(HQ), and Its Urban Meaning
김영재, 김득수

SERIAL Ⅱ 연재 Ⅱ/ 건축과 삶 ④

084 **핸드폰과 도시 사이**
Between a Cellphone and a City
유현준

SERIAL Ⅲ 연재 Ⅲ/ 근대건축사 ⑬

088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의 변화2_ 남산**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Building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2_ Namsan
안창모

SERIAL Ⅳ 연재 Ⅳ

094 **라이트 vs. 미스(1/4)**
Frank Lloyd Wright vs. Mies Van der Rohe
천장환

ARCHITECT'S PLAZA 건축마당

102 **협회소식** Kira News

107 **건축계소식** Archi-Net

108 **해외건축동향_** 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110 **통계** Statistics



표지사진 :
양 건 건축사
가우 건축사사무소
사진_ 김병국(베누스튜디오)



www.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4년 4월호(통권 540호)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재 · 편집 최락청, 손석원, 장영호, 백상월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건축사회관
전화 02-3415-6800
팩스 02-3415-6850
홈페이지 www.kira.or.kr
디자인 · 인쇄 화신문화㈜ 02-2277-0624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Jang, Yeong-ho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안내

- 최근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우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 · 상담 및 대정부 건의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 · 도건축사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4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에 한함)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 · 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또는 월정회비) : 해당 시 · 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 · 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월정회비 : 6만원(매년)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 건축문화발전 사업자금, 협회 중장기 발전사업자금

–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 :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

■ 본협회 및 시 · 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3415–6855	대 전	042–485–2813	485–2818	전 북	063–251–6040	251–6048
서 울	02–581–5715	523–2284	울 산	052–274–8836	268–8837	전 남	061–285–7563	285–7567
부 산	051–633–6677	634–2966	경 기	031–247–6129	242–7072	경 북	053–744–7800	751–8308
대 구	053–753–8980	756–9049	강 원	033–254–2442	255–2083	경 남	055–246–4530	245–4530
인 천	032–437–3381	437–3385	충 북	043–223–3084	223–3089	제 주	064–752–3248	756–3248
광 주	062–521–0025	528–0026	충 남	042–252–4088	252–518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 · 도건축사회 또는 우리협회 실적관리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바다내음으로 풍성한 4월입니다

4월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제주지역의 특집입니다.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자 지난 해부터 한 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여 호남과 영남지역 특집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곳보다 지역적 특성이 강한 제주의 특집 좌담에는, 현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주 출신 건축사 여섯 분과 제주지역 내 건축학과 교수님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의 편집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남다른 역사를 가진 제주 건축의 흐름을 짚어 보고 그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회원 작품도 제주 특집으로 채워졌습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제주 회원들의 작품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시원해집니다.

권두 에세이의 필자도 한 명은 제주 출신의 동아일보 제주 주재기자입니다. 제주 원주민의 시각에서 본 '오름'에 대한 해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제주 여행객의 입장에서 제주의 랜드마크를 찾아보는 여정을 담은 기행에세이를 더하여 4월호 제주 특집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집인에게도 새롭고 즐거운 시도였기에 보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기사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지에 연재되는 『연애편지를 읽다』 칼럼이 어느덧 10회를 맞았고, 『건축과 삶』 칼럼은 4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새로이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천장환 교수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vs. 미스 반 데어 로에』에 대한 글이 연재됩니다. 현대건축의 거장 세 명 중 두 명의 건축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연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건축사지는 다양한 특집과 연재 칼럼을 기획하고 발굴하여 회원들에게 더욱 더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일찍 만개한 봄꽃처럼 건축사지가 반가운 선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세이.

글. **임재영**_ Im, Jae-young
동아일보 제주주재 기자

오름을 알면 제주의 속살이 보인다

You Can See the Inmost Aspect of Jeju if you Know Oreum

섬이 만들어진 아주 오랜 옛날 '설문대할망'(제주창조신화의 주인공)이 제주사람들에게 제안을 한다. 명주속옷을 만들어주면 제주 섬과 육지를 이어주겠노라고. 제주사람들은 열심히 온 섬을 뒤지며 명주를 모은다. 거대여신인 설문대할망 명주속옷을 만들려면 100동이 필요했다. 그 사이 설문대할망은 흙을 퍼 날라 바다를 메우기 시작한다. 아무리 모아도 명주는 99동, 1동이 모자랐다. 결국 섬과 육지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설문대할망이 흙을 나르다 터진 앞치마로 새어나온 것이 오름이 됐다. 봉긋하게, 아담하게, 우뚝하게, 때론 우악스럽게. 오름은 제주 섬 곳곳에 그렇게 서 있다.

한라산이 제주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오름은 자식 같은 존재다. 용암이 바다 위로 솟구쳐 제주를 만든 건 한라산이지만, 그 위에 곶자왈(용암이 흐른 암괴지대에 형성된 자연림)과 용암계곡을 만들면서 땅에 생명의 기운을 심고 키운 것은 오름이다. 오름은 선(線)이다. 이 선은 경망스럽지 않다. 유연하고 아늑하다. 어머니 품이기도 하고 풋풋한 여인의 젖가슴 같은 섹시미도 있다. 그 선을 타고 넘는 바람을 견디기 위해 납작 엎드린 초가 역시 오름의 선을 닮았다.

새로 들어서는 건축을 설계할 때 너도나도 오름을 형상화한다. 그중에서 재일교포 이타미 준이 설계한 포도호텔이 대표적으로 여겨진다. 이 건물의 선은 계곡 바위에 올록볼록 쌓인 눈처럼 부드럽다. 그 속에 앉으면 정낭(제주의 옛 대문), 돌담이 가슴으로 들어온다. 돌담 너머 오름 위로 비치는 석양은 따뜻하기 그지없다.

오름의 선과 선이 이어지는 그 속에서 제주사람들은 초가의 띠, 땔감, 산나물을 얻었고 소나 말을 키웠다.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의 생산지였고, 한쪽 기슭에는 삶에 지친 마음과 영혼을 풀어놓는 기도와 성소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다. 외세의 침입을 알리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민중항쟁의 거점이기도 했다. 제주의 최대 비극인 '제주4 · 3항쟁'의 현장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거대한 땅굴진지였다. 제주사람들의 피와 땀, 한이 서린 역사의 공간이다. 오름은 오르다의 명사형이지만 제주에서는 악(岳), 봉(峰), 뫼(山)를 이른다. 제주 섬은 해안이 먼저 만들어진 뒤 한라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름이 폭발한다. 전에는 기생화산으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소화산체, 독립화산체로 불린다. 한라산 백록담을 제외한 소화산체를 말한다. 360여 개 오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화산체가 많다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260여개 보다 많다.

언뜻 보기에도 5분이면 정상에 닿는 뒷동산 같은 오름이 있는가 하면 2~3시간을 꼬박 걸어야 정상을 만나기도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에 있는 대부분의 오름은 통제구역으로 갈 수 없다. 모양도 가지가지다. 밑에서 보기에는 밋밋한 포물선으로 보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그제야 오름의 진면목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화산폭발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분화구는 화성처럼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을 준다. 거대한 항아리처럼 입을 쩍 벌린 다랑쉬, 여인네 옷고름이 살랑살랑대는 용눈이, 눈썰매를 타면 밑에 까지 금방이라도 닿을 듯 미끈한 노꼬메, 정상에 서면 좌우 모습이 전혀 다른 야누스의 얼굴을 한 새별, 눈부신 억새물결이 넘치는 따라비. 오름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뽐낸다. 어디 그뿐인가. 그 분화구에 물이 고이면 또 다른 정취를 뿜어낸다.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깃든 물장오리, 숲이 울창한 물영아리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만큼 자연생태가 빼어나다. 한라산 성판악 등산코스에서 만나는 사라오름 분화구는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산정호수로 유명하다. 국내 최대의 마르(maar)형 화산인 하논, 화산 폭발의 순간을 보여주며 화산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수월봉, 분화구 바닥이 지표면보다 낮은 아부,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지면서 종 모양을 한 전형적인 종상화산인 산방산, 수성 폭발로 형성된 응회암층인 용머리해안 등 하나하나 거론하기가 버



손지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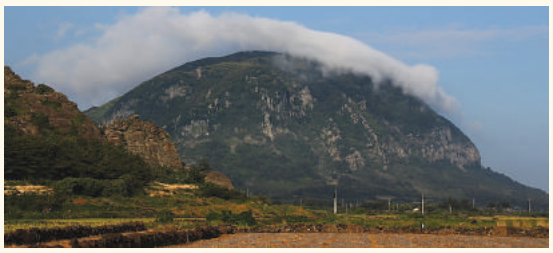


1992년부터 동아일보 제주주재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섬 곳곳을 꼬닥꼬닥(뚜벅뚜벅) 누비며 걷기를 즐긴다. 제주국제트레일런 100km대회,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사하라사막 어드벤처 레이스 등에 참가했다.


오름군락


용눈이


따라비


산방산


성산일출봉

겁다. 바다 물속에서 마그마가 끓어올라 분화구를 이룬 대표적인 수성화산인 성산일출봉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대표명소로 자리 잡았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타이틀은 오름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오름은 분화구에 따라 원형, 말발형, 원추형, 복합형 등으로 나뉜다. 숲이 울창한 오름은 정상에서 그 형태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억새 등으로 덮여 있는 오름은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분화구에서 용암이 공중으로 분출하면서 마치 팝콘처럼 튀겨진 화산쇄설물을 제주사람들은 '송이'로 부른다. 오름을 형성하는 주요 지층이다. 적갈색, 흑갈색의 자갈알갱이 같은 송이는 건축자재부터 최근에는 화장품 원료로 쓰이고 있다.

지하수를 청정하게 만드는 필터링 역할도 한다. 오름에 쏟아지는 비는 먼저 송이를 거치면서 1차 오염물이 걸러진다. 땅 속으로 스며든 빗물은 암반을 타고 흐르며 2차로 걸러진 뒤 유용한 물질을 함유한 채 섬 지하에 고인다. 이 기간이 15~50년이 걸린다. 먹는 샘물업계에서 유명한 '제주삼다수'는 이 지하수를 퍼 올려 생산한 것이다.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제주삼다수를 들고 있다면, 15년 전에 내린 빗물을 마시는 셈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대표명소의 하나인 거문오름은 폭발하면서 각양각색의 용암동굴을 만들었다. 거문오름은 다른 오름과 달리 30만~10만년 전 수십 차례나 폭발을 이어가며 높이 456m, 둘레 4.5km의 분화구를 형성했다. 쏟아진 거대한 용암이 북동쪽 바다로 흘러들며 용암동굴과 용암협곡을 만들었다. 만장굴, 김녕굴, 벵뒤굴, 당처물동굴이 모두 거문오름의 자식들이다. 까마득한 깊이의 수직동굴, 용암덩이가 포탄처럼 날아가 바위에 부닥치며 생긴 화산탄이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모든 걸 토해낸 거문오름은 커피 잔처럼 산의 껍데기만 남기고 속은 텅 비었지만, 묘하게도 다른 오름들과 달리 내부에 원시의 생태계가 형성됐다. 식나무와 붓순나무, 팥배나무 등이 아마존 밀림처럼 빽빽이 엉켜 있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사투를 벌이느라 나무들은 줄기보다 뿌리가 더 굵고 강한 게 특징이다.

'제주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오름으로 생겨났다. 점성이 꿀처럼 강한 아아용암, 점성이 우유처럼 약한 파호이호이용암이 흘러내린 뒤 굳어진 암괴지대 위에 생명이 솟아올라 숲을 만들었다. 지하수를 만드는 최대 통로이기도 하고 북방한계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이색 지대이다. 같은 오름을 여러 번 다녀도 질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시시각각 그들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마다, 계절마다 항상 다른 옷을 입는다. 가고 또 가도 새롭다. 봄의 전령 3총사인 세복수초, 변산바람꽃, 새끼노루귀가 피어오르면 오름은 겨우내 숨죽였던 기지개를 켠다. 오름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야생노루도 부산해지고 제비꽃, 산자고, 현호색도 무리지어 모습을 드러낸다. 억새에 푸른 빛이 돌고 졸참나무, 서어나무, 참꽃나무들이 새로 치장하면 오름은 한껏 부풀어 오른다. 이들 오름의 매력에 빠져 오름 만큼이나 오름동호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수많은 인파가 다녀가면서 생채기가 났다. 길을 내고, 송이를 파내고, 골프장을 짓느라 여기저기 파헤쳐졌다. 산악자전거, 자동차가 오름 정상을 오간다. 피뿌리풀, 야생난 등 희귀식물이 뭉텅뭉텅 뽑혀 갔다. 뒤늦게나마 마을마다 단체마다 오름을 하나씩 맡아서 정성껏 돌보고 있지만 한번 상처난 오름은 그리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제주사람들은 오름에서 나서 자라고 뼈를 묻는다고 한다. 오름을 알면 제주의 속살이 보인다. 제주는 '오름 왕국'이다.

글. **이종필**_ Lee, Jong-pil
•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휴먼웨어 정보기술사업단 연구교수

금정산 '파크'와 현대물리학

Valley Park and Modern Physics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이며, 취미삼아 시사평론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의 입자를 찾아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 〈물리학 클래식〉 등이 있고, 〈최종이론의 꿈〉 〈블랙홀 전쟁〉을 옮겼다.
현재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휴먼웨어 정보기술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80년대 말 내가 고등학생 때는 집과 멀지 않은 부산대학교에 가서 노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 앞 장전동 일대가 거대한 유흥가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금정산 자락을 타고 들어앉은 캠퍼스 자체가(적어도 지금보다는) 꽤나 매력적이었다. 나는 캠퍼스 곳곳에 살아 있는 소소한 계곡들이 좋았다. 산을 밀고 대학을 지었다기보다 산속에 캠퍼스를 숨겨 둔 느낌이랄까. 그런 계곡을 더욱 정감 있게 만든 것은 학생들이 그 속에 꾸며 놓은 '파크'였다. 파크라고 해봐야 네댓 조각의 판때기로 얼기설기 만든 조그만 벤치 한두 개가 전부였다. 조그만 팻말에 손글씨로 쓴 무슨 무슨 학과 파크라는 표지판이 그 파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었다. 조선 팔도의 풍광 좋은 곳엔 반드시 정자가 있듯이 금정산 기슭의 계곡 옆 아늑한 곳에는 꼭 파크가 있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자신의 누옥을 찾아 온 일본 정객을 접대하기 위해 돗자리를 들고 언덕 너머 소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가 여기가 자신의 응접실이라고 했다는 일화를 어렸을 적에 읽고는 그 의미를 몰랐었는데, 금정산 파크를 본 뒤로는 선생의 풍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낡은 돗자리 하나, 판때기 몇 개로 인해 나무 그늘과 계곡이 응접실과 파크로 변신하는 것을 보면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란 애초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과학에서 공간의 절대적인 의미가 거부된 것은 겨우 100여 년 전밖에 안 된다. 현생 인류 진화의 역사가 최소 십수만 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최근의 일이다.

고전물리학을 확립했던 뉴턴에게도 공간, 그리고 시간은 그냥 절대적으로 주어진 물리량이었다. 이는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직관과도 잘 들어맞았다.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무대일 뿐이었다. 말하자면 신이 이 우주를 만들 때 붙박이로 고정시켜 놓은 장치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역시 아인슈타인 덕분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지극히 인간 편의적이다. 코페르니쿠스 이래로 우리는 지구가 더 이상 우리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윈 이래로 인간은 더 이상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에게 편리한 또는 자연스런 개념이 우리 우주나 자연의 근본적인 속성일 이유는 전혀 없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 즉 광속이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자연의 상수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광속은 우리 우주에서 언제 어디서나,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광속불변이다. 우리의 일상 경험은 광속불변과 잘 맞지 않는다. 정지 상태에서 바라 본 자동차의 속도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바라 본 자동차의 속도와 확연히 다르다. 관측자와 대상 사이의 상대적인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우주에서 오직 빛만은 그렇지가 않다. 빛은 우리가 정지해서 관측하든 지하철을 타고 관측하든, 심지어 광속으로 날아가면서 관측하든 언제나 광속으로 날아간다. 고전적인 의미의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광속불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버렸다. 대신 아인슈타인은 광속이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자연스런 붙박이 상수라고 여겼다. 그래서 모든 물리학을 광속을 중심으로 다시 기술했던 것이다. 이것이 상대성이론이다. 상대성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자연의 '빌트인'이 아니다. 광속도 속력의 일종이니까 공간과 시간이 뒤얽힌 물리량이다.





따라서 광속이 언제 어디서나 불변이려면 그에 맞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뒤얽혀야 한다. 즉, 상대성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그저 절대적으로 고정된 붙박이 양이 아니라, 광속불변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동적인 변수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사람의 시간은 느려지고 공간은 수축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더욱 복잡하게 시공간이 뒤틀린다. 좋은 건축물은 좋은 공간만 차지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주변의 변화까지 담아낸다고 하니, 그런 면에서는 상대성이론을 꼭 닮은 것 같다.

현대물리학의 또 다른 기둥인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리량이 불연속적이다. 양자역학은 원자 단위 이하의 미시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의 원리다. 거시적인 척도에서 연속적인 양도 미시세계에서는 불연속적으로 단절돼 있다. 마치 멀리서 보면 매끄럽게 고운 백사장의 모래도 가까이서 보면 매우 거칠고 울퉁불퉁한 알갱이들인 것과도 같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마저도 매우 작은 척도에서는 불연속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낮은 척도까지 실험적으로 탐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한 구조를 살피려면 그만큼 해상도가 높아야 하고, 해상도가 높으려면 에너지가 높아야 한다. 만약 시공간이 불연속적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에너지 척도는 지금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 무척 높다.

원래 시공간의 구조에 대한 이론은 일반상대성이론이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시공간의 구조를 중력의 원천으로 여긴다. 적어도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이 지난 100년 간 우주와 중력과 시공간을 이해하는 표준으로써 잘 작동해 왔다. 하지만 미시세계에서도 과연 그러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미시세계에서의 시공간의 구조, 즉 양자중력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원자보다 더 작은 점에서 초고밀도의 에너지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 우주를 이해하려면 양자중력을 꼭 알아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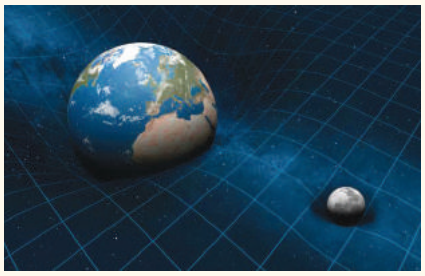
최근 BICEP이라는 전파망원경에서 빅뱅 직후의 중력파를 관측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열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류가 처음으로 관측한 양자중력의 효과다. 양자중력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인류의 공간에 대한 이해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시공간이 과연 4차원(시간 1차원, 공간 3차원)뿐일 것인가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공간 차원이 3차원 이상일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 특히 끈이론에서는 6개의 덧차원(extra dimension)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우리 우주의 중력이 왜 그렇게 미약한가를 덧차원의 존재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크게 각광을 받아왔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중력이 얼마나 약한지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별 힘을 안 들이고도 컵 하나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그 컵은 우리의 팔 근육이나 몸뚱이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 전체가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컵을 들어 올리는 근육은 주로 전자기적인 힘에 의해 작동한다. 따라서 중력은 일반적으로 전자기력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만약에 덧차원이 존재할 경우 중력의 상당 부분이 덧차원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의 중력이 약하다고 설명한다.

덧차원이 존재한다면 그 효과가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에 나타날 수 있다. 지난 2012년 힉스 입자를 발견한 유럽원자핵연구소(CERN)의 대형강입자충돌기(LHC)에서도 덧차원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만약 덧차원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공간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발견으로 기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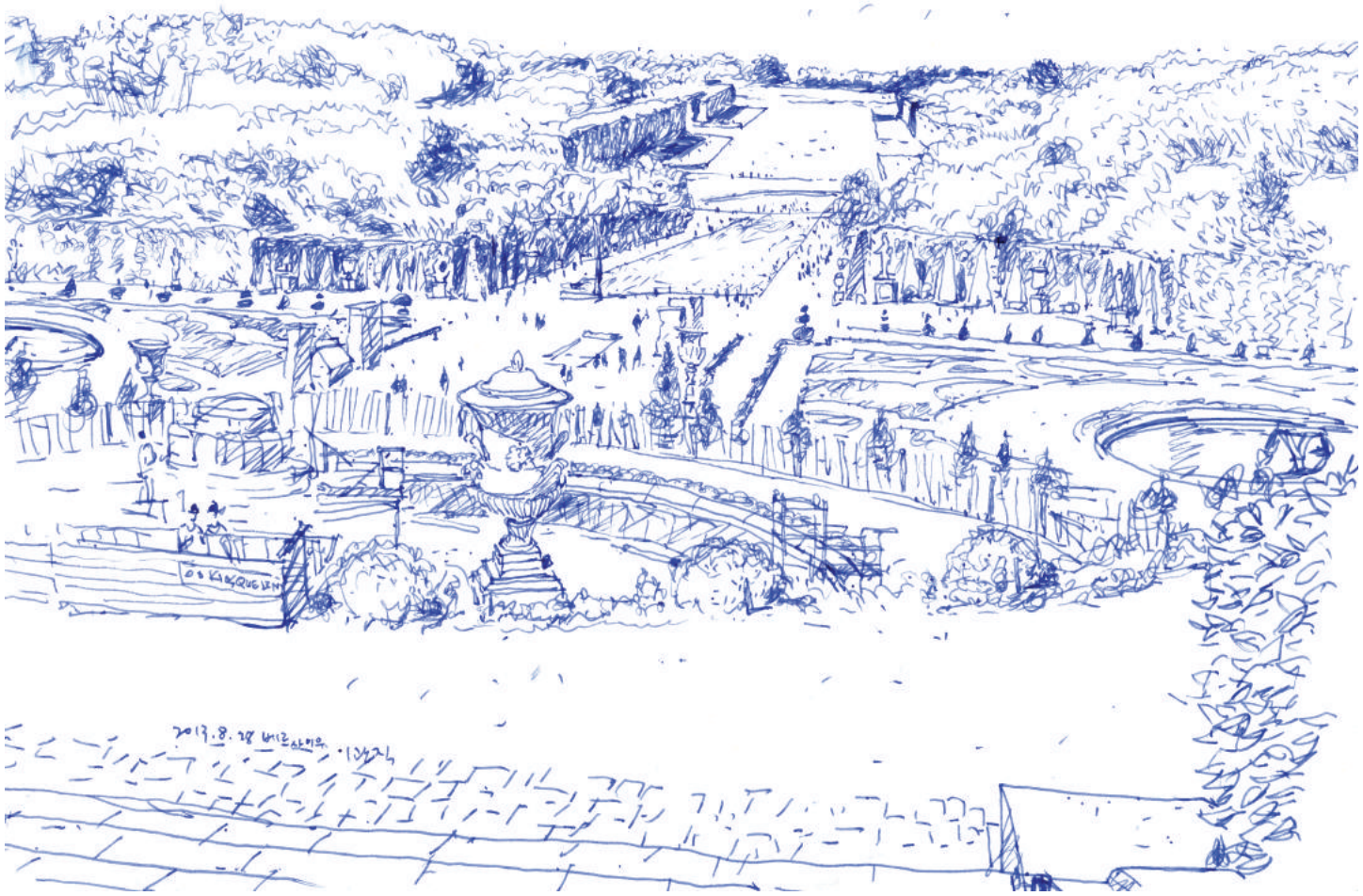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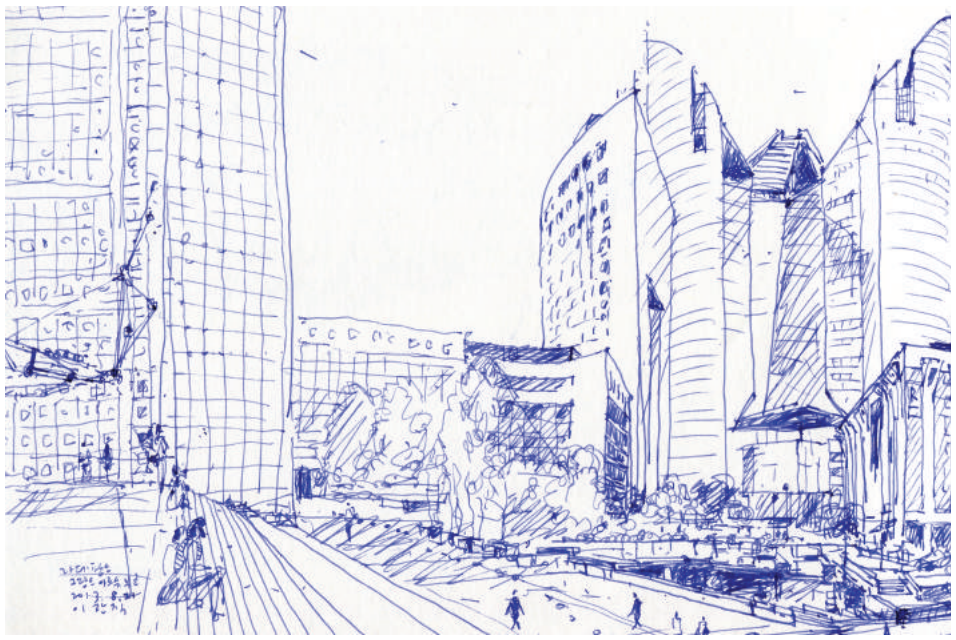
BICEP/출처_ theguardian.co.uk



general relativity/출처_ bbc.co.uk

최근에는 우리 우주가 더 큰 다중우주 속의 수많은 거품 우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이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일 우주로서의 universe는 더 이상 그 절대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삭막한 다중우주 속에서 그래도 우주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하찮은 존재는 어쩌면 금정산 계곡을 포근하게 만드는 판때기 파크일지도 모르겠다.







이관직 | Lee, Kwan-jick

- 고려대
- 건축문화대상(과천정보과학도서관)
- 서울시건축상(능동로텐에이빌딩)
- 농촌건축대전본상(공주주택) 수상
- 고려대학교,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건축사 / 비에스디자인건축 대표

베르사이유궁전에서

정원을 내려다 보면 가슴에 감동과 함께 절대왕정의
권력이 목에 까지 차오른다. 인공미의 극한까지
밀어 부친 완벽한 기하학의 조경이다.
그럴지만 그 안을 거닐면 냄새와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 그늘의 그림자와 햇빛에 반짝이는 연못의
잔물결의 자연 속에 흠뻑 취한다.
자연과 인공이 다시 아름다움으로 하나가 된다.

라데팡스지역은

인간적인 스케일을 포기한 듯 크고 넓고 높다.
건축사는 그 커다란 덩어리들을 나누고, 휘고,
뚫어서 어떻게 해보지만 미래도시의 규모를 어쩔 수
없다. 대낮 점심 시간 쯤에 수천의 사람들이 광장과
지하철에 쏟아져 나와 먹고, 놀고, 떠들기 시작하면
삭막한 도시는 조금은 풍경이 된다.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 ③

Special Series of Architecture Magazine: Regional Architecture ③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Jeju Regional Architecture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여 보기로 한다.
그 세 번째로 제주지역의 문화와 건축을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 대담일시 : 2014년 3월 21일
· 대담장소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회의실
· 지역총괄기획 : 신석하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김형수 편집국장 : 제주도는 최근 한국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설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건축사들이 한번쯤은 제주도에 작품을 남기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육지의 문화와 차별되는 문화적인 독립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주도만의 독특한 전통건축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제주도의 근현대건축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제주도 건축의 독창적인 정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사람들의 선호하는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하였지만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주도 건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논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신석하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 의한 근현대사와 현대건축에 영향을 끼친 인문학적 배경

–김형수 편집국장



신석하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주도 건축특집 좌담의 사회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 신석하입니다. 이번 특집을 위해 멀리 제주도를 방문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는 육지(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인문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주의 지리적, 역사적, 자연 환경적 특성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어서 그러한 인문학적 배경이 어떻게 제주의 현대건축에 영향을 주어왔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형준 : 제주는 탐라국의 독립국가로 시작하여 제주라는 이름으로 고려에 귀속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의 역사만큼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육지와는 다른 고유한 삶의 양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낀 해양문화와 한라산을 둘러싼 중산간문화도 가지고 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의 동쪽과 서쪽도 조금씩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섬이지만 지역마다 고유의 색깔을 가진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제주도민의 의식 기저에는 육지부에 대한 저항과 반골의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경우 국가적 가치관으로는 영웅적 항쟁이었지만, 제주도민의 처지에서는 환해장성을 쌓는 노역에 강제 동원되는 등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몽골세력 토벌이라는 명분으로 묵호들과 전쟁을 치른 최영 장군이 고려의 명장이었을지는 모르나,



대담자(가나다 순)

· **김상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담 대표
· **김형수**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형준** 교수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선은수**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
· **신석하** 교수 / 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 / 진행 및 정리
· **양　건** 건축사 / 가우 건축사사무소 대표
· **양수현** 교수 / 제주한라대학 건축디자인과
· **이성호** 교수 / 제주관광대학교 디자인경영과

묵호세력들과 함께 죽어간 제주민을 생각하면 제주 입장에서는 영웅으로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1948년 4 · 3항쟁은 제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희생 당한 제주민만 15,000여 명에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이 4 · 3항쟁이며, 지금도 그 상흔이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합니다. 제주의 대표적 생산물인 감귤은 탐라시대부터 고통을 주는 열매였을 것입니다. 탐라시대부터 백제나 신라에 감귤을 공물로 바쳤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귤나무와 귤의 개수까지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까마귀가 귤을 쪼아 먹어도 그 책임을 귤나무 주인이 져야 했으니, 귤나무는 그야말로 고통나무였던 것입니다. 감귤뿐이 아닙니다. 해녀들이 잡은 전복 등의 해산물도 공물로 바쳐졌었지요. 제주민에게 육지부는 자신들의 것을 수탈해가는 외지인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민들끼리 서로 뭉치거나 돕고, 외부에는 배타적인 문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지금도 서로 돕는 수눌음과 씨족 중심의 괸당문화로 대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 3항쟁 추모공원

그렇다고 이러한 반골과 배타적 문화가 잘못되거나 후퇴한 문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 일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이러한 문화형성의 배경에는 지리적 특수성과 외부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배타적 문화는 현대의 제주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들어온 외국의 자본들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제주도 전체가 테마파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지마다 소규모 테마 박물관이 넘쳐나고, 골프장과 리조트는 포화상태고, 제주는 점점 더 이상한 섬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고유의 반골의식과 배타적 문화가 절실합니다. 천민자본주의를 쫓아가는 개화가 아니라 고유한 문화가 빛나는 개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제주는 문화적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제된 반골의식과 선택적 배타성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양수현 : 제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탐라라는 독립적인 고대국가였습니다. 본토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한라산의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섬으로 초기 신석기시대부터 인류의 거주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국가의 형태로 삼국시대에는 백제, 신라, 일본 및 중국뿐만 아

니라 동남아국가들과의 교역을 활발히 하며 중간교역의 중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육지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빼앗기고, 속국으로서 본토의 지배 속에 핍박을 받은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귀향지로서의 역할이 전부였다고 할 만큼 도외시되는 한반도의 남쪽 바다 저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해방 후 제주가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신혼여행지'라는 명성과 함께 관광산업의 혜택으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들어오면서 사회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감귤산업 역시 감귤나무가 대학나무라 불릴 만큼 제주산업의 중심이 되고 제주가 자생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화적 특징 중에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오끼나와 등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유사한 남방 문화적 성격이 나타나며, 본토와는 사뭇 다른 다양한 무속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김상언 :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의 가장 강한 지리적 특징은 육지부와 떨어진 섬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는 백제, 신라, 고려에 일시적으로 복속되기는 했었지만 천년 이상 탐라국이라는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복속된 것은 조선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라국시대의 생활상을 알 길은 없지만, 조선에 완전히 복속된 이후 근대 이전까지는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또한 밭농사나 겨우 할 수 있는 척박한 풍토에다, 정치적 수탈이 심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제주인은 육지로 나갈 수 없다는 출륙금지령이 약 200년 동안 유지됐을 정도로 핍박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추사 김정희같이 유배 온 지식인을 통한 교육 정도를 빼고는 문화교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겠지요. 이런 여건은 해방이후 4 · 3항쟁 당시까지도 근본적으로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의 변화는 관광휴양지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관광이 제주의 주요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이후부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는 타 지역과는 많이 다른 폐쇄된 고유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성호 : 제주지역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달리 3성(고씨, 양씨, 부씨)신화가 존재하며,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독특한 제주의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선 언어가 많이 다르고, 주거형태도 타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물이 귀해 식수로 사용 가능한 용천수가 나오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형성되었으며, 바다와 인접한 생활권에서 해양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고대 제주는 '탐라국'으로 약 천년 간 국가를 형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북방문화와 남방해양문화가 교차하는 문화적 경계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 · 중 · 일 동아시아 해양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은수 :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바다, 해안, 중산간 그리고 한라산으로 영역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성들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갖고 독특한 제주의 풍경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해안지역은 제주의 역사, 문화 그리고 경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수의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생활공간이자 생산활동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산간 지역은 오름과 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어 제주의 생태적이며 경관적인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다, 해안, 중산간 그리고 한라산의 풍경들이 제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제주는 일만 팔천의 신들이 사는 신화의 섬이기도 하지요. 오래전부터 제주인들은 신화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주거 형식을 구축하였고, 그 안에서 신에 대한 의례를 중요시 하면서 살아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건 :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가장 두드러진 사회 · 문화적 현상은 한 마디로 "도서성(島嶼性)"이 아닐까 합니다. 바다로 고립되어 있다는 자의식으로 말미암아 외부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과 외부문물에 의해 기존의 문화나 사회가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태도가 동시에 작용되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제주사람의 커뮤니티엔 육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리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제주가 극동아시아의 배꼽 쯤 되는 중심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근현대사에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중국본토를 치기위해 만들어 놓은 '알뜨르 비행장'과 10만 관동군을 집결시킨 일본군 최후의 보루로서



알뜨르 비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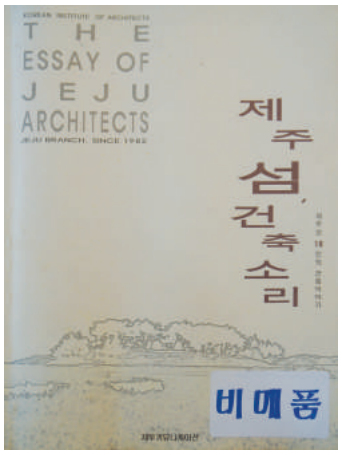
많은 진지와 갱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접점이 되기도 하는데, 한국전쟁 직전에 무고한 희생으로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4 · 3항쟁'이 있었지요. 어느 집안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학적인 이유와 입지에 의한 지정학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석하 : 제주의 지리적, 지정학적 요인들에 의해 생성된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제주민의 반골적이고 배타적 문화의식이 발현되었다는 말씀에

동감하게 됩니다. 또한 척박한 자연환경이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 문화적 고유성을 이루었고, 특히 일만 팔천 신들의 섬이었다는 정신적 차원의 말씀도 제주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부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인문학적 배경과 자연환경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제주지역 현대건축의 특성들과 제주건축계의 흐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은수 : 제주의 건축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자연적 환경과 독특한 생활문화가 어우러져 변화를 거쳐 왔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주건축도 지역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도시 확장과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마을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의 독특한 문화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외국자본의 대규모 투자개발로 인해 중산간의 경관과 지형이 변해가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제주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형준 : 제주 건축계에서 제주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중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제주성 논의가 일차원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현무암인 제주석을 사용하거나 제주초가와 같은 완만한 물매를 갖거나 하는 것에 제주성 논의가 머물러 있습니다. 곧 건축의 제주성 논의가 재료나 외관만을 보는 낮은 수준에 멈춰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인식 수준이 형성된 것은 지역 내에서만 안주하고 육지부의 보편성은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제주의 1세대로 불리는 건축사들은 육지부에서 학업을 마치고 실무를 한 후 제주에서 개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교육기반과 실무능력은 갖추었지만 소수 건축사들에 의한 독점이 강했기 때문에 내부 역량의 축적도 부족했고, 육지부로 외연 확대에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변방의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제주에 있는 대학에 건축과들이 만들어지면서 2세대 건축사들이 양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건축교육에서 인문학적, 사회적, 철학적 기반을 가르칠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2세대 건축사들은 인문학적 기반보다는 실무 기반 위에서 양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구별되는 3세대 건축사들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단한 교육적 기반과 실무를 육지부에서 갖추고 제주에서 개업 건축사를 시작했다는 점, 둘째는 1세대와는 다르게 내부역량의 집적과 더불어 육지부로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는 제주건축 관련 논의의 중심세력이 되어 건축의 인문학적 기반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에 발간된 [제주섬, 건축소리 : 제주섬 18인의 건축이야기]는 이러한 3세대 건축사들의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건축 3세대 건축사의 내외부 역량이 강화되면서 제주 현대건축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건축의 제주성에 대한 논의도 일차원적 차원에서 벗어나 다층적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세대 건축사들의 역량이 지금보다 더 결집된다면, 다층적 차원의 제주성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주섬, 건축소리 표지

양 건 :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은 외부문화의 유입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국가와 생활의 규범이 유교문화였다면 제주에는 그 영향이 아주 미비하거나, 시간적으로 오히려 구한말에 되어서야 생활문화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본을 축적하거나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권력을 지닌 계층도 많지 않았고 신분사회의 성격도 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민가건축에 비하여 참조할 만한 반가(班家)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는 독특한 가족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울타리 내에 결혼한 자식세대와 부모세대가 같이 살면서도 정지(부엌)는 따로 갖는다는 것(경제권의 분리를 의미)이지요. "안 · 밖거리 살림집"의 형태


하가리문 시행 가옥

인데 제주민가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민가들은 일반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일자형의 주거동이 마당을 위요하는 형태로 배치되고 안뒤, 우영, 눌굽 등이 울담에 의해 결속되어 매우 유기적으로 조직화됩니다. 독특한 가족제도에서 비롯된 이러한 제주민가의 공간조직이 제주의 현대건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제주민가건축을 해석하는 시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근대건축을 공부하신 선배 건축사님들이 근대건축의 공간론으로 제주민가를 해석하여 자신의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최근에는 현대 건축론의 시각으로 제주민가를 재해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지요. 앞으로 어떤 후배건축사가 어떻게 제주민가를 해석할 것인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연환경 중에는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사회 이전 주된 건축재료라 함은 돌, 나무, 흙일 텐데 동시대의 기술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석재였을 것입니다. 제주건축의 여러 곳에 적극적으로 석재가 쓰이는데, 민가에서는 일명 축벽이라 하는 기법으로 목구조의 골조와 흙벽을 비바람에서 보호합니다. 이 축벽은 제주민가의 형태적 특이성으로 낮은 초가지붕을 부유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몇 분의 제주건축사들은 이러한 민가의 형태

적 수법을 이중외피구조로 해석하여 지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차용하기도 하지요. 더불어 쌓는 방식과 높이가 다양한 돌담은 민가의 외부공간들을 한정하고 더 나가서는 마을의 구성체로서 올레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바람으로부터 돌에 의지하여 외피를 형성하고 사람이 맞닿는 면은 나무와 흙으로 구성하는 구축법이 전통적인 제주건축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보편적 재료로서 철, 유리, 콘크리트가 전 지구를 덮는 건축재료가 되어버린 지금, 비나 바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가공된 제주지역의 특유한 돌, 나무, 흙이 다시 중요한 건축재료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 제주 건축의 흐름을 보면 전통건축이 주를 이루었던 조선시대 이전과 서구형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1960년대에는 제주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대식 건물이 대량으로 건설되고 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970년대는 지역개발의 기반 형성으로 '제주다운 건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제주건축의 전통적 특색과 본질에 대한 고민이 이전에 비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문화로서의 건축이 인식되고 설계경기 및 지역 건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대 이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단지형아파트, 고도규제완화, 제주건축문화축제, 지구단위계획도입에 따른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김상언 : 제주라는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현대건축의 시발이 언제부터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현대건축이라는 의미가 모더니즘건축 이후를 말한다면, 그것이 일상화된 시점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규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사들이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라고 여겨집니다. 그 전에는 건축설계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제주시내에 중심가로가 형성되고, 신제주 등 도시개발이 활성화, 감귤과 관광 등에 의한 소득의 증가,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사회학적으로 건축에 큰 영향을 준 요소들로 생각됩니다. 제주 전통건축의 구성에 있어서 바람과 비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여겨집니다. 초가의 지붕을 동아줄로 꽁꽁 엮어 놓은 것이라든지, 외벽에 돌을 이용해 축담을 구성하는 등의 요소들은 전부 바람과 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와가의 경우도 타 지역의 건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죠. 낮은 지붕의 물매라든지, 합각지붕이 아닌 우진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와가의 외벽도 축담을 구성하는데, 축담은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 비와 바람을 절대적인 고려요소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관 등이 건축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름과 산의 능선이라든지, 주상절리대 등 해안의 경관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명하는 건축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수현 : 제주는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혼재된 형태로 공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근대건축은 김한섭 선생을 비롯한 몇 분의 선배 건축사들이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제주가 뛰어난 자연풍광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좋은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되면서 국내 · 외 유명한 건축사들이 제주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의 지역 건축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더욱 더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작품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최고 랜드마크인 한라산의 완만한 산세 형태가 제주 전통건축물의 낮고 완만한 물매를 갖는 지붕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제주의 강한 바람을 이겨내기 위한 조상의 지혜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바람이라는 환경에 순응한 것이지요. 또한 좀 디테일한 얘기이지만 아열대성 기후인 제주 여름의 습하고 더운 기후를 이겨내기 위한 '풍채'라는 차양막에서도 기후환경에 의한 제주건축의 고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풍채

제주지역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와 제주도의 정신을 잘 나타낸 작품들

–김형수 편집국장

신석하 : 제주건축의 지역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제주도의 정체성 문제는 1980년대에 시작되는데 1970년대의 관광을 중심으로 한 무비판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건축의 지역성을 모색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형태가 제주초가의 형태를 모사하거나, 재료는 송이와 현무암 사용을 하는 것이 지역성이라는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성의 문제는 건축의 형태 및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간에 대한 화두(話頭)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더 나아가 지역성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다양한 건축언어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정체성에 대하여 미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셨던 한 철학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육지(부산)가 고향이면서 제주도를 더 사랑하고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故김현돈 교수는 " '인간다움'이 인간의 격(格) 곧 가치를 표상하듯이 '제주다움'은 제주의 격, 제주의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가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제주의 가치는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성 그리고 전통성의 보존 및 계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라산과 수많은 오름, 그리고 청정한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풍광, 척박한 토질과 거친 바람, 자주 저항으로 점철된 변방의 역사성, 제주인의 생활감정과 우주관에서 제주의 가치, 제주다움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다운 건축이란 제주의 생태환경을 거스르지 않으며 역사성을 탐지하고 제주인의 생활감정과 우주관을 반영한 건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주도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는 외적 형식의 기계적인 모방으로 전통을 골동화시키려는 복고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된 정신과 미의식을 현재의 문제의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건축에서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의 정신세계를 잘 나타낸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건 : 제주에서 건축을 한다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운명적 책무가 '제주의 지역적 정체성'의 탐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선배 건축사들은 이러한 주제로 많은 숙고를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의 큰 틀은 제주의 특수성과 외지의 보편성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문화적 기반에 근거하는 것이고 축적되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일순간 등장한 몇 분의 천재건축사(?)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의 건축계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몇몇의 단어로 규명될 수는 없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 듯합니다. 건축 작업이라는 것이 제주 땅에 이뤄지는 것이고 당연히 제주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 중에 제주의 정체성은 녹아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굳이 질문에 개인적인 답을 한다면 돌하르방을 주로 작업하시는 어느 조각가의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서투름!' 미학적 가치로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생활에서 만나는 제주의 민속품들엔 육지부의 세련미와 대조되는 미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는 장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생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민가도 속살을 들여다보면 목수의 기술보다 일상적인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디테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서투름에는 여러 가능성을 잠재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 견고한 주체적 존재감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가식적으로 모양을 흉내 내기도 쉽지 않으며 일상의 리얼리티가 연계되어야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주의 건축사들에게 지역성이란 당장 눈앞에 놓인 프로젝트를 해결하다 보면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생각하게 되는 영원한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상언 :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곧 지역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성이라는 고민은 건축사들에게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주제이지만 뚜렷한 결론도 나올 수 없는 주제이지요. 안타깝게도 사실 현대에 와서는 제주만의 지역성이 많이 희석된 면이 있습니다. 보편화된 건축교육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제주지역도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동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마 타 지역도 그런 흐름 속에 있을 겁니다. 제주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주의 전통마을이나 전통건축의 공간을 차용하거나 재해석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마을공간이나 전통주택의 공간구성의 경우 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윤 건축사의 '탐라도서관'이나 김홍식 교수의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 제주 전통건축의 공간구성을 잘 해석해낸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현무암을 이용한 디자인도 강한 디자인적 아이덴티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료의 사용이 무슨 아이덴티티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한 재료의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면 이것도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외피의 요소로 한정되지만 포스트모던 시대라 할 수 있는 8~90년대에는 공용건축물이라든지 업무용 건축물에는 이를 이용한 어떤 규범적 디자인이 존재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홍식 교수의 '민속자연사박물관', 현심건축의 '제주도청사', 강행생 건축사의 '교육박물관', 김홍식 교수의 '문예회관' 및 '기당미술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현무암은 현재도 제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품이 놓인 대지의 주변 환경과 조화되려는 또는 환경에 녹아들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주지역에만 국한되는 특징은 아닙니다만 모든 지역이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환경에 적응하려는 건축은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건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제주는 경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화산섬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있고, 이 환경이 제주의 가장 큰 자원이기도 하니까요. 최근의 작품들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은 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건축사는 아니지만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이 이점에서 꼽을 수 있


제주도청사


탐라도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문예회관


포도호텔

는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김석윤 건축사의 '한라도서관', 조병수의 '서홍동 H씨댁', 양건 건축사의 '가족호텔 담앤루'의 경우도 주변 환경과 일체화되려는 시도가 잘 느껴지는 작품들입니다.

이성호 : 제주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의 시대를 맞게 되고 육지와 비슷한 건물이 대량으로 건설되면서 제주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주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제주의 전통건축에서 유추된 제주 초가의 형태 및 배치에 의한 공간구조, 자연환경 특히 오름의 완만한 곡선 실루엣이나 태평양 바다의 수평적 지평선 등이 주된 참조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전체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제주도는 바다에서 중산간까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지역 전체의 아이덴티티보다는 그 장소에 조화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면 제주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는 제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건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타 지역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지역 건축사 또한 제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건축에 도입하려고 하지만 깊이 차원에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기에 건축을 볼 때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너무 높지도 않으면서 자연과 일치되는 건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업건축보다는 공공시설물을 둘러볼 기회가 더 많아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거리에서 본다면 삼정건축 설계의 '국립제주박물관'을 가장 좋아합니다. 봉개지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국립제주박물관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제주에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붕의 형태가 아담하면서도(가까이가면 그렇지도 않지만) 자연적인 모습 등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곤 합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건축사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지예술인 마을에 위치한 김석윤 건축사 설계의 '도립 현대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걷다보면 올레길이 생각나기도 하고, 현무암 마감이 제주의 돌집과 같은 느낌이 있고, 현무암 담


국립제주박물관

장도 제주의 옛 울담처럼 바람이 왕래하고, 안과 밖이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마치 옛날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집 구석구석 무엇이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며 보물찾기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제주의 멋과 특징을 미술관이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은수 : 제주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되는데 즉, 바람, 돌, 오름, 빛 등 많은 자연요소들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건축적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축사들이 제주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건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왔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특정적인 이론을 정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건축에서의 재료, 공간, 형태의 특징을 제주성에 기인하여 건축적 사고를 통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제주 건축사들의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형준 : 현 시점에서 제주건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사유하는 건축사는 도내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도내 건축사들의 작품을 보면 육지부의 작품과 비교할 때 품질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지만, 지역의 차별성 면에서는 돋보이는 작품이 소수로 한정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듯이 제주에서도 자본과 행정에 의해 침식된 건축이 대부분이고, 지역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건축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건축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작가들은 제주의 3세대 건축사들이며, 작품으로는 2013년 제주건축문화대상을 차지한 'NXC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양건 건축사가 설계한 이 작품은 건축개념과 프로그램에 대한 치열한 사유과정, 개념과 해석의 변증법적 전개, 지역성과 보편성 사이에 존재한 층위들의 중층적 전개, 경관과 건축이 공존하는 방식 등에서 뛰어난 해석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3세대 건축사 중 이러한 치열함과 지역성을 고민하는 건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제주의 정신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수현 : 제주건축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를 얘기하자면 건축재료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는 화산석인 현무암이 건축의 지역적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그 색상이 어두워 거부감을 주기도 하였으나 많은 시행착오 속에 지금은 당당히 제주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석윤 건축사의 '도립 현대미술관'에는 외부 마감으로 적용된 제주석이 일반적인 판석마감이 아니라 간격을 둔 켜쌓기 형식의 디테일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제주 돌담 사이로 반대편이 간간이 보이는 투과성의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2011년에는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주관으로 '제주건축 길라잡이'라는 건축투어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건축적으로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전통, 근대 및 현대건축에 대해 조사하고 몇 분의 교수님과 건축사님들이 심층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건축사분들을 포함한 제주지역건축사의 좋은 작품도 있었고, 외국의 유명한 건축사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건축사의 작품도 총 망라한 작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적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한다면 임성추 건축사의 '휴양펜션 돌과 바람'이 기억에 남는


제주도립 현대미술관


휴양펜션 돌과 바람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 내부에 위치한 펜션은 바람의 길을 열어 주었고, 진입하는 공간은 제주전통마을의 올레길을 연상하게 하는 작품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순응과 공간조직의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작업으로 기억합니다.

양 건 :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미 여러 선배건축사님들이 해오셨지만, 이 주제를 논할 때 특히 세 분의 선배건축사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 분 모두 지역건축사회 회장을 하시면서 제주건축문화 발전에 대한 사명감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강행생 건축사(1939년생)님은 서귀포 보목리 출신으로 제주실업전문대학(現 국제대)의 교수로 제주에 오셔서 석사학위 논문인 '제주도 안 · 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알 수 있듯,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주제로 연구와 작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제주교육박물관'을 들 수 있습니다. 평생의 주제인 안 · 밖거리 살림집 사이의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조직이 돋보이고 형태적으로도 제주의 지세를 거스르지 않는 모임지붕의 안정감으로 형성된 외형은 제주건축의 교과서적인 건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김창우 건축사(1943년생)님은 한경면 신창리 출신으로 제주실업전문대학에서 10여 년을 후진을 위해 봉사하셨고, '제주지역관광호텔의 건축구성 및 이용률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으로 제주의 주요 건축물들이라 할 수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초석을 놓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 작품인 '한림공원 안내소'는 좀처럼 풀리지 않던 지역성의 형태 논의에 대한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90년대 이후 지역성 논의는 형태에서 공간으로 주제가 옮아가지만, 80년대 초반 '초가'와 '오름의 능선' 등 형태적인 측면이 중요시되었던 당시의 현상을 이해한다면 원형과 사각형의 단순기하 조합으로 구성된 평면 위에 전통초가의 곡선을 도입하여 적정한 프로포션을 이룬 수작으로 제주의 지역성을 논하는 데 주요한 지점에 놓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윤 건축사(1945년생)님은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제주대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을 후학 양성에 힘써오셨고, '제주 와가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의 학문적 연구와 작품 활동을 통하여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구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표작으로는 연동성당, 저지 현대미술관 등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만 2004년 현상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한라도서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주건축의 정체성 논의가 제주민가를 모태로 한 서술적인 공간론이었다면 옴팡진 지형을 좌향의 콘셉트로 내세우며 건축의 정신적인 층 위로 담론의 외연을 확장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에서도 특히 지붕의 디자인은 고전주의적 사실주의에서 벗어난 현대적 조형성이 감지되는 작품입니다. 세 분의 선배 건축사님 이후로 제주건축의 지역성 논의에 임성추 건축사(1957년생)님의 작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7년 발표한 '이도동L주택'은 제주민가를 근대적 공간론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의 보편성을 획득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의의 범주를 좀 더 확대하면 인문 · 사회적 측면과 더불어 자연환경에 대처한 제주건축사들의 작업태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현군출 건축사(1965년생)의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은 제주섬의 에지(Edge)에 위치한 건축으로, 바다와 섬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흐름, 해변경관에 대한 존중 등의 건축태도에서 해안가 건축의 일반해를 읽을 수 있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더불어 김윤희 건축사(1968년생)의 '제주시 절물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은 건축계에서 거론되는 현대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제주의 산림경관에 건축은 어떠한 자세로 다가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진중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한림공원 안내소


한라도서관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절물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최근 들어 외국의 스타건축사나 중앙의 저명한 건축사들에 의한 명품 건축들이 제주에선 일상적인 건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만큼 수준 있는 보편적 건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런 외지 건축사들의 작품에 비교하여 제주 건축사들의 작업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역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제주건축사들의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주지역 건축의 미래에 대한 비전

–김형수 편집국장

신석하 : 제주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를 전제로 한 지역성 논의는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없는 지속적으로 변이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담론 변화의 주된 요소 중 하나가 '시대성'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제주지역 건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논의를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주건축의 미래를 위해 제주지역 건축사들은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언 : 역설적으로 제주건축의 미래는 자연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관광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 환경 때문인데,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무너져 간다면 이는 제주가 가진 최고의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지요. 새로운 건축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건축사들의 책임도 막중해지는 것입니다. 건축이란 것이 자연환경을 훼손해야 하는 원죄를 갖고 있다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완성단계인 도시에 있어서도 건축을 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유지하고 되살려 나가려는 건축사들의 노력이 있어야겠지요. 다행히도 이런 점들을 같이 고민하는 모임들이 건축사들 뿐 아니라 지역의 교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제주의 미래가 이루어져 가겠지요.

양수현 : 세계7대 자연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는 이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관광지로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의 집산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스타일의 건축양식이 밀물처럼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되나, 제주의 도시 · 자연경관을 고려하는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의 건축스케일은 거대하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는 휴먼스케일에 맞추는 디자인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의 건축사들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지난 10여 년간 제주건축문화축제를 건축3단체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제주건축은 한 걸음 더 도민에게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건축전문가로서 제주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하여주시길 학교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건축문화축제

선은수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따라 급속하게 도시의 규모 확장과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많은 건축물들이 계획되고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제주의 건축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 건축사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숙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의 건축사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술대전(건축분야), 건축대전 순회전, 회원전 등 다양하게 문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건 : 앞서 제주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대형프로젝트가 일반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 건축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화 혹은 글로벌한 프로젝트의 기회가 많아졌고, 그러한 트레이닝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 건축의 트랜디한 주제인 '특수성의 보편화'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주건축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의 건축사들은 정체성에 대한 담론에서 얻어지는 '특수성'과 여러 해외건축주와의 프로젝트 경험에서 얻어지는 '보편성'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미래는 이러한 제주 건축계의 긍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다듬고 질적인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요.
제주라는 물리적 공간이 한계라면 이러한 장점으로 무장하여 제주건축사들의 활동영역을 동아시아권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은 한반도와 연결하는 해저터널보다는 전 세계와 24시간 왕래할 수 있는 신공항프로젝트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의 아젠다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의 구심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 지역의 정체성도모를 위한 건축교육

–김형수 편집국장

신석하 : 제주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지역 건축교육기관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연하게도 제주지역 내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4개 대학의 교수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대학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건축교육의 주안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더불어 기성 건축사들에게 바라는 점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 제주에서의 건축교육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의 지역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지역성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의 보편성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건축사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건축교육은 지역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제 인증을 받은 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의 경우, 제주건축문화, 현대건축 등의 교과목을 통해 지역성과 보편성 대한 균형 잡힌 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들이 실제 설계과목에 적용되는 것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리적 한계일 수도 있지요. 육지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고, 다양한 건축사례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국내의 저명 건축사 초청특강을 매 학기, 학년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설계작품에 대한 크리틱도 육지부의 교수와 건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과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답사를 통해 육지부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건축사나 교수에 대한 초청도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의 지역성과 보편성이 균형을 가지고 조화된 건축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에 의한 부족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석하 : 이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제주국제대학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대학에 건축과가 만들어진 제주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인 탐라대학교가 최근 통합한 대학입니다. 제주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한국문화의 이해, 제주문화의 이해, 주거와 문화, 제주문화와 건축, 도시경관 등의 교과목을 통해 지역성 즉 제주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현 : 제주의 건축 후배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에서 지난 17년간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제주가 갖는 지리적 소외감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건축적 카테고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지역적 특징을 디자인 모티브로 택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건축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의 건축디자인과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 과거부터 현장 실무형 주문식 교육사업 및 누리사업 등을 수행하며 제주지역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전문대학 중 4개교만 시행하고 있는 건축공학인증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공학과 디자인을 병행하여 제주의 현장실무를 담당할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집중에 따른 제주지역 건축설계 업무 환경의 특징

김형수 : 중앙에서 접하는 소식으로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건축경기가 호황인 지역 중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의 건축설계 업무 환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한 중국의 자본이 제주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준 :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등 해외자본의 제주 유입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건축문화의 향상 또는 제주적인 건축문화의 생산이라는 점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해외자본에만 편승하는 건축사나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제주 신시가지 노형동에 218m, 56층 규모의 쌍둥이 건물이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단 한 차례의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건축심의위원회가 5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상당수 재심을 하면서 218m의 제주도 최고 높이 건축물을 단 한 번에 조건부 통과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칫 도민과 해외자본에 대한 심의 잣대의 형평



드림타워

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218m 쌍둥이 건물처럼 제주에는 해외자본에 의한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로 제주가 지켜야할 경관적, 환경적 자산이 파괴되거나 제주가 가져야할 문화적 자존심도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건축계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이전투구의 그림자가 보여 씁쓸하더군요. 지금 제주는 자본과 문화 사이의 균형 잡힌 시각과 건축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은수 : 제주지역 건축설계 환경은 타 지역과는 다른,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설계수행을 지역 건축사가 담당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메이저 건축사사무소와 지역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시장의 규모에 비해 건축사사무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며 그러다 보니 경쟁으로 인한 설계비 저하 및 품질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봅니다.

양수현 : 최근 물밀 듯 들어오는 중국의 거대자본은 제주의 건축시장을 바꿔놓았습니다. 현재 국내건축산업이 위축되어 있어 이들을 통한 건축산업의 부활을 꾀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이 콘도 위주의 분양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의 건축스케일에 맞지 않는 초고층빌딩이 모두 외국자본에 의한 것이고, 이를 허가하는 과정에 잡음이 많이 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치중된 나머지 제주가 갖는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지 않나 하는 걱정입니다.


아덴힐리조트 전경

김상언 : 가장 큰 특징은 제주지역의 건축사사무소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10인 이상인 규모를 갖춘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에서 소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대규모 사무실이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역량의 문제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건축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현상공모 등에 제주의 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자본의 투자를 통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최근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 등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건축계의 형편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나은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직원들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역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원은 한정적인데 사무실 수는 매년 늘고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법이 없어 건축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건 : 해외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고, 몇몇의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이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 중국자본의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자금문제로 멈춰 섰던 대형 프로젝트나 개발사업이 중국 자본의 개입에 의해 다시 시작되고, 수 만년을 간직해온 제주의 깊숙한 땅까지 개발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주의 부동산이 너무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영주권마케팅'에 의해 기획된 프로젝트엔 '건축'이 없습니다. 그리 지어진 건물은 단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콘크리트로 된 서류일 뿐이고 건축사들의 업무는 대서소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제도 보완의 내용을 하나 제안한다면 제주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결합된 문화적 가치로서 프로젝트를 이미지브랜딩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제주의 부동산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고 제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것이지요. 이럴 때 양적인 문제도 동시에 관리되어야 하는데 개발가능 부지의 총량도 제한하여 부동산의 공급량을 한정하고, 제주만의 정체성이란 브랜드가치를 얹어서 그만큼 건축의 질적 수준도 높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국계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소위 '유럽식'(?)이란 국적불명의 디자인을 가진 건물들로 제주의 자연환경을 물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 보완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외국자본이 집중되고 있어 제주에 일이 많을 것이란 즐거운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제주건축사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건축설계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자본에 의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설계업무는 주로 중앙의 메이저 설계회사들이 주관하고 제주의 건축사들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합니다. 이때 제주의 건축사들은 소위 대관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맡게 되면서 설계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협업의 목적이 서로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제주의 건축사들은 단순 협력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건축설계의 본 업무에서 배재된 제주 건축사들의 역할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라는 존재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주건축계의 현실을 숙지하고 있는 행정의 제도개선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의 절차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건축계획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의 여러 항목에는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녹여내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획설계에서부터 제주의 땅과 아이덴티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제주의 건축사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협업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현장에서 계획에 참여한 제주 건축사가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작업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자본이나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중앙의 메이저

업체들과의 컨소시엄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성호 : 제주건축 환경도 제주관광시장만큼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이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죠. 제주건축에 있어서도 중국자본 진출은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만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 사업이 제주의 땅을 이해하고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지역 건축사의 활동소개

김형수 : 여러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건축사들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건 : 2005년부터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와 연합하여 3단체 공동주관으로 '제주건축문화축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 단체는 지속적으로 회원전, 시민건축심포지엄, 어린이 사생대회 등을 통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오끼나와 건축사회와 국제교류사업으로 매년 양측의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하여 교환근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본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회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2년여 전부터 고봉규 건축사님(現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의 강력한 추진 아래 '제주건축역사 50년사'와 '제주건축의 새로운 지역성 연구'의 발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 측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 각종 문화관련 사업에 제주의 회원들도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회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합니다만 제주에 유치하거나 순회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정보 소통의 부족으로 같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성호 : 제주의 건축사 활동은 최근 양적 ·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체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봉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협회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이면 좋을 듯합니다.

양수현 : 제주지역 건축사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력풀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건축사보의 높은 이직률로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 같지만, 설계비의 현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충분치 못한 수익으로 건축사보에 대한 복지에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설계에 재능을 보이는 데도 보수가 좀 더 좋은 설비나 시공회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향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석하 : 장시간 동안 제주건축의 정체성, 현상, 미래, 교육 등의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진중한 논의의 자리가 된 듯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좌담이 동시대의 제주건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란 주제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좌담회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며

김형수 : 정말 제주도 건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제주도 건축사들의 제주도 건축의 아이덴티티 재현에 관한 고민과 노력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건축은 육지의 지역적인 특성보다 더 강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제주도의 역사와 해양기후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주도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해석하는 방식이 전통건축의 공간을 차용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과 제주도 현무암을 이용한 강한 색채와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작품이 놓인 대지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에 녹아들려는 세 가지 시도로 요약된다는 명쾌한 해석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적인 정체성을 더욱 더 세련되게 표현하고 그 해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건축사 회원분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번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Kim, Hyoung-jun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2010년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 연구교수
現 제주대학교 기획처 부처장
저서 「제주건축 경계에서 사유하기」



신석하 Shin, Suk-ha / 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부회장,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장 역임
現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장)
現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



양수현 Yang, Soo-hyun / 제주한라대학 건축디자인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Bachelor of Architecture at Kent State University OH. U.S.A.
Master of Architecture at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CO. U.S.A.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회장 역임
現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이성호 Lee, Seong-ho / 제주관광대학교 디자인경영과 교수
성균관대 건축학박사(도시계획학전공)
제주도시계획심의위원(2004~2007)
제주도경관심의위원(2008~2011)
제주디자인혁신센터장(2003~2009, 2011~현재)

※이외 참석자의 약력은 이어지는 회원작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에스엠원 하우스

SM'1 House



설계자 | 선은수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이사로 현재 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설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문 본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설계팀 : 강승종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선림
  - 전기통신설비분야 : ㈜아성기술단
  - 기계소방설비분야 : 명설비

건축주 | 선은수, 박병숙

감리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시공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237-2번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823.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56.75㎡

연면적(Gross Floor Area) | 243.3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05%

용적률(Floor Area Ratio) | 29.5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매직코트

설계기간 | 2011. 12. 26 ~ 2012. 01. 18

공사기간 | 2012. 01 ~ 2012. 12

사진(Photographer) | 염승훈(Yum, Seung-hoon)

Client | Sun, Eun-soo / Park, Byung-sook

Architect | Sun, Eun-soo

Project team | Kang, Seung-jong

General Contractor | SUN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Location | 2237-2, Orasam-dong, Jeju-si, Jeju-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Lee, Sun-rim

HVAC & Eletrical Engineer | A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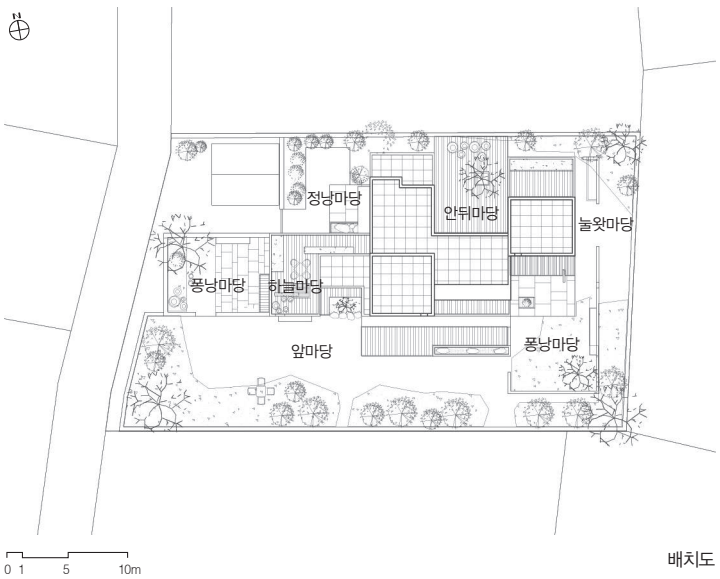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Myung Facilites

Finishing Materials | Magic coat



설경 – 풍낭마당





배치도



남측 야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은 구도심(제주시)과 신제주의 중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촌락이 구성되어 최근 개발된 지역과는 달리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준다. 대지는 정남향으로 쾌적한 채광이 가능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토지이다. 남쪽으로는 한라산이 조망되고 북쪽으로는 공항과 바다가 조망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배치계획의 주된 개념은 각 실에서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각각 설정하여 서로 다른 느낌의 공간들이 연출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공간들이 제주 전통가옥 배치의 특징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여러 개의 작은 마당과 앞마당이 위계를 가지며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지고자 했다. 또한, 마당의 느낌은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보았던 서정적인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조명계획에서도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하였다.

1층은 거실(상방)을 중심으로 안방(큰구들), 주방(정지), 손님방 및 다실(밖거리), 취미방, 다용도실(고팡)이 배치하여 가족이 항상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계획하였으며, 주방과도 오픈시켜 주부의 동선 및 시선을 개방적으로 둠으로써 항상 밝고 여유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거실에서는 앞마당과 안뒤마당이 모두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취미실은 주부의 여가시간을 위한 공간으로, 손님방은 평소 다실로 활용하고 손님이 올 경우는 손님방으로 계획되었다. 손님방에서 퐁낭마당을 보면 정갈한 제주석과 과거 올레길에 있던 퐁낭을 연상하게 하는 서정성을 강조했다.
배치된 평면의 형태가 그대로 입체로 반영된 입면은 단정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였다. 정갈하면서도 깨끗한 흰색 스터코와 유리는 자연 그대로의 색을 받아들이면서 주변 경관을 흐트러트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북측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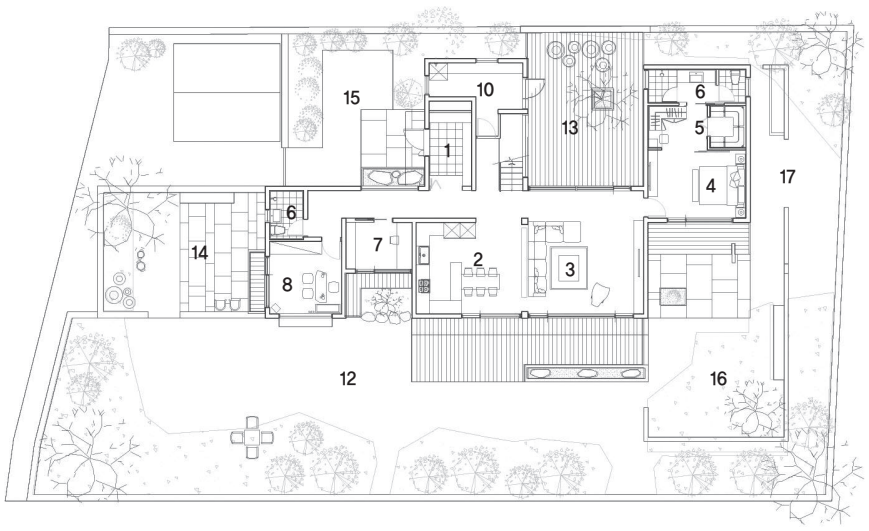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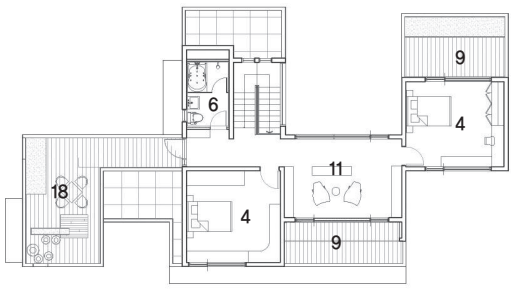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1. 현관 2. 주방 3. 거실 4. 방 5. 드레스룸 6. 욕실 7. 취미방 8. 다실 9. 데크 10. 다용도실 11. 가족실
12. 앞마당 13. 안뒤마당 14. 퐁낭마당 15. 정낭마당 16. 송이마당 17. 눌왓마당 18. 하늘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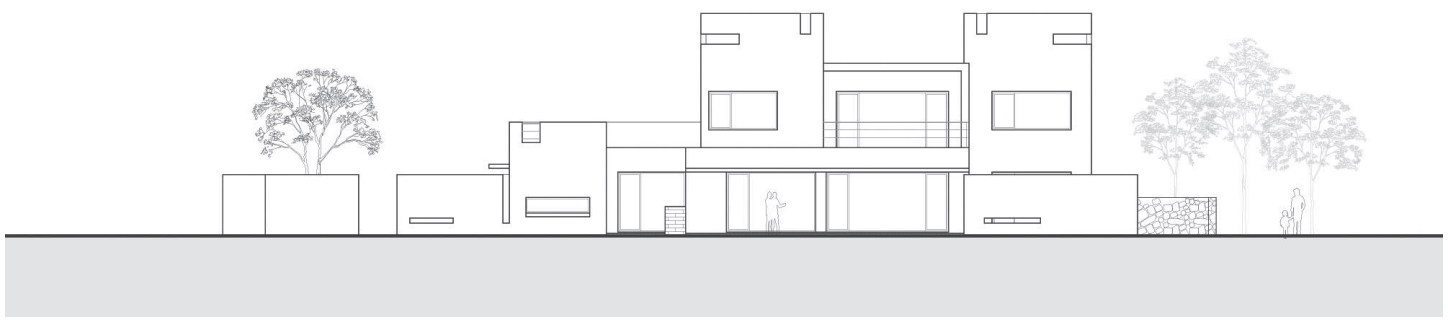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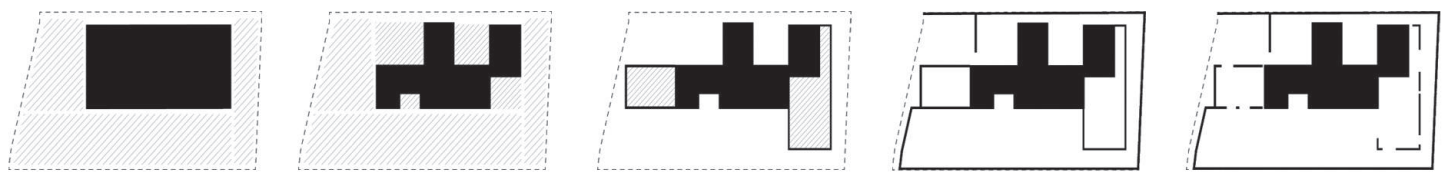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송이마당


현관 입구



입면도



STEP.1 MASS
정남향으로 정방형의 긴 매스를 배치

STEP.2 VOID
매스를 비워낸 공간을 통해 만들어진 외부 마당

STEP.3 LAYER : WALL I
프리이빗 공간들을 위한 담장설치로 마당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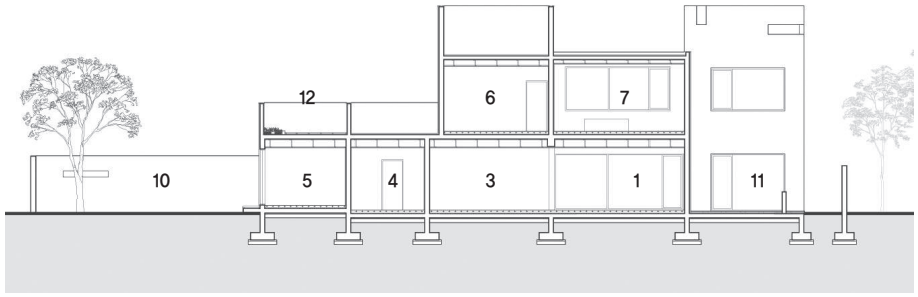
STEP.4 LAYER : WALL II
대지 바운더리를 따라 쌓아 놓은 제주 돌담을 통해 마당 영역 형성

STEP.5 CRACK
트멍(틈)을 통한 자연과 공간들의 관계 설정 및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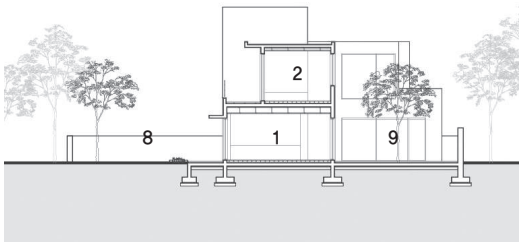
0 1 5 10m

매스 다이어그램

1. 거실 2. 서재 3. 주방 4. 취미실 5. 다실 6. 방 7. 가족실 8. 앞마당 9. 안뒤마당 10. 풍낭마당 11. 송이마당 12. 하늘마당



횡단면도



종단면도



풍낭마당 남측 전경



풍낭마당



안뒤마당



설경 – 앞마당



1층 거실



2층 가족실

회원작품. 제주특집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안내소

Hallasan National Park-Seongpanak Visitor Center



설계자 | 김상언_KIRA | 건축사사무소 담

고려대학교 및 동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다. 대표작품으로는 2008년 소암기념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 수상, 2009년 절물자연휴양림세미나실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2010년 성판악 탐방안내소 현상공모 당선, 2013년 아라동주민회관 현상공모 당선 등이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겸임교수이며,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장을 역임했다.

- 설계팀 : 홍광택, 강경희, 강진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사림구조
  - 기계설비분야 : 에이스 엔지니어링
  - 전기설비분야 : 명 설비

건축주 | 제주특별자치도

감리자 | 이동춘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강보천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24번지

주요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대지면적(Site Area) | 48,595㎡

건축면적(Building Area) | 799.57㎡

연면적(Gross Floor Area) | 1,758.9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99%

용적률(Floor Area Ratio) | 28.43%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1층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제주석 건식붙이기, 삼나무 방부목

설계기간 | 2010. 01 ~ 2010. 05

공사기간 | 2010. 06 ~ 2012. 03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Client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chitect | Kim, Sang-eon

Project team | Hong, Kwang-taek / Kang, Kyeong-hui / Kang, Jin-su

General Contractor | Kang, Bo-cheon

Location | San 137-24, Gyorae-ri, Jocheon-eup, Jeju-si, Jeju-do, Korea

Structure | R.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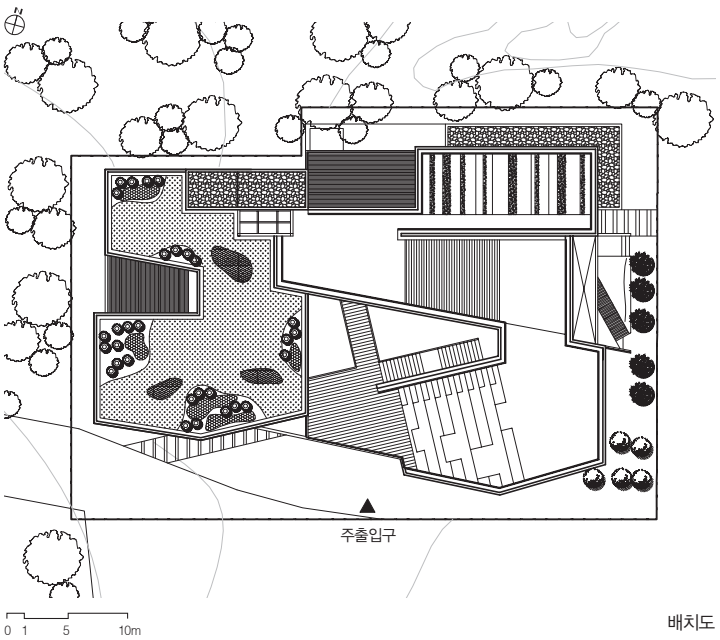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SALIM Engineering

HVAC & Eletrical Engineer | ACE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MYU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Jeju Stone, Exposed Mass Concrete, Cedar Wood





배치도



전경

‘성판악 탐방안내소’는 대한민국 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의 등반코스 중 하나인 성판악코스에 위치하여 등반로를 관리하고 한라산을 등반하는 탐방객들에게 자연생태정보뿐 아니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건축물이다.

대지는 동측에서 서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지의 남측은 탐방로의 시작점으로 탐방객들의 주동선을 이루고 있다. 탐방로의 초입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주어진 가용대지가 너무 타이트할 뿐 아니라 장소의 특성상 높이의 제한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넓게 펼쳐진 구조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계획의 시작은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모티브로 하여 건축물을 주어진 대지에 성공적으로 착생시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하에서부터 가지를 뻗듯 올라가는 폴딩된 판의 접힘과 펼침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그 판들 사이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를 이용해 전시, 사무, 식당 등으로 주어진 공간들을 내 · 외부를 넘나드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내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옥상의 전망휴게공간까지 작은 오름을 오르듯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을 구성하였다. 또한, 강우와 폭설이 잦은 대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정과 지하 선큰은 상부로의 트임보다 측면으로의 트임이 많도록 하여 침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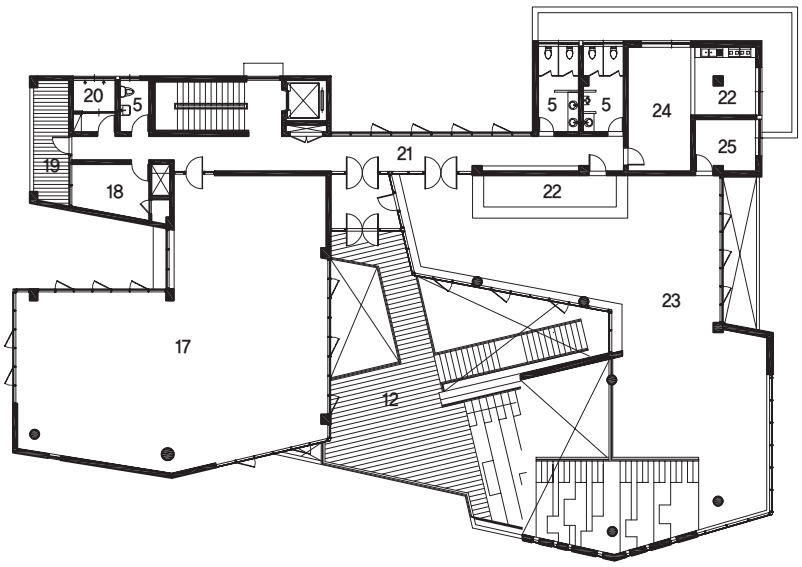
1층은 세 개의 분리된 입구로 구성했다.
첫째 입구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된 전시공간이다. 1층에서 시작된 전시공간은 지하로 연결되며, 선큰 형태로 된 출구를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온다.
둘째 입구는 식당 및 매점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다. 2층의 중정부분으로 출입 가능하도록 하여 옥상의 전망공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셋째 입구는 독립된 화장실로 탐방객들이 외부에서 직접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사무공간은 2층에 배치하여 식당존과 전시존으로 각각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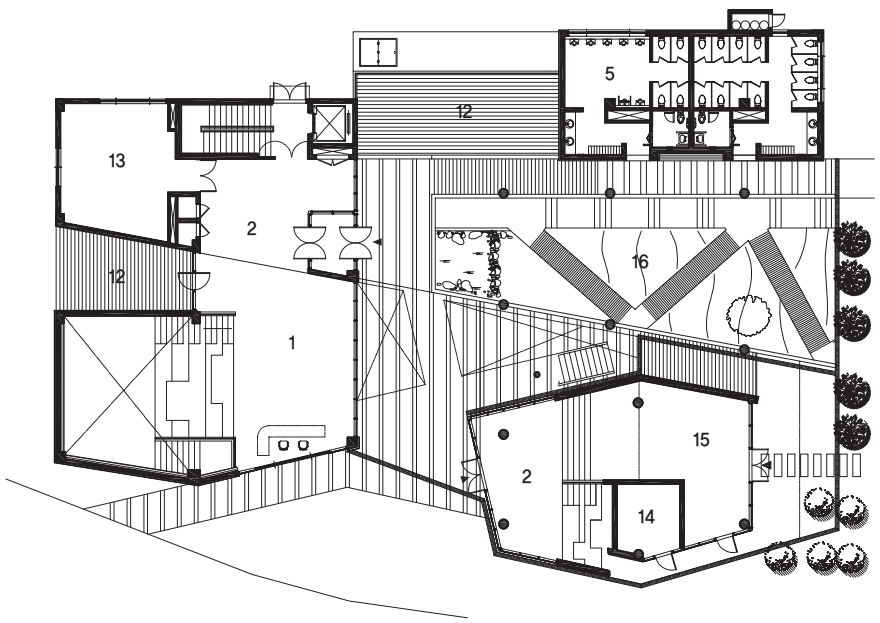
하늘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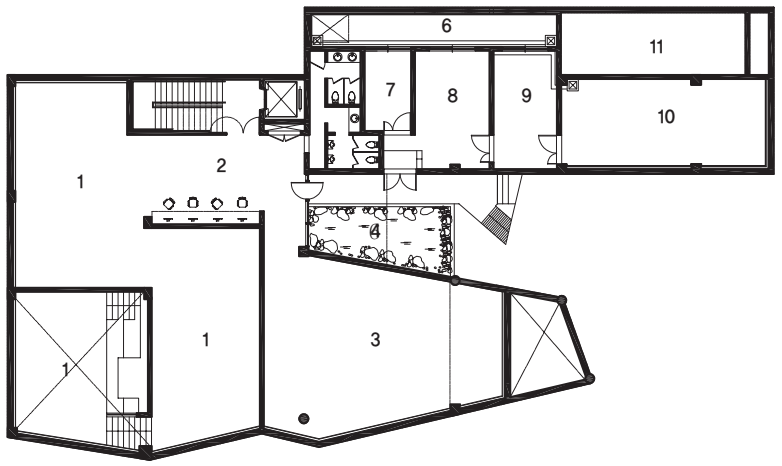
1. 전시실
2. 홀
3. 영상실
4. 수공간
5. 화장실
6. D.A
7. 발전기실
8. 전기실
9. 기계실
10. 물탱크실
11. 펌프실
12. 데크
13. 다용도실
14. 기사휴게실
15. 휴게실(매점)
16. 중정
17. 사무실
18. 숙직실
19. 발코니
20. 샤워실
21. 복도
22. 주방
23. 식당
24. 직원식당
25. 방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1 5 10m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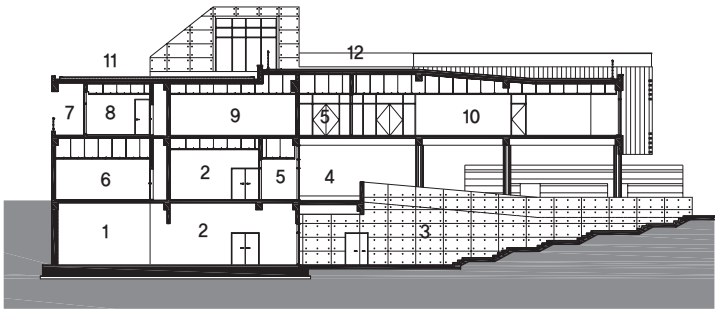
옥상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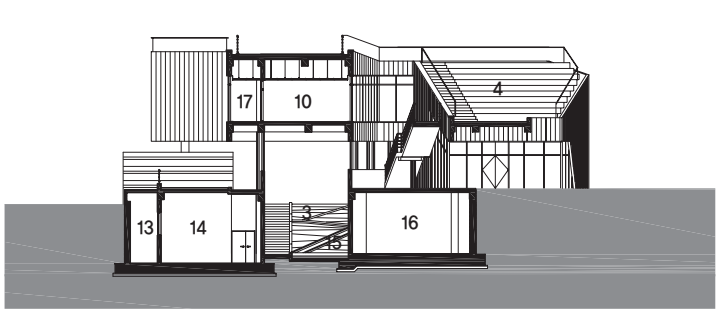
진입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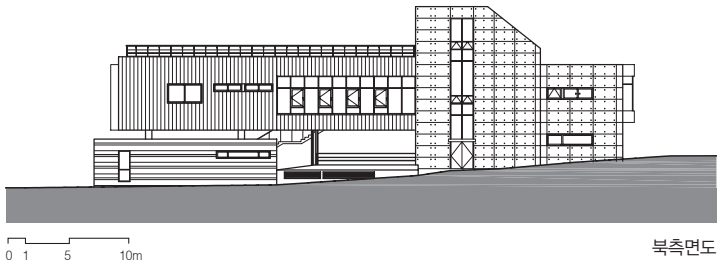
1. 전시실 2. 홀 3. 중정 4. 데크 5. 방풍실 6. 다용도실 7. 발코니 8. 숙직실 9. 사무실 10. 식당
11. 옥상녹화 12. 옥상데크 13. D.A 14. 전기실 15. 수공간 16. 영상실 17.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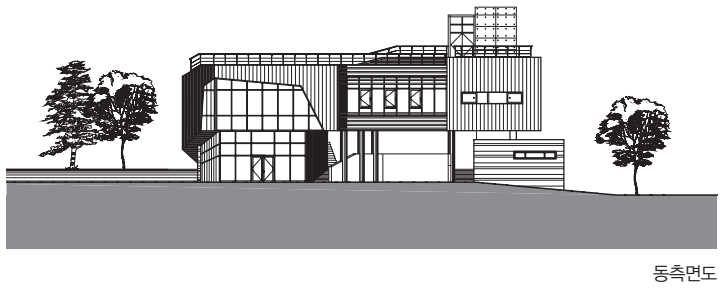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북측면도



동측면도



옥상데크





전시실



전시실

녹고뫼 방문자 센터
Nokgomoe Visitor Center



설계자 | 임성추_KIRA | 예원 건축사사무소
조선대학교 공학석사로 ㈜금성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고 제주시 건축심의위원과 제주산업정보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제주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제주국제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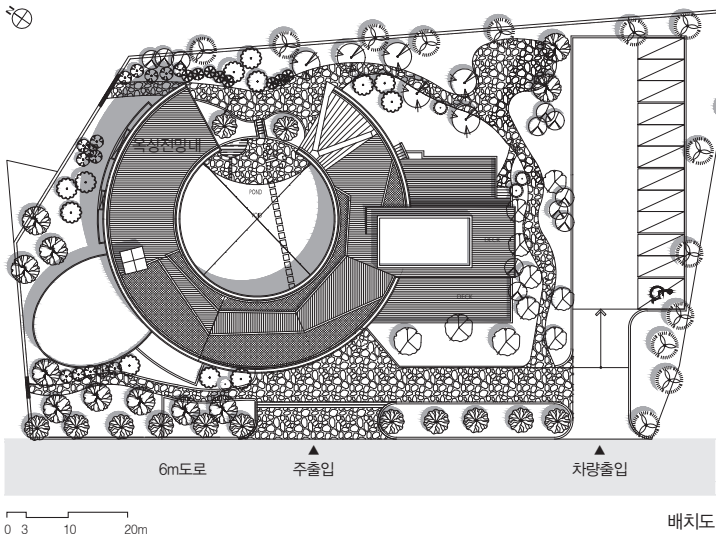
- 설계팀 : 강종협, 고남선, 김선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정구조
  - 전기설비분야 : ㈜화신기술단
  - 기계설비분야 : 하나기술사사무소

건축주 | 녹고뫼권역농촌마을 추진위원회
감리자 | 예원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영도종합건설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178-1번지
주요용도 | 마을회관
대지면적(Site Area) | 3,157㎡
건축면적(Building Area) | 616.91㎡
연면적(Gross Floor Area) | 705.8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54%
용적률(Floor Area Ratio) | 22.3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제주석, THK22 복층유리
설계기간 | 2011. 03 ~ 2011. 05
공사기간 | 2011. 07 ~ 2012. 10

Client | Nokgomoe Village Committee
Architect | Lim, Sung-chu
Project team | Kang, Jong-hyeob / Ko, Nam-seon / Kim, Seon-hui
General Contractor | Yeongdo Construction
Location | 1178-1, Yusuam-ri, Aewol-eup, Jeju-si, Jeju-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Jung Structural Engineers
HVAC & Eletrical Engineer | Ha Na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Hwa Shi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Jeju Stone, THK22 Glass





배치도

전경

방문자 센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는 일, 사랑, 가족, 건강, 친구 등인 것 같다. '여행'만큼 이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아마도… 그래서 여행이 우리와 오래 함께하는 이유인 것 같다. 이것이 다소 부조화스러운 듯 제시된 프로그램을 풀어나가는 키워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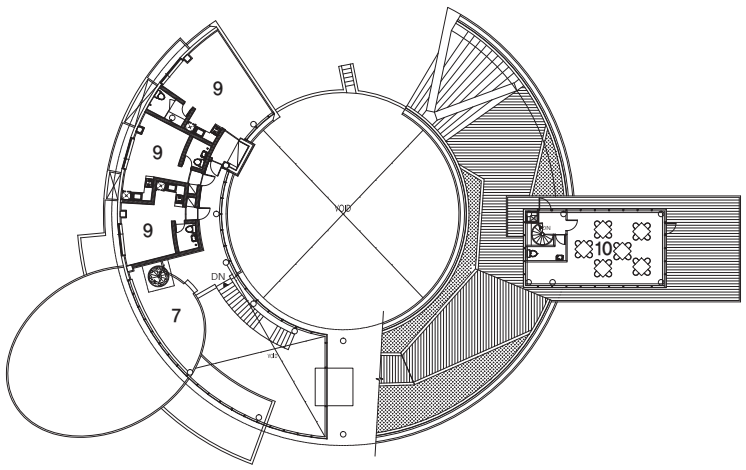
녹고(鹿高,鹿古)뫼의 기억…

설계는 녹고뫼 오름, 한라산에서 사슴들이 내려와 물을 마시고, 숲을 거닐고, 그러다 눈도 마주치고… 이런 상상의 기억을 찾아내며 시작되었다. 녹고뫼를 닮고 싶었고, 이 오름에 묻혀 오름의 일부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건축은 아예 없는 듯… 아마 그들도 여기에서 눈 쌓인 한라산을 보고, 초록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보고, 그리고 저기 멀리 제주 마을들을 지나 끝없는 바다도 보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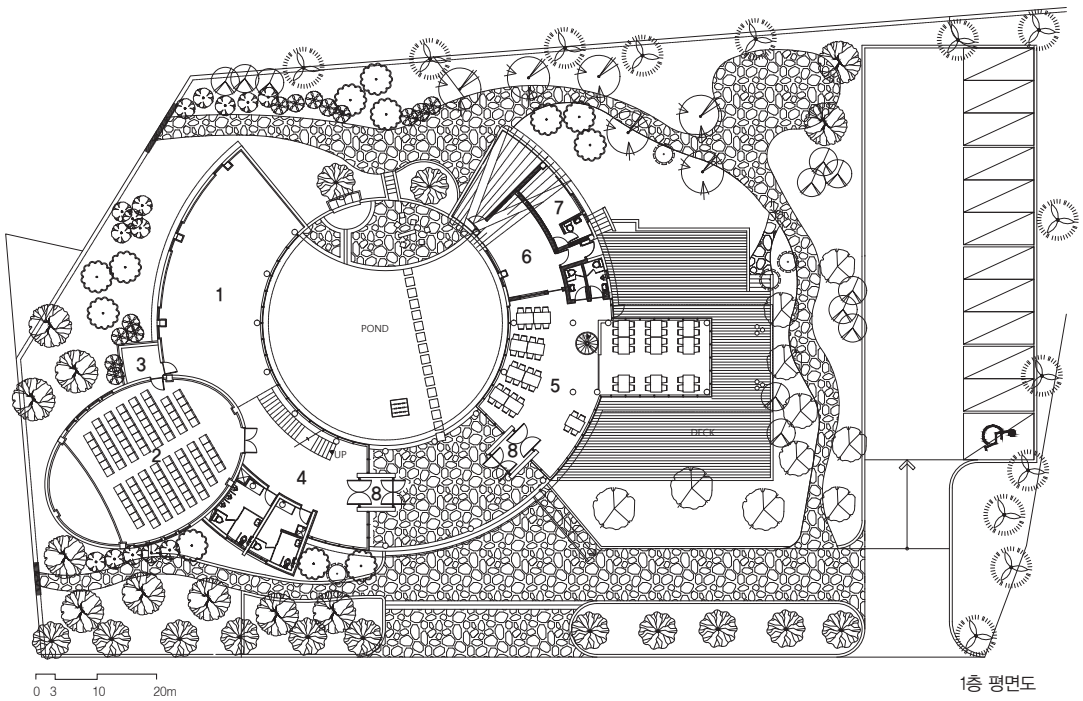
도로면에서 바라본 전경





1. 전시실
2. 다목적 강당
3. 창고
4. 홀
5. 식당
6. 주방
7. 휴게실
8. 전실
9. 숙소
10. 카페테리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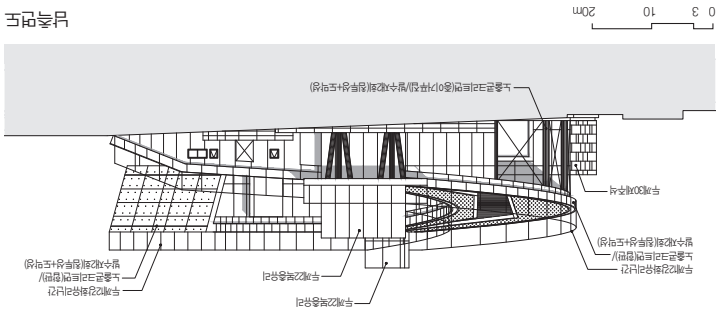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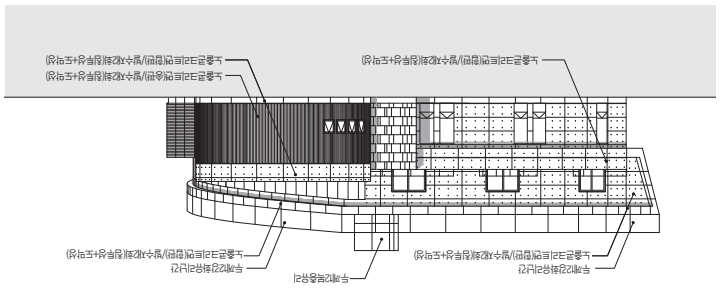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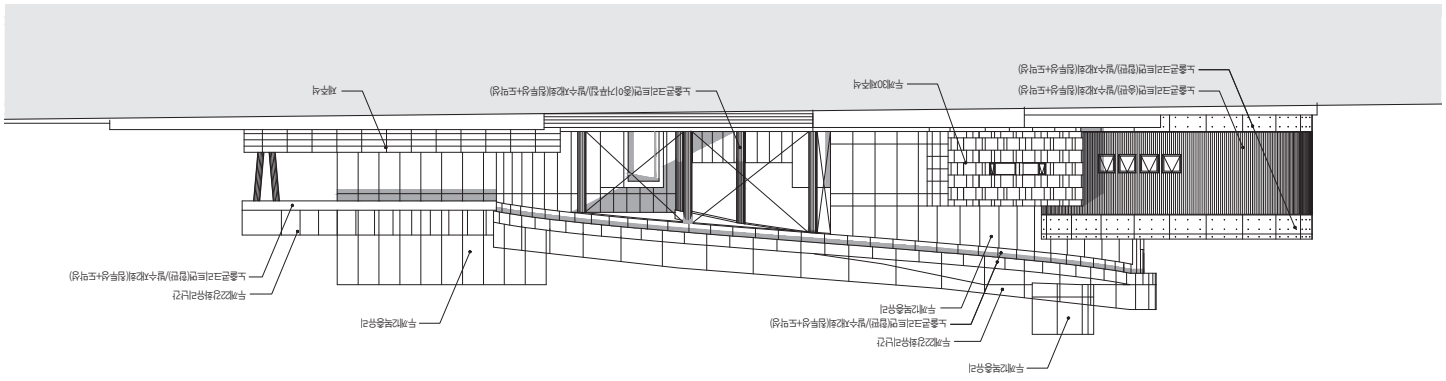
남측면도



북측면도



A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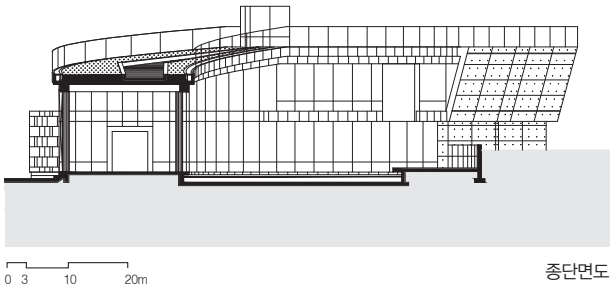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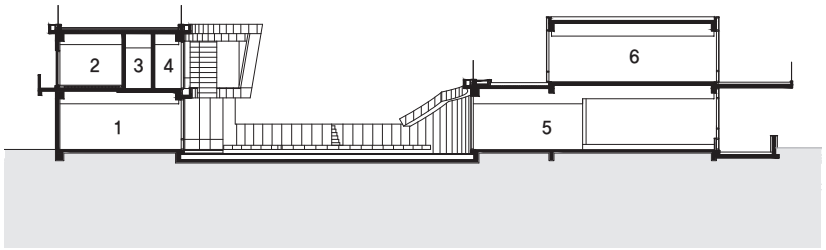




1. 전시실 2. 숙소 3. 화장실 4. 복도 5. 식당 6. 카페테리아



종단면도



횡단면도







옥상전망대

제주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Reserch & Extension Services



설계자 | 오용화_KIRA | 건축사사무소 예림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졸업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도무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2006~2007년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장을 역임하였다. 제주시 건축상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을 다수 수상하였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강사 및 건축사사무소 예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제주화물자동차터미널, 대한통운 제주사옥, 서귀포시 소암현중화기념관, 친환경 농업첨단 연구센터, 삼매봉 밸리 유원지 개발(콘도, 온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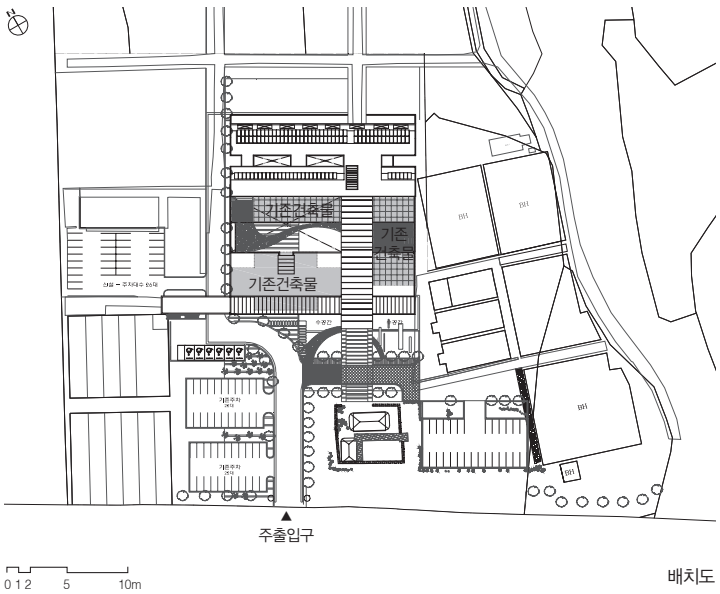
- 설계팀 : 홍광택, 김상윤, 김홍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사림구조
  - 기계설비분야 : 명설비
  - 전기분야 : 윤엔지니어링

건축주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감리자 | ㈜오름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한일종합건설㈜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58 외 6필지
주요용도 | 연구소
대지면적(Site Area) | 21,298㎡
건축면적(Building Area) | 4,229.10㎡
연면적(Gross Floor Area) | 6,269.7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86%
용적률(Floor Area Ratio) | 29.44%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조
주요마감재 | 제주석, 노출콘크리트, 목재루버, 티타늄아연판
설계기간 | 2008. 08. 21 ~ 2008. 11. 18
공사기간 | 2009. 01. 22 ~ 2010. 02. 23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Client | Jeju Agriculture Center
Architect | Oh, Yong-hwa
Project team | Hong, Gwang-taek / Kim, Sang-yun / Kim, Hong-cheol
General Contractor | Hanil E&C
Location | 3458, Gangjeong-dong, Seogwipo, Jeju,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eel Frame Construction
Structure Engineer | Salim Structural Consultant
HVAC & Eletrical Engineer | Myou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Yu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Jeju Natural Stone, Wood Louver, Exposed Concrete, Titanum Zinc Plate





배치도



전경

제주의 산업은 3차 관광산업과 더불어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산업의 중심기관인 친환경 농업첨단연구센터는 설계경기 공모로 참여해 그 책임에 대한 큰 무게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보람 있는 작품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달리 대지 내 기존 건축물 3동이 위치해 있었다. 이를 철거 후 신축계획을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 세워졌던 기존 건축물의 배치 및 동선을 살려 증축하는 계획안을 제안했다.

기존에 있던 3개의 별동을 철거 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을 하나로 감싸는 공간을 제안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기존 동선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건축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분산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의 야외 동선으로 쓰였던 공간에 메인홀을 설치하고 메인 출입구이자 남측면은 대형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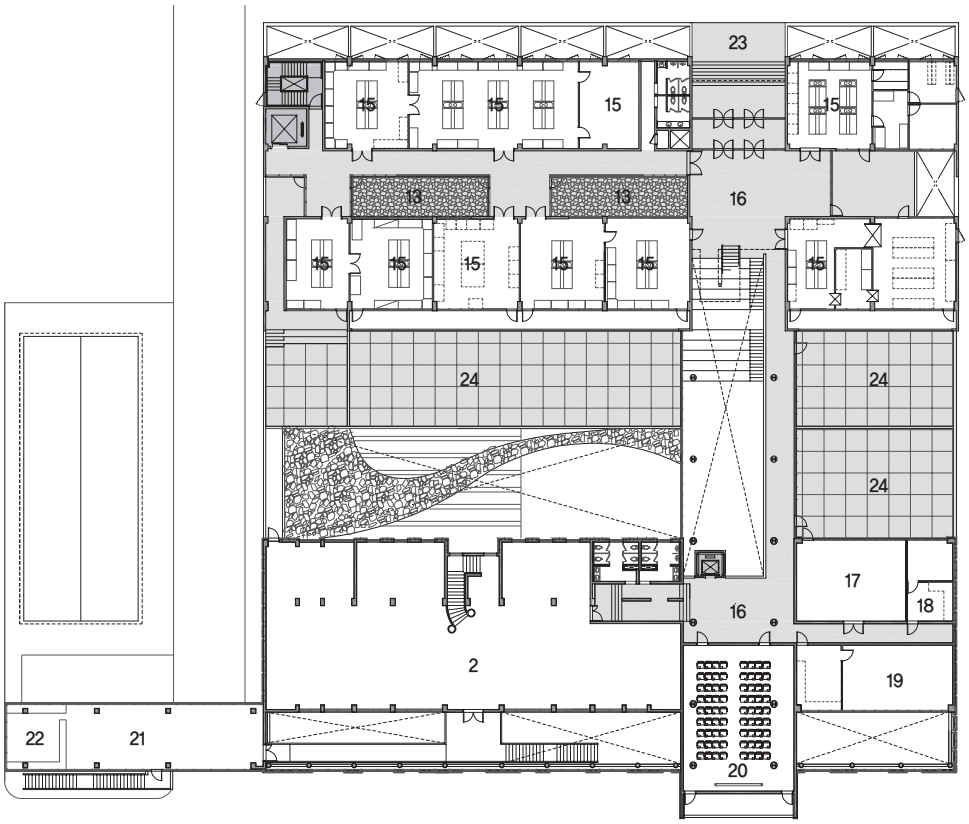
그리고 동선 상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북측면에 연구실, 배양실 등을 위치하게 함으로써 연구실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계획하였으며, 향후 북쪽으로 증축이 가능하다.

공용공간은 최적의 경제성을 가진 중복도형으로 계획하고 그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빛우물로 소규모 중정을 설치하여 기존 본관과 별관 사이의 공간인 중정을 야외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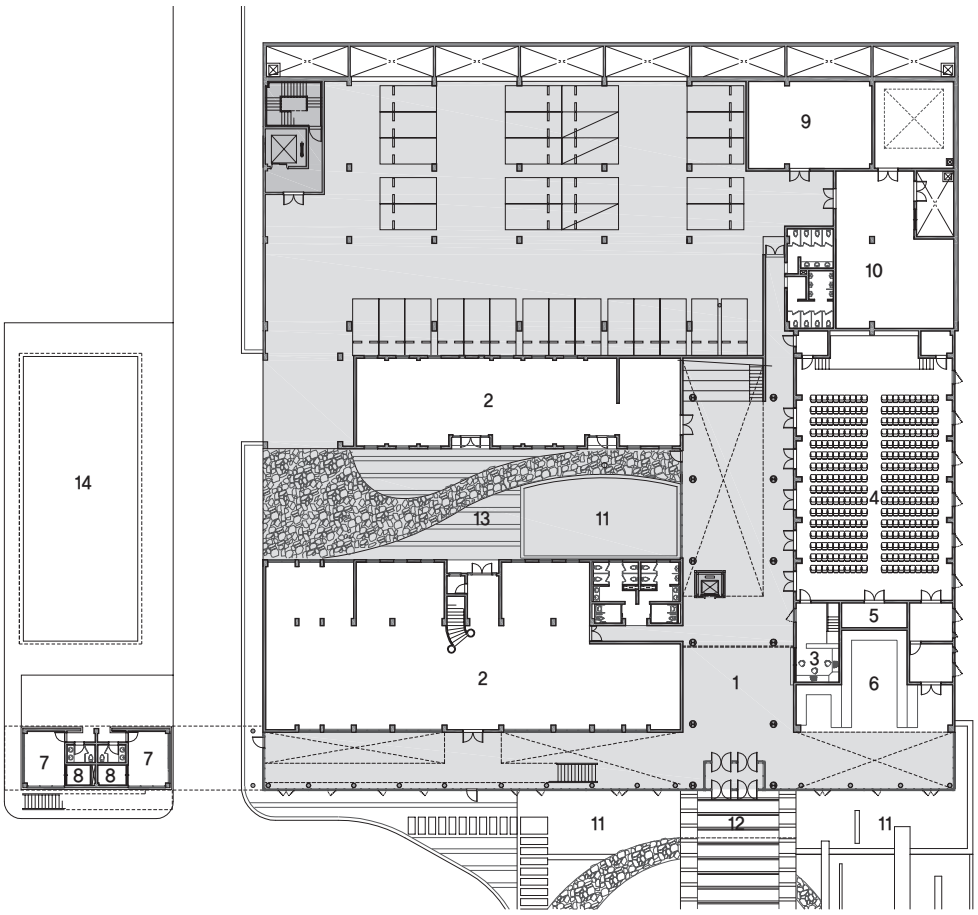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1. 로비
2. 사무실
3. 안내실 및 숙직실
4. 대강당
5. 방송실
6. 전시실
7. 휴게실
8. 샤워실
9. 기계실
10. 전기실/발전기실
11. 수공간
12. 주출입구
13. 중정
14. 농기계 보관창고
15. 연구실
16. 홀
17. 전산실
18. 운영실
19. 자료실
20. 세미나실
21. 식당
22. 주방
23. 부출입구
24. 데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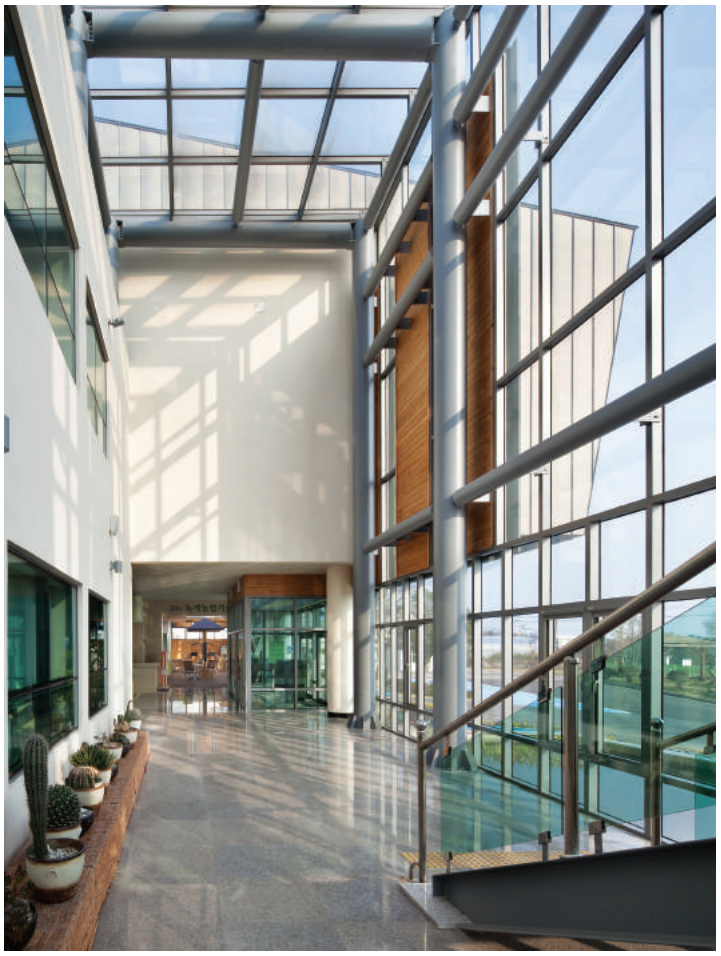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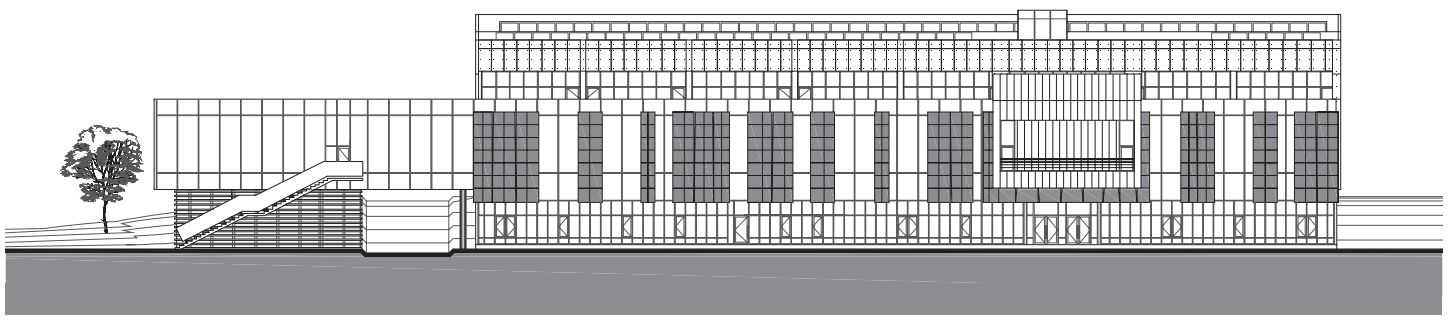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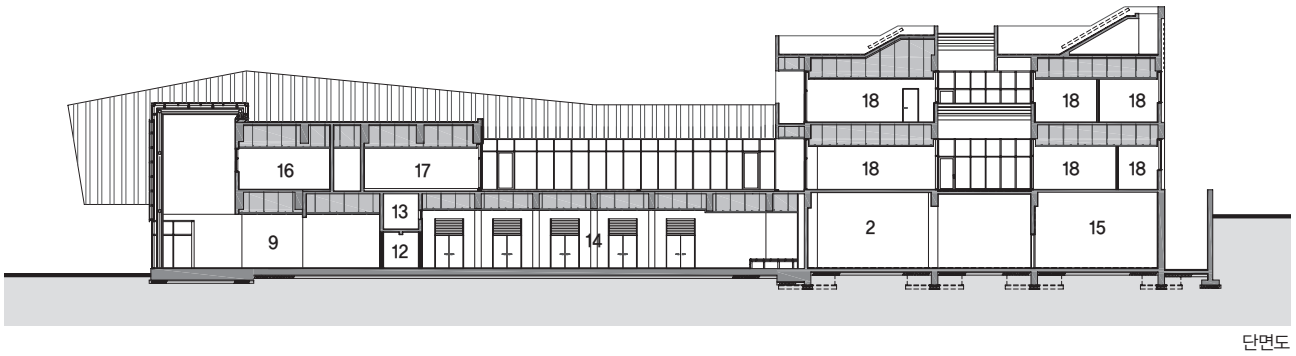
0 1 2 5 10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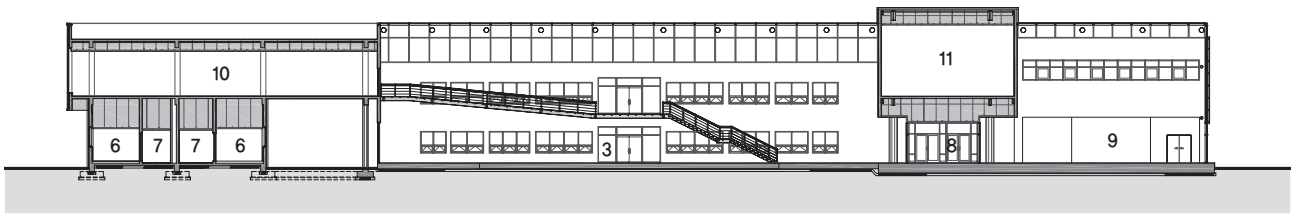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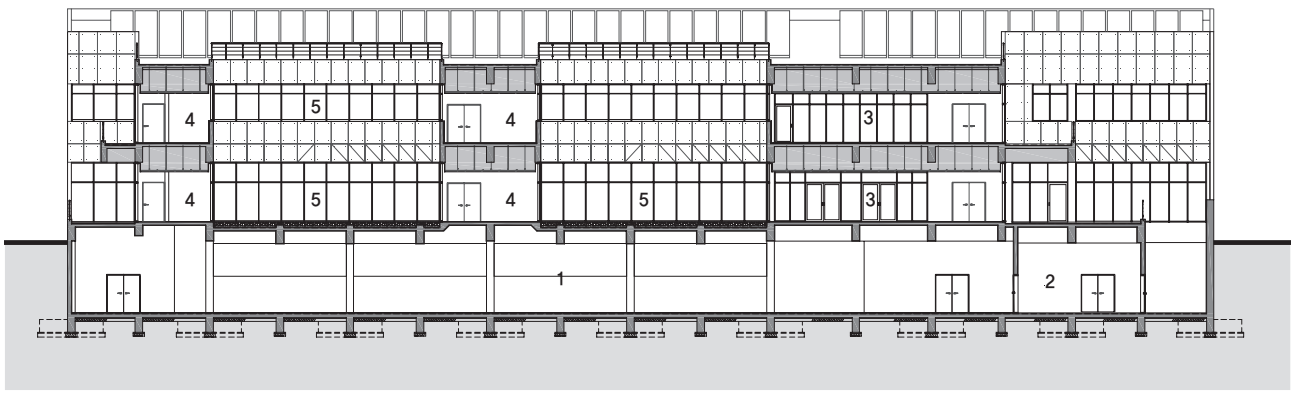
1. 주차장
2. 전기실/발전기실
3. 홀
4. 복도
5. 중정
6. 휴게실
7. 샤워실
8. 방풍실
9. 전시장
10. 식당/주방
11. 세미나실
12. 대기실
13. 방송실
14. 대강당
15. 물탱크실
16. 자료실
17. 전산실
18. 연구실



단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0 1 2 5 10m

그海제주

The Sea Jeju



설계자 | 박현모_KIRA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1
제주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대웅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1을 운영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제주하늘푸른바다, 구엄799-9, 김녕599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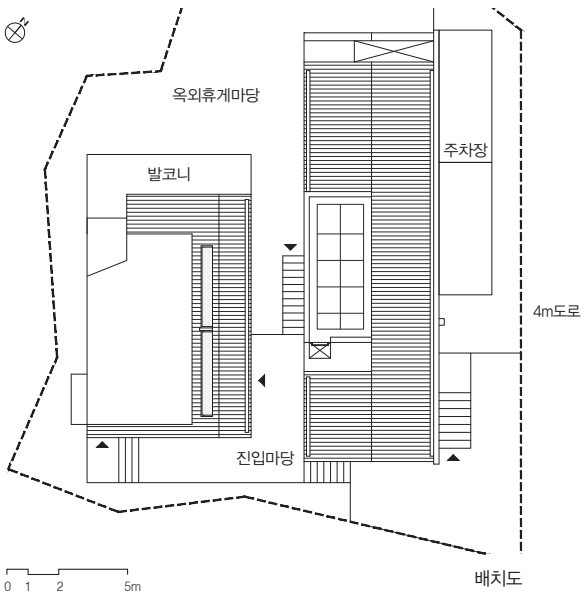
- 설계팀 : 김재홍, 홍혜민, 황정필, 오시훈, 홍승유, 김은실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정구조
  - 기계설비분야 : 주식회사 한일
  - 전기분야 : 주식회사 한일

건축주 | 정재선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1
시공사 | 정재선, 윤현준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00번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
대지면적(Site Area) | 343.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77.6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20.2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1.80%
용적률(Floor Area Ratio) | 60.99%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1층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제주석, VM징크, 스타코
설계기간 | 2012. 10. 29 ~ 2012. 12. 25
공사기간 | 2013. 01. 10 ~ 2013. 11. 21
사진(Photographer) | 이윤석(Lee, Yun-seok)

Client | Jung, Jae-sun
Architect | Park, Hyun-mo
Project team | KIM, Jae-hong / Hong, Hye-min / Hwang, Jeong-pil
Oh, Si-hoon / Hong, Seung-you / Kim, Eun-sil
General Contractor | Jung, Jae-sun / Yun, Hyun-jun
Location | 1700, Hyeopjae-ri, Hanrim-eup, Jeju-si,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Jung Engineering
HVAC & Eletrical Engineer | Hani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Hanil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Stone-jeju, Vmzink, Staco





배치도


전경

“그海제주“ 오고가는 섬 속의 섬

제주에 아름다운 하늘과 에메랄드 빛 바다가 만나는 그곳… “협재海변”
그 제주다운 장소에 “오고가는 섬 속에 섬 만들기” 프로젝트 “그海제주”

그海제주는 쉼과 비움의 공간인 Guest house 영역과 일과 채움의 공간인 Cafe영역으로 기능이 분리되고, 이는 다시 작게 분절되어 비워져 보다 많은 협재 해변으로의 시각적 연결을 꾀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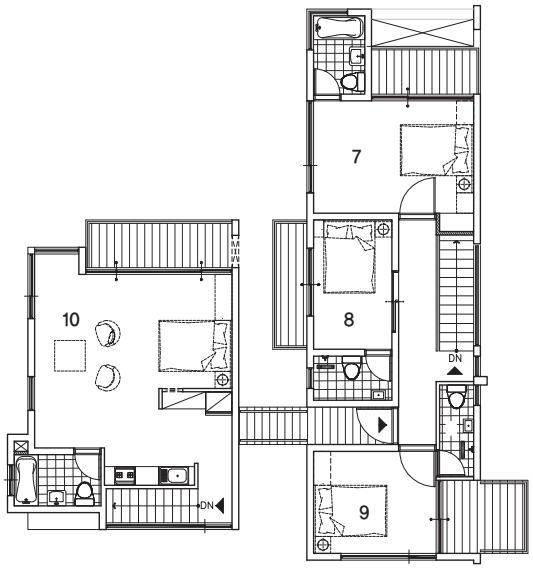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생긴 틈으로 빛과 바람이 머무는 시간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 너머로 시선을 담아 협재 해변으로 무한 정지된 풍경을 선사한다.


건물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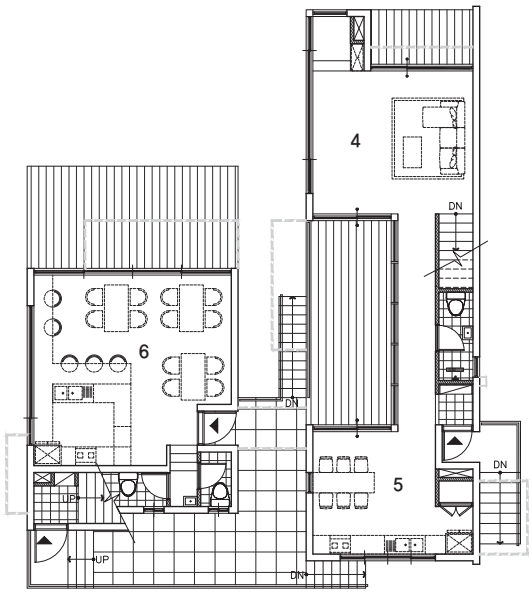

건물외관


건물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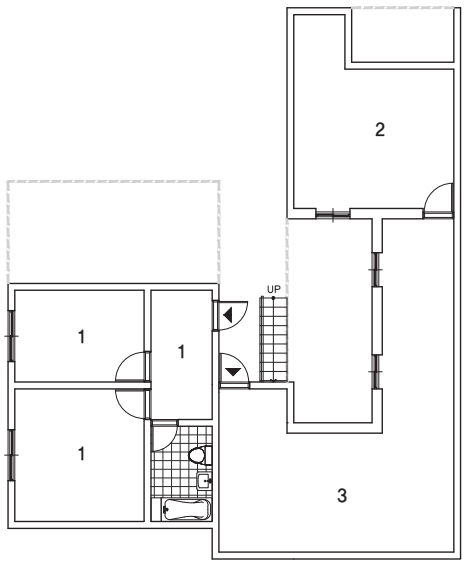
1. 사무실
2. 보일러실
3. 물탱크실
4. 거실
5. 오픈키친
6. 커피숍
7. 가방
8. 나방
9. 다방
10. 바다락방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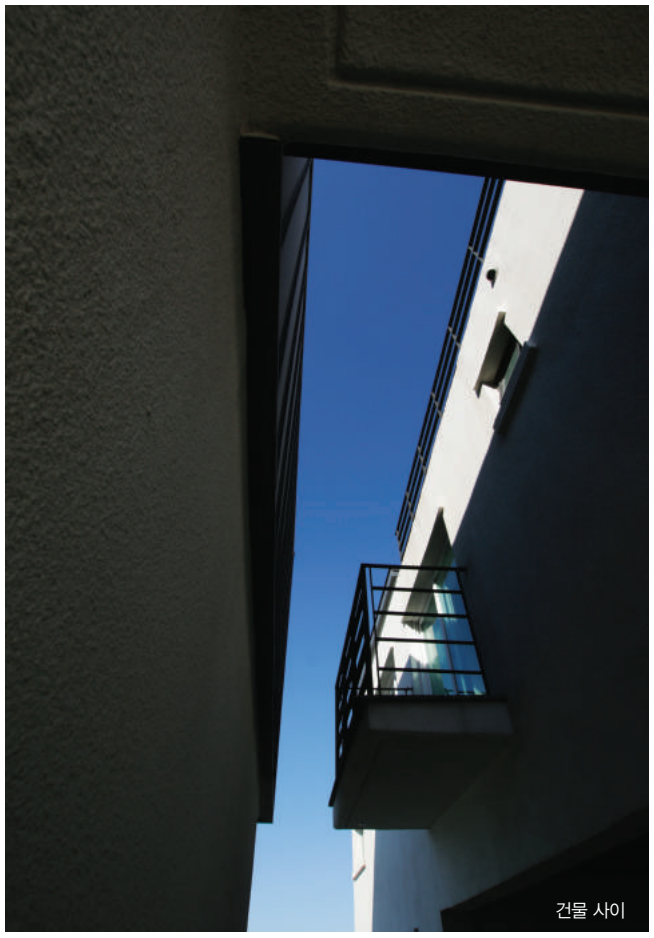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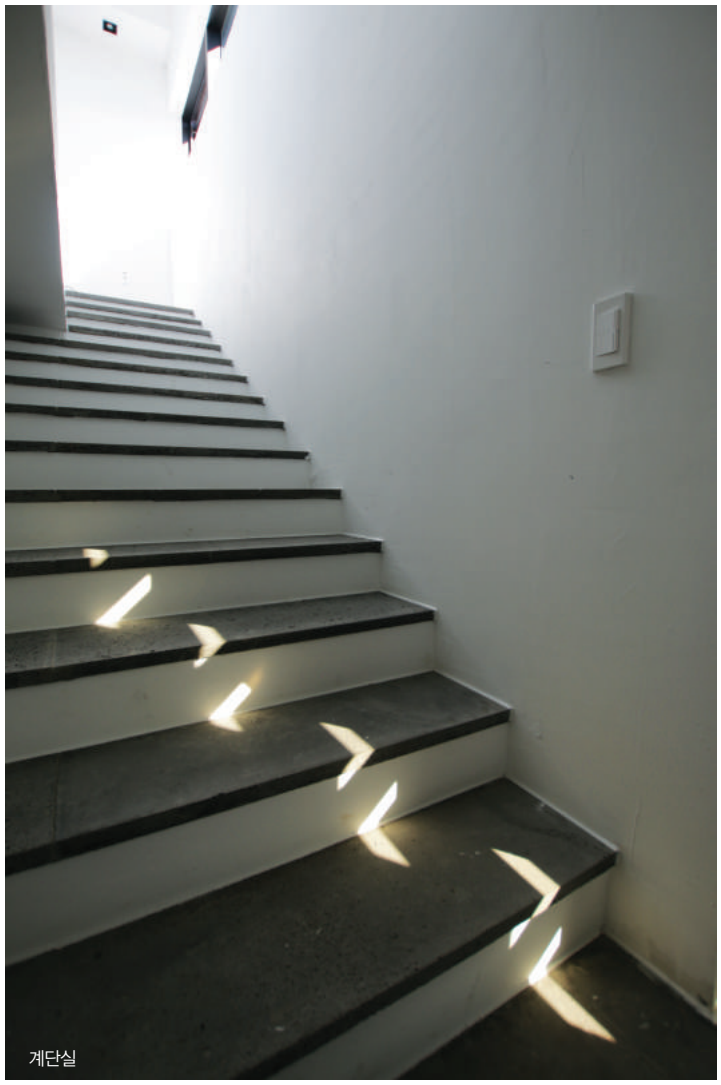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건물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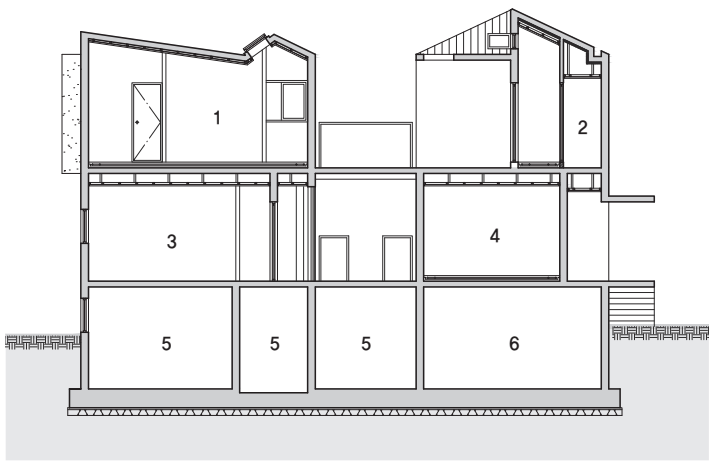
건물 사이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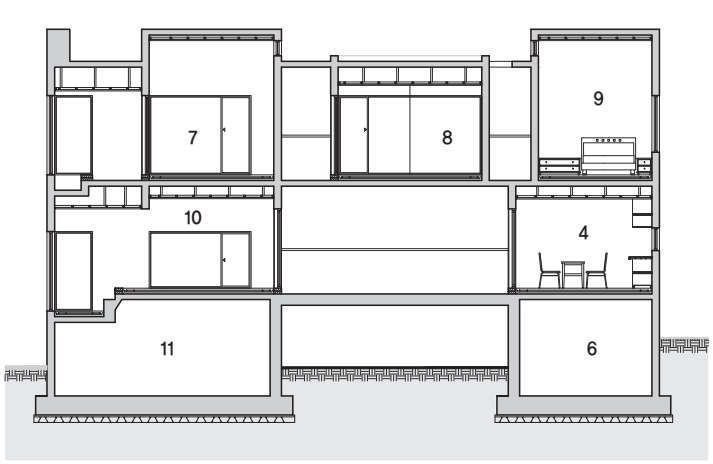

건물 사이


2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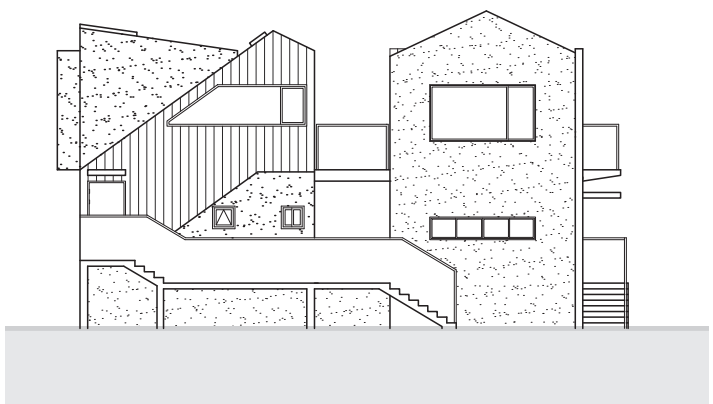
1. 바다락방 2. 연결복도 3. 커피숍 4. 오픈키친 5. 사무실 6. 보일러실 7. 가방 8. 나방 9. 다방 10. 거실 11. 물탱크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0 1 2 5m

측면도



정면도



바다락방 오전 모습



해질녘 바다락방



가방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바다

Homo Ludens's Silva–NXC 센터

Homo Ludens's Silva-NXC Center



설계자 | 양 건_KIRA | 가우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아키피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1998년 제주에 가우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제주대학교 겸임교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제주아트센터, 제주명품사옥, ㈜NXC 센터, 탐라문화광장,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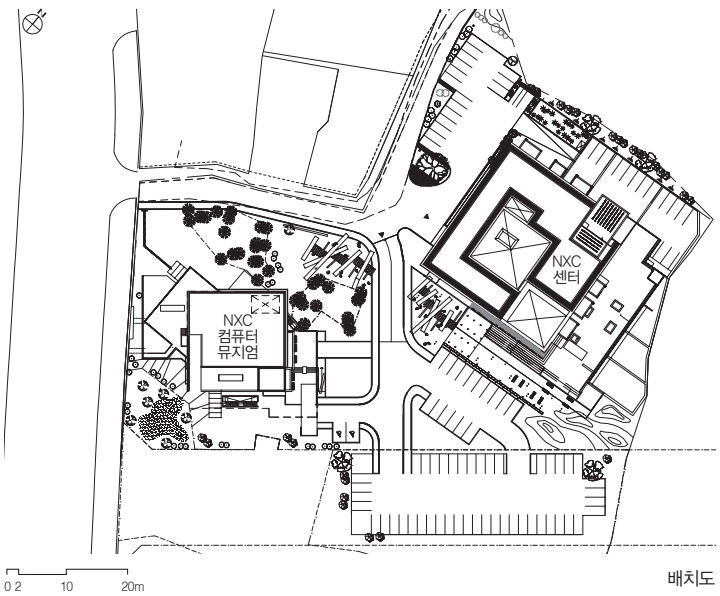
- 설계팀 : 김정일, 김종민, 백승헌, 김정희, 이형주, 이경일, 강덕현, 어윤나, 고현우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센구조
  - 기계설비분야 : 한일 MEC
  - 전기분야 : 대경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진산

건축주 | ㈜NXC
감리자 |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유성건설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86외 7필지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대지면적(Site Area) | 9,799㎡
건축면적(Building Area) | 1,930㎡
연면적(Gross Floor Area) | 8,431.1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
용적률(Floor Area Ratio) | 57.1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 지상 4층
구조 | S.R.C + T.S.C구조
주요마감재 | THK24 멀티코팅유리, TH30 거창석, THK8.0 고밀도 압축 목재패널
설계기간 | 2010. 12 ~ 2011. 06
공사기간 | 2011. 09 ~ 2013. 07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Client | NXC Co.Ltd
Architect | Yang, Gun
Project team | Kim, Jeong-il / Kim, Jong-min / Paek, Seung-heon / Kim, Jeong-hee, Lee, Hyeong-joo / Lee, Kyoung-il / Kang, Deok-hyeon / Eo, Yun-na Ko, Hyeon-woo
General Contractor | Yusung Constructhion Co.Ltd
Location | (7 pilju) 86 Nohyeong-dong, Jeju-si, Jeju-do, Korea
Structure | S.R.C + T.S.C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Sen Engineering
HVAC & Engineer | Han il MEC
Electrical Engineer | Daekyung Engineering
Civil Engineer | Jinsa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THK24 Multicoating Glass, TH30 G603, THK8.0 High-Density Compressed Wood Panel





배치도



전경

NXC 센터는 제주시 신시가지의 끝에 위치하여 제주해송숲의 수려한 주변경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건축물의 애칭인 "Homo Ludens's Silva"는 재미를 추구하는 기업이미지와 해송림의 자연환경에서 도출된 것으로 「놀이하는 신인류의 시원의 숲」을 의미한다. 컴퓨터 게임을 다루는 NEXON의 지주회사로서 NXC와 콜센터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연구동과 컴퓨터 뮤지엄 등의 배치는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며 땅의 시너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IT회사 사옥으로서의 상징성은 건축의 하이테크 이미지에서 비롯되는데, 중력에 반하는 거대한 캔틸레버에서 느껴지는 형태적인 자극과 동시에 경계의 모호함을 연출한다. 더불어 사무공간의 회의실, 휴게실, OA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형태의 구성요소로 활용하는 위트가 발휘되기도 한다.

연구동의 주재료는 멀티코팅 유리를 적용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을 내부공간에 적극적으로 차경하고, 동시에 외부로의 투명성으로 자연과 일체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반면 뮤지엄동은 커튼월의 연구동과 달리 거창석의 솔리드한 입방체로 가로변에 시각적인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는 미니멀한 태도를 취한다.
또한 단순한 입방체의 기단을 이루는 하부 매스는 보행동선의 흐름이나 지형 등에 순응한 자연스러움으로 변화되어, 다양한 층위에서 뮤지엄동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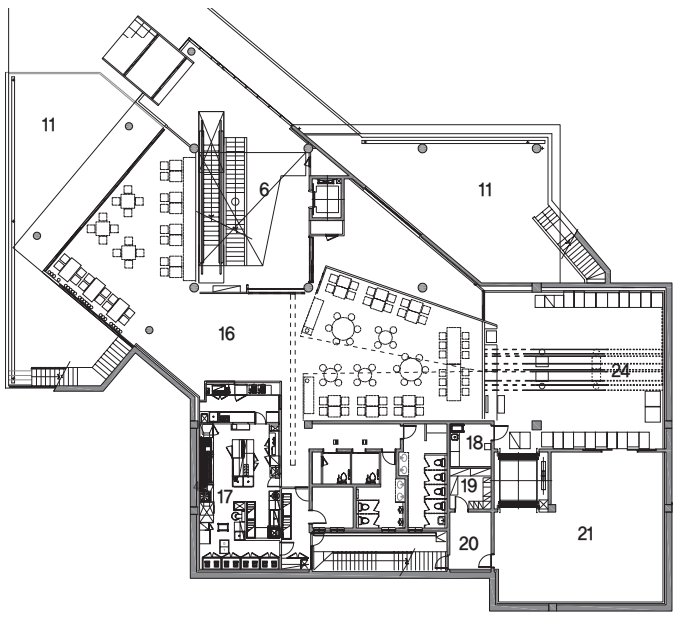
연구동과 일관되게 대지에서 부유하는 효과를 의도하였고 솔리드한 외피와 달리 내부공간은 18m에 달하는 수직으로 통합된 공간을 삽입하여 예기치 않은 공간체험을 기대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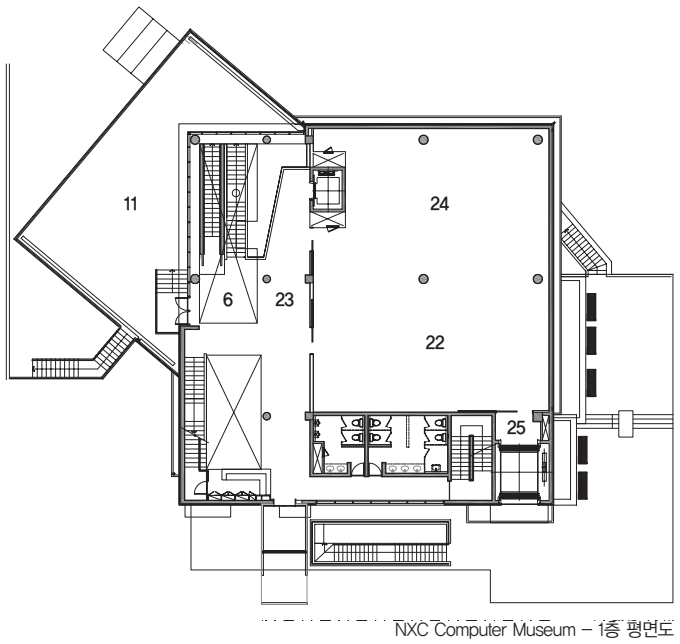

NEXON COMPUTER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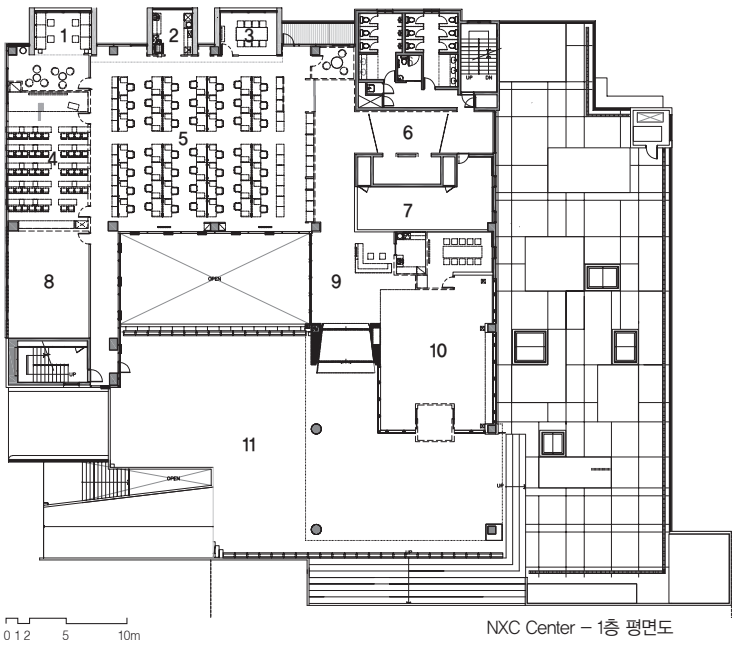
1. 휴게실
2. 탕비실
3. 회의실
4. 전산교육장
5. 개발실
6. 홀
7. 관리실/방제실
8. 모니터링룸
9. 문서보관실
10. 라운지
11. 데크
12. NXC
13. NXCL
14. 대표이사실
15. 옥상정원
16. 레스토랑
17. 주방
18. 수유실
19. 창고
20. 사무실
21. 수장고
22. 전시실
25. 티켓박스
26. 체험전시장
27. 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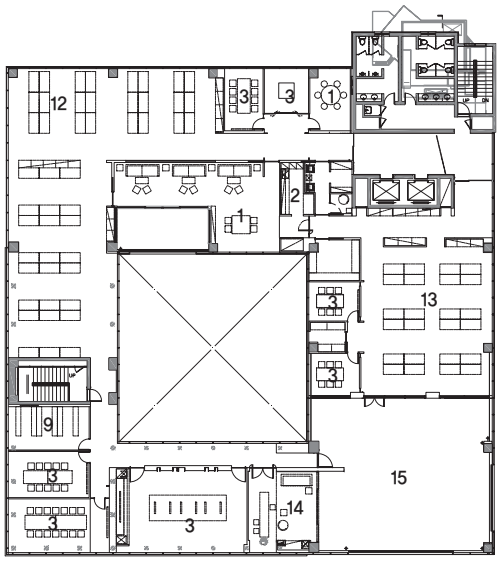
NXC Computer Museum –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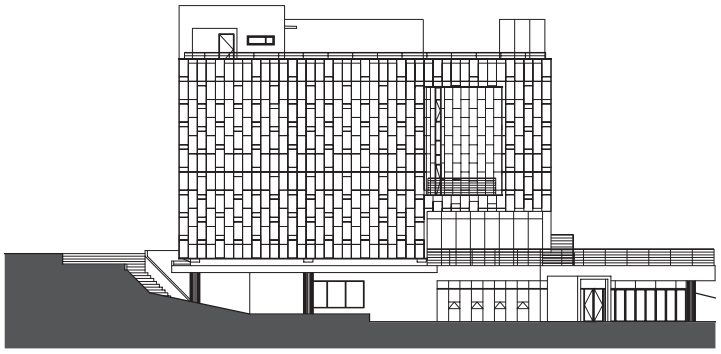
NXC Computer Museum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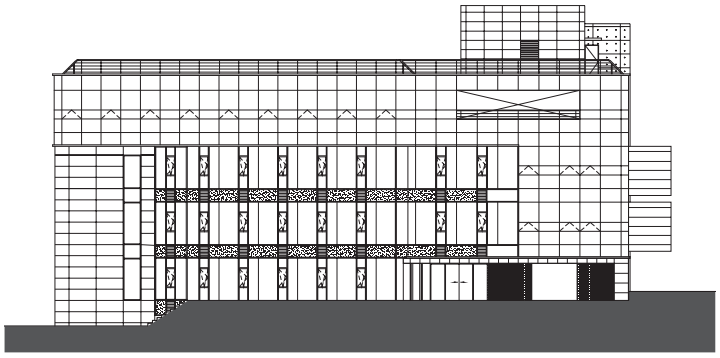
NXC Center – 1층 평면도



NXC Center – 4층 평면도



NXC Computer Museum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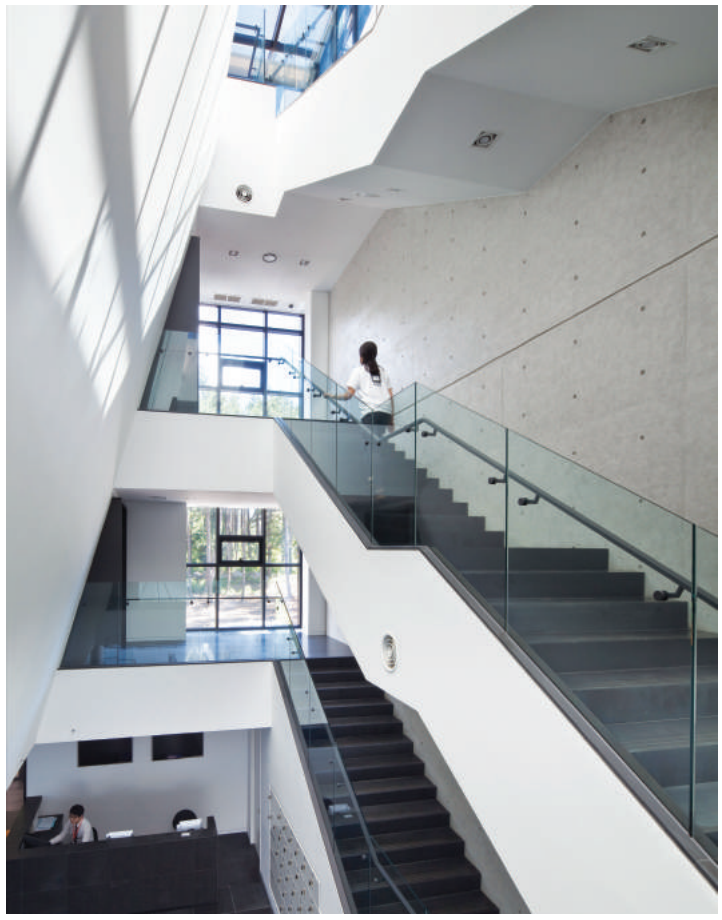
NXC Center –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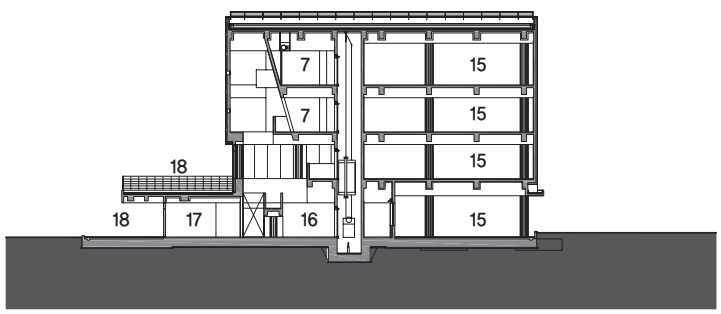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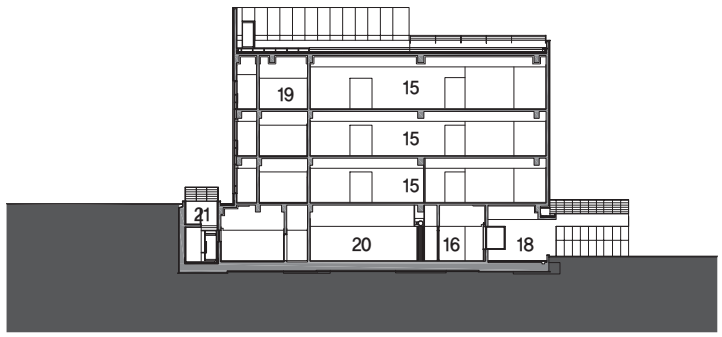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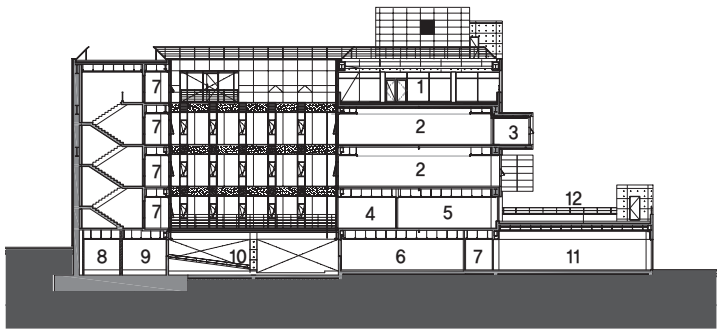
1. 옥상정원 2. 개발실 3. 회의실 4. 방풍실 5. 라운지 6. 전산교육장 7. 복도 8. 휴게실 9. 주차관리실 10. 주차장 11. 구내식당
12. 직원쉼터 13. NXC 14. 발전기실 15. 전시장 16. 홀 17. 주방 18. 데크 19. 사무실 20. 레스토랑 21. 선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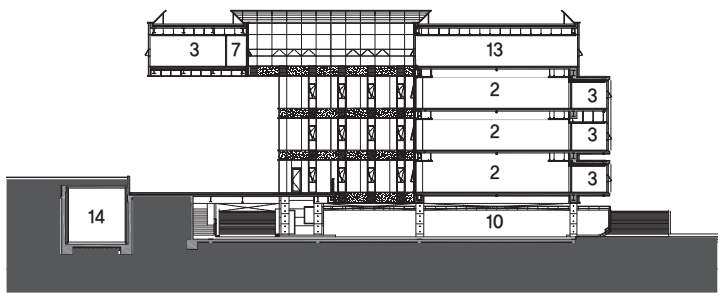
NXC Computer Museum 횡단면도



NXC Computer Museum 종단면도



NXC Center 횡단면도



NXC Center 종단면도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201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신인 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2014한국건축문화大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부문 및 대상

준공건축물부문

ㅇ응모작품 :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 불가)

ㅇ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계획건축물부문

ㅇ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ㅇ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내 · 외국인

응모방법

준공건축물부문

ㅇ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ㅇ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실시

계획건축물부문

ㅇ작품주제 : **"오래된 미래 : 나만의 우리"**

ㅇ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ㅇ1차 작품계획안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ㅇ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작품접수

준공건축물부문

ㅇ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4. 6. 5(목)까지 09:00 ~ 18:00

☞ kaa.kira.or.kr

ㅇ 1차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4. 6. 9(월) ~ 6. 10(화)

09:00 ~ 18:00 **시간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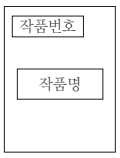
ㅇ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1차 제출내용

• A4규격의 포트폴리오 1부

☞ 포트폴리오는 출품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표지에 작품명, 접수번호 표기

표지 예)



• 작품사진, 기본도면, 작품개요 · 설명 등이 수록된 DVD 1장

☞ DVD에 사진(스케치), 도면, 작품개요, 작품설명 각 4개 폴더를 생성하여 데이터 저장

– 사진(스케치) : 20컷 내외(사진설명을 파일명으로 저장), 기본해상도 300dpi 및 사이즈 220×280mm 이상(JPG파일)

사진파일명 예) 전경.jpg, 1층 로비.jpg, 남측 전경.jpg, 북측 전경.jpg

– 도면 : 배치도, 평 · 입 · 단면도(캐드 파일_방위, 스케일바, 실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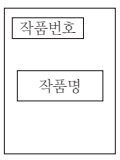
1. 필히 치수와 선 정리 후 제출(실시 도면이 아닌 잡지 게재 형식 도면)
2. 스케일바는 월간 '건축사' 양식에 준함. 실명은 정리된 도면에 실명을 기입하고, 이를 이미지 파일(JPG 혹은 PDF)로 변환하여 필히 캐드 파일과 함께 저장 제출

– 작품개요 : 아래 양식 참조(HWP파일)

– 작품설명 : 한글 및 영문번역본 각 1부(1,400자 이내, HWP파일)

☞ DVD케이스 및 작품개요는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

DVD케이스 예)



작품개요 양식 예)

건축물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용 적 률	117.96%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 수	지하 3층, 지상 3층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
대지면적	3,277㎡	설계담당	홍길동
건축면적	1,960㎡	시 공 사	문화건설
연 면 적	8,740㎡	건 축 주	건축문화청
건 폐 율	59.81%	외국참여사	

• 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대장(갑)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건축물 현황도 포함

• 출품동의서(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출품동의) 1부 – **서식 참조**

※ 공동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계획건축물부문

ㅇ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4. 5. 26(월) ~ 5. 30(금)

☞ kaa.kira.or.kr

ㅇ 1차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4. 6. 3(화) ~ 6. 4(수)

09:00 ~ 18:00 **시간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차 제출내용

• 작품계획안 A2(가로42.0㎝×세로59.4㎝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공모주제 참조

☞ 작품계획안은 전면 우측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계획안 폼보드 · 우드락 부착 불가)

• 작품설명서 1부(A4 1장)

☞ 작품설명서 전면 우측상단에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참가신청 작품명 · 작품계획안 · 작품설명서 제목이 동일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접수번호표 예)
접수번호는 가로30mm, 세로 10mm의 크기로 흑색으로 표기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2차 작품접수 : 2014년 7월 15일(화) 09:00 ~ 18:00 **방문접수**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2차 제출내용

• 패널 A0(가로84.1㎝×세로118.9㎝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계획안에 자유롭게 주제를 적용, 발전시켜 표현
☞ 패널 두께는 1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폼보드 및 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패널 전면 우측상단에 1차와 같은 양식으로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 모형(가로×세로 80㎝×80㎝, 높이 50㎝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 모형접수번호는 접수현장에서 부착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수상발표 및 시상 · 전시

수상작 전시회 / 시상식 : 추후 공지

기타 출품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출품무효 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 제출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 실제 저작권자(설계자와 시공자)와 제출서류 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 위법 · 편법 건축물은 출품무효 처리하며, 응모부문 위반신청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 응모자격이 없는 자가 출품한 작품
※ 출품자는 작품접수 이후 접수취소가 불가하며,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 시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계획건축물부문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발표 후 입상자는 지원한 작품의 모든 디지털자료(패널파일 및 모형사진)를 제출해야 함.
○ 준공건축물부문 입상작에 한해 수상작 전시패널, 모형을 제출해야 함.

시상내용

준공건축물부문

상명 \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계획건축물부문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최우수상(3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우 수 상(8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1인)
○국토교통부장관상, 트로피

공로상
–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주최 /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홍보실 홍보편찬팀 【Tel. 02) 3415–6862~4】**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2014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오래된 미래 : 나만의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일까? 거창한 비전과 전략을 다룬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이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오히려 도시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나 아파트 단지로 대변되는 우리도시의 재개발 방식은 시간을 두고 켜켜이 쌓아올린 인간들의 삶의 모습과 역동성을 단순한 거대계획으로 사라지게 하고 도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근대건축의 대표적 이론가인 지그프리드 기디온(Sigfried Giedion)이 '공간, 시간, 건축'에서 근대의 시간과 공간의 해석을 통해 근대건축을 설명하였듯이 일방향적이고 발전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의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역설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적 공공성을 지닌 도시와 건축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주제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오래된 것들에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흐름, 그들의 네트워크, 삶의 터전, 생활방식에 대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다른 가치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작은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둘러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역사보다는 오늘의 일상에서, 전통의 답습보다는 오래된 것의 재창조에서, 새로운 것의 발명보다는 잊혀져 있는 장소의 발견에서 그 힌트를 찾아야 한다. 라다크의 오래된 지역 공동체에서 세계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보았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의 혜안처럼 도시의 획일적이고 배타적인 개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오래된 도시 속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적 공공성은 전체적인 가치뿐 아니라 각 지역의 장소적 개별적인 가치들이 존중받을 때 생겨난다.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가치가 숨쉬기 위해서는 개발의 논리에서 배제되었던 느린 것, 작은 것, 소외된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도시에서 작은 구역으로, 지역에서 작은 마을로, 군주의 광장에서 주민의 마당으로,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일상의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로 눈을 돌릴 때 잊혀 가던 공공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동 가능한 길, 마당, 마을이 다양해지고 서로 소통할 때 우리의 도시 또는 마을은 건강하고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작지만 소중한 '내가 사라진 우리'을 넘어 다양한 '내가 함께 하는 우리'가 되는 공동체를 상상해 보자.

제언 :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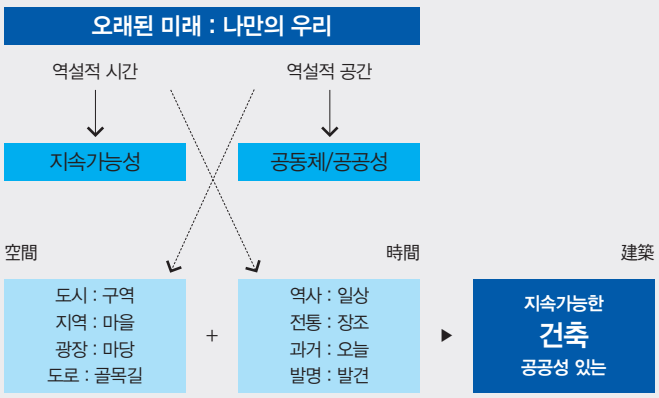
대지는 실제 대지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와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도시와 지역보다는 작은 구역과 마을로 눈을 돌려 지속가능하고 공공성을 지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장소, 도시의 틈새와 같은 숨겨진 공간들, 산업의 변화나 행정조직의 변화에 의해 버려지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지 못해 주저앉은 공간들이 주제를 적용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제안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공유하며, 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과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공간화해 나가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이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안은 건축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 공간으로 확장해 가로나 공원 등 공간적인 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가능하다. 논리적인 분석과 창조적인 제안을 통해 오래되었지만 의미 있는 가치로 가득 찬 지속가능한 미래, 다양한 개별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공성이 살아있는 도시와 건축을 그려보기를 기대한다.

단서들…

지속가능성, 공공성, 구역, 마을, 마당, 골목길, 일상, 창조, 발견…

도시 : 구역	지역 : 마을	광장 : 마당
도로 : 골목길	역사 : 일상	전통 : 창조
과거 : 오늘	발명 : 발견	

도표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글. **정이숙**_ Jeong, Yi-suk
비트윈커뮤니케이션 대표

제주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Looking for the Landmark in Jeju

제주도는 내게 언제나 그리운 이름이다.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올레가 있다. 성산포를 노래한 시인 이생진 덕에 바다 옆에서 술을 마시면 나 대신 바다가 취할 것 같고, 20여년간 제주의 오름을 사진에 담았던 사진가 김영갑 때문에 제주의 낮은 동산인 오름에 오르면 바람이 푸근할 것 같다. 30년쯤 전 처음 본 순간부터 육지와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정취와 맑고 넓은 자연 풍광에 반했던 섬 제주도. 이번에는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찾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주를 찾았다.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이타미 준

제주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세계적인 건축사이자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을 받은 재일동포 이타미 준이 설계한 포도호텔이다. 제주의 오름과 초가집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 송이 포도 같다 하여 포도호텔이라 불리는데, 국내 최초로 세계 100대 골프 코스에 선정된 핀크스 골프클럽의 부대시설이다. 전체 26개의 객실이 저마다 독특한 콘셉트로 꾸며져 있고 이왈종을 비롯한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놓여 있다는데, 객실을 예약하지 않은 방문객의 처지에서는 바람 거센 주차장과 좁다란 로비를 흘긋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포도호텔

그 다음 차례는 역시 이타미 준이 설계한 포도호텔 바로 옆의 방주교회였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본 떠서 만든 방주교회는 150명의 신도가 예배를 드리면서 밖의 물과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었다. 역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내부 관람시간이 막 넘었던 터라 내부를 볼 수 없었다.


방주교회

방주교회 옆에 역시 이타미 준의 작품인 타운하우스 비오토피아와 비오토피아 단지 내에 있는 물, 바람, 돌미술관 역시 개방이 제한되어 있어 보지 못했다.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수 없다. 사람의 온기, 생명을 작품 밑바탕에 두는 일, 그 지역의 전통과 문맥, 에센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건축물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 라고 말한 이타미 준의 40여년 건축 여정에서 정점을 찍는 대표작들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제주에 풍부한 바람과 물, 돌과 동화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제주의 풍토를 반영하고 있을 거장의 손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의 모습이 진심으로 궁금했다.

제주에서 만난 추사와 이중섭 그리고 이왈종

추사 김정희가 1840년 제주도에 유배 왔을 때 살았던 집 근처에 세워진 추사기념관은 추사가 세한도에 그린 집을 본떠 승효상 건축사가 설계했다. 현지인들에게 감자창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는데, 승효상은 이에 대해 '인근의 집들을 압도하지 않고 부질없는 욕망을 절제하고 위대한 예술가 추사에 대한 외경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감자창고로 불려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감자창고 같은 기념관에 들어서는 순간, 번잡한 소음이 전혀 없는 높은 천장의 기념관에 가득한 글씨들이 170여년 전 제주에 유배 온 추사의 체취를 전하고 있었다.


추사기념관


추사의 세한도

추사기념관을 나와 저지리에 있는 제주 현대미술관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이중섭미술관과 이왈종미술관,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모두 주변의 길이나 마을과 제대로 어우러져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보기 좋았다. 처음 방문 이후 30여년 동안 대여섯 차례 제주도에 갔지만 한 번도 가볼 엄두를 내지 않던 곳이 미술관이었다. 이중섭미술관이 세워진 때가 2002년이고 기적의 도서관은 2004년, 제주 현대미술관 2007년, 조선시대 백자 찻잔 모양의 이왈종미술관은 작년에 세워졌으니 최근 10여년 사이에 세워진 건축물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산이나 바다 폭포나 동굴 등 자연경관 위주로 관광을 했는데, 여러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제주의 볼거리가 풍성해진 느낌이 들었다.


이중섭미술관


이왈종미술관

제주에 가볼 만한 건축물이 많아졌기 때문인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속 사업으로 7개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 제주 건축의 우수성과 관광자원화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건축사회 등 건축 3단체와 4개 대학으로부터 대상건축물을 추천 받아 7동의 건축물을 2013년 11월 21일 최종 확정했다.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제주현대미술관, 다음 본사, 포도호텔, 해심헌이 선정된 현대건축물이다.

성산 일출봉을 액자 안에 담아 보여준 안도 다다오의 위로

발길을 섭지코지로 돌렸다.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 그러나 나의 목적지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사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글라스하우스와 지니어스 로사이, 스위스 출신의 건축사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아고라였다. 글라스 하우스는 정동향을 향해 손을 벌린 기하학적 형태로 일출을 조망하는 해변에 세워진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에 앉으면 시야를 가리는 것 하나 없이 트인 바다를 커피향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건물 앞에 지그재그로 길을 내며 꾸며진 정원도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글라스 하우스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는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한다. 돌의 정원과 건물 안에 들어 가서 보는 성상 일출봉의 조망, 세 점의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의 돌과 물을 재현한 정원과 건물 입구를 걸어 들어가 갑자기 마주친 정적과 어둠, 높은 콘크리트 벽은 문명의 소음을 차단한 명상의 공간 같았다.


지니어스 로사이 복도의 벽면에 뚫어 놓은 긴 직사각형의 프레임 밖으로 바라본 성산 일출봉


아고라

아고라는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 회원을 위한 휘트니스 클럽이다. 피라미드 위를 잘라 날카로움을 없앴고 피라미드의 정면은 바다를 향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옥외수영장도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글라스 하우스와 지니어스 로사이 – 지니어스 로사이는 입장료가 4,000원이다.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다 – 아고라의 모습이, 꽁꽁 숨겨 놓아 볼 수 없었던 이타미 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었다. 이생진의 시가 저 절로 떠올랐다.

성산포에서는 설교는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도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저 세상에 가서도 바다에 가자
바다가 없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오자

– 이생진, 그리운 바다 성산포 3 일부 –

…그리고 돌문화공원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생태공원인 돌문화공원이다. '돌과 흙, 나무, 쇠, 물 그리고 제주 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을 주 테마로 3,269,731㎡(100만평)의 드넓은 대자연의 대지 위에 총 1,855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 조성되는 공원으로, 제주돌문화의 면면과 제주민의 생활상 등을 직접 접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본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허투루 없애거나 옮기지 않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는 돌문화공원을 보는 순간 바로 여기가 제주의 랜트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과 자연의 어울림이 조화롭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규모가 놀라웠다. 공원은 크게 제주돌박물관, 돌문화전시관, 야외전시장, 제주전통초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듯한 역사 · 문화공원인데 탐라목석원이 기증한 자료 14,441점을 근간으로 갖가지 돌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돌하르방

3,000평 규모의 제주돌박물관은 이번 제주 여행에서 본 어떤 건축물보다 더 강한 느낌을 주었다.깊이 8m로 패여 있던 낮은 구릉지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는 전시관, 옥상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였다. 건축물이 지상으로 돌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주변의 빼어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건물 외벽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 현무암 골재를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또한 내 · 외부 바닥 마감재도 제주산 화산회토를 이용하여 고유하게 개발한 재료를 써서 향토색이 물씬 묻어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의 랜드마크는 여전히 한라산?

떠나기 전날, 제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후 다시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와 선배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제주의 랜드마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라산이라는 대답이 첫 번째였고, 랜드마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제주 칼호텔이 그나마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다 얘기했지만, 칼호텔은 타지인인 나에게는 제주에 대한 감흥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건물이었다. 62층으로 예정된 신제주 쌍둥이 빌딩이 완공되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랜드마크(land mark)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이다. 두산백과의 좀 더 친절한 해석을 찾아 보면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데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事物)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이라야 하는데, N서울타워나 역사성이 있는 서울 숭례문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파리'하면 에펠탑이 떠오르고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고 '시드니'하면 오페라하우스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도시나 지역의 이름을 들었을 때 동시에 연상되는 것이 랜드마크이다. 그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아는 장소나 건물 또는 상징물이 바로 랜드마크다.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보면 내가 이번 여행에서 찾아본 제주의 건축물들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축물들이긴 하지만 랜드마크라 부르기엔 2% 부족한 점이 있다. 우선 제주에 사는 원주민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건축물들이 많았다. 여행객인 경우에는 더욱 생소한 건축물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는 여전히 한라산이고 성산 일출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행의 끄트머리에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고대에는 높은 산이나 큰 나무, 바위 같은 자연물이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후에는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성당이나 탑과 같은 건축물이 랜드마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나라들은 서로 높은 건축물을 지어 랜드마크로 삼으려는 높이의 경쟁을 계속해왔다. 초고층 건물이 시대의 첨단기술의 증거이자 국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미 고층건물이 즐비한 현대 도시에서 21세기형 랜드마크는 여백의 공간인 길과 땅에서 시민을 위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최근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랜드마크;도시들 경쟁하다, 효형출판, 2014) 서울광장이나 복원된 청계천광장처럼 개발의지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공간이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 갈 랜드마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미 제주도는 훌륭한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다. 2007년에 개통되고 2011년에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한 올레길이 바로 그것이다. 방문 수치로 랜드마크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랜드마크 주변에서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공유의 장을 체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송하엽 교수는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올레길은 많은 이들에게 제주, 하면 찾아가고 싶은 랜드마크임에 틀림없다.

에필로그

굳이 랜드마크라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이번 제주여행에서 만났던 건축물들은 제주의 자연만큼이나 독특하고 아름다웠다. 제주의 자연 속에 조화롭게 어울려서 서로를 더 빛내주는 모습으로 서있었다. 앞으로 나는 제주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라산과 올레길을 떠올림과 동시에 오름을 닮은 포도호텔과 지니어스 로사이와 돌문화공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서 다음 번 제주행을 설레며 기다릴지도 모른다. 다음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더 많이 머물고 생각하고 걸어야겠다. 그리고 남들은 몰라도 내게만 소중한 랜드마크를 하나쯤 정해두고 와도 좋겠다.

패션디자이너의 열정과 창조적인 마인드

The Passion and Creative Mind of a Fashion Designer



패션의 탄생 글 · 그림 강민지 | 루비박스 출판사

얼마 전 건축 관련 자료를 조사하러 서점에 들렀는데 우연히 눈에 띄는 책이 보여 구입하여 읽어 보았다. 우선 표지의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어서인데 아쉽게도 책이 비닐로 포장되어서 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구매 후 책을 살펴보니 안의 내용이 만화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강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책을 단순한 만화로 보면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으로 지면이 채워져 있지만 글의 양도 웬만한 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참고로 이 책은 2011년에 출판되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리뷰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누구나 들어 보았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루이뷔통, 버버리, 구찌, 페라가모, 샤넬 등등

무려 26명의 명품 디자이너의 열정과 인간적 고뇌, 창조적인 영감과 그들이 사랑한 뮤즈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1장부터 읽다보면 세계패션사에 대한 흐름도 알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배우는 서양 근대건축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물론 동시대에 탄생한 패션과 건축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알고 있는, 3초에 한 번씩 볼 수 있다 하여 '3초백'으로 유명한 루이뷔통의 '모노그램 백', 마를린먼로, 오드리헵번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사랑했던 페라가모 구두, 영원한 스테디셀러 향수 '샤넬 넘버5', 몇 년이나 기다려야 살 수 있다는 에르메스의 '버킨 백'… 등등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명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들의 열정과 창조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건축분야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또한 이 책에서 나오는 명품 디자이너들은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온 제품을 만들었다. 세계 최초로 사각형 여행 트렁크를 만들어 낸 루이뷔통, 세계 최초로 방수원단 개버딘을 발명하여 장교들의 트렌치 코트를 만든 버버리, 여성에게 스커트 대신 바지 정장을 입혀 혁명을 일으킨 이브생로랑, 나일론 소재로 된 가방으로 패션계를 강타한 프라다 등 이들은 과거의 불편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그 중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브생로랑은 몬드리안의 구성 작품으로 몬드리안룩 의상은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명품 브랜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는 것도 즐거운 경험일 것이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지면을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천천히 읽지 않고 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다. 글 | **김창길**

클림트의 연애편지를 읽다 열 번째 이야기

글. **정이숙_** Jeong, Yi-suk
비트윈커뮤니케이션 대표

"꽃이 없어 꽃을 그려 드립니다"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무심했던 클림트의 연애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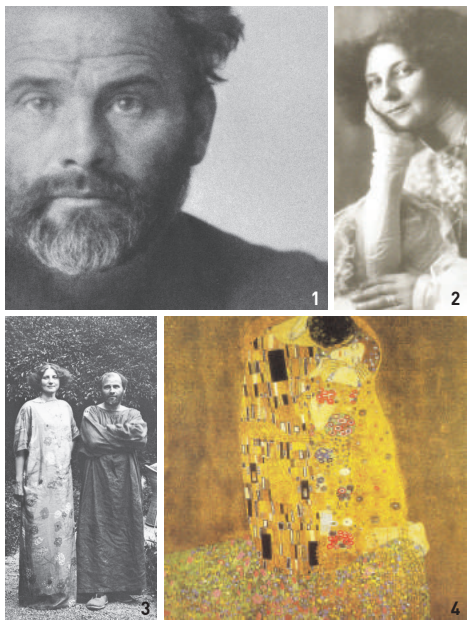
I Have no Flower, So I Paint Flowers.

어제는 비가 왔어.
오후 내내 그리고
밤까지. 지금은 개었고
맑은 아침.

짧은 시처럼 보이는 이 글은 『키스』로 유명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가 그의 오랜 연인이자 동반자인 에밀리 플뢰게(Emilie Flöge)에게 보낸 엽서의 내용입니다. 2012년 2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레오폴드박물관(Leopold Museum)에서는 클림트의 150번째 생일에 즈음하여 『클림트 개인적으로』(KLIMT PERSÖNLICH)라는 이름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클림트가 자신의 뮤즈 에밀리에게 보낸 엽서 400여 장이 전시되어 거장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흐리고 차가운
어제는 아주 늦게
집에 왔어.
텐 핀 볼링.
그 후엔 호텔.
브리스톨(Bristol).
같은 그룹이 아침 네 시까지 – 정말
바보같아! 오늘은 조금
낭비.

21세기 핸드폰 문자를 보는 것 같은 짧은 글에서 직접적인 애정표현을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클림트와 에밀리의 관계를 10년 동안 연구한 폴 심슨(Paul H. Simpson)이라는 작가에 따르면 클림트의 서신은 600여 통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에밀리에게 보낸 것이지만 러브레터라고 볼 수 있는 편지는 클림트의 아들 둘을 나은 모델 마리아 침머만(Maria Zimmermann)에게 보낸 편지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슨은 클림트와 에밀리의 관계를 가족 간의 일(A Family Affair)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와 클림트는 각각 17살, 29살 때 미술 선생님과 제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에밀리의 언니가 클림트의 동생과 결혼하면서 둘의 관계는 사돈이 되고, 클림트가 죽을 때까지 27년간 남다른 관계를 이어갑니다. 둘의 관계가 연인이었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연인도 만들기 힘든 특별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키스』의 여자 모델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에밀리라는 의견이 정설입니다.*** 클림트는 에밀리와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고, 그녀에게 수많은 엽서를 쓰고,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브로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클림트가 부른 이름도 바로 에밀리였고, 그녀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클림트가 죽은 뒤 그의 유산은 두 여동생과 에밀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클림트가 죽었을 때 그가



1.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
2. 에밀리 플뢰게(Emilie Flöge, 1874~1952)
3. 클림트와 에밀리
4. 키스(1907~1908 캔버스에 유채 180 x 180cm 오스트리아 미술관)



5. 1908년 7월 7일 에밀리에게 보낸 엽서

보낸 편지와 엽서를 다수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불타버린 편지 속에 클림트의 사랑고백이 들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클림트는 직접 꽃을 그려 만든 엽서(그림 5)를 에밀리에게 보내며 '꽃이 없어 꽃을 그려 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떤 사랑의 표현보다 로맨틱하고 달콤한 이런 엽서를 보면 에밀리에 대한 클림트의 마음이 짐작 갑니다.

저명인사에서부터 모델, 가정부에 이르기까지 클림트의 여성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독신으로 엄마와 미혼인 두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주로 임신복처럼 생긴 긴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안에 아무 속옷도 입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 모델들은 거의 알몸으로 아틀리에에 대기하다가 그가 부르면 포즈를 취하곤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14명이나 되는 사생아 문제로 친자 확인소송에 시달렸고 죽은 후 4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밀리는 클림트를 너무나 잘 알았고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평생 곁을 지키는 친구가 되는 쪽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상실을 열어 성공하여 유능한 빈의 패션디자이너로 명성을 쌓았지만, 에밀리는 비밀스러운 여인이었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클림트가 죽은 뒤에도 34년을 더 살았지만 평생 독신이었고, 클림트의 많은 유산들의 충실한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952년 77세로 죽을 때까지 그의 유산을 소중하게 지킨 뒤 플뢰게 가족묘가 아닌 클림트 옆에 묻혔습니다.



6. 17살의 에밀리 플뢰게
(1891, 판지에 파스텔 67 x 41.5cm 개인소장)



7.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1893, 판지에 유채 41 x 24cm 빈 알베르티나 미술관)



8.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1902, 캔버스에 유채 181 x 84cm 빈 역사박물관)



9. 클림트가 에밀리에게 보낸 엽서 중 하나
(TIVOLI 토요일 1909년 2월 27일 0도 근처, 약간 맑음, 숙취, 회의, 그리고(카바레) 박쥐–3시에 귀가, 불행하게도, 잘 못 잠. 안부 전하며, 구스)

클림트는 에밀리의 초상화를 세 번 그렸습니다. 처음 그린 초상화는 1891년 에밀리가 17살 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19살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1902년 28세인 에밀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와 에밀리의 엄마는 이 마지막 초상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클림트는 그 초상화를 어마어마한 값을 받고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1908년 7월 6일 클림트는 에밀리의 초상화가 팔린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당신이 팔려나갈 거라오. 아니 압수된다고 해야 하나.
어제 당신 어머니가 나를 꾸짖으시더군.****

하루 일과의 보고서처럼 보이는 엽서(그림 9)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보다는 은근한 우정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에밀리와 클림트. 덜 사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인지 에밀리의 초상화를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클림트가 에밀리에게 했던 것처럼 가벼운 안부라도 묻고 싶어집니다.

---

* 전시회 설명과 엽서 내용은 비엔나 리뷰(The Vienna Review) 3월 10일자 인터넷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 비엔나 리뷰 2012년 9월 12일자 인터넷 기사.
*** 클림트 '키스' 2007년 3월 1일 파이낸셜 뉴스
**** 클림트, 황금빛 유혹 122p(신성림 지음 | 다빈치 | 2009)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상가개발비

Development Cost for the Commercial Arcades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신축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원의 전용 및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금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전용이나 반환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상가개발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 상가개발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그런데 신축상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분양자에게는 상가홍보, 상가 공통의 인테리어 설치 등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라면 판례는 이를 위임약정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참조). 즉 이러한 상가개발비 약정은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상가 홍보, 인테리어 시공 등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보수를 상가개발비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분양자는 지급받은 상가개발비 금액 한도 내에서 상가 활성화 사무를 처리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가개발비의 전용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681조는 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682조) 수임인인 분양자는 결국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가개발비를 관리하고 상가활성화 사무를 위하여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가개발비 명목의 금원은 그 용도를 전용하여 원래 분양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상가개발비 약정이 분양계약에 편입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상가개발비 약정 역시 함께 종료하게 되는데, 상가개발비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가개발비 반환의무의 발생이나 그 내용 등은 분양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가개발비 반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그러한 약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약관의 형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등),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상가개발비 약정이 종료된 경우에 상가개발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에 해당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가개발비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무효이거나 그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상가개발비 약정의 성격이 위임약정인 경우, 분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분양자는 민법 제686조에 따른 보수와 민법 제688조에 따른 위임사무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종료 당시까지 분양자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쌍방 당사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상가개발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처리한 사무의 정도, 사용된 사무처리 비용 등은 공제를 주장하는 분양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글. **김영재**_ Kim, Young-jae / 건축학 박사
김득수_ Kim, Deuk-soo /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그 도시적 의미(2/3)

Background in Situating the Ho-Seo Bank(HQ), and Its Urban Meaning

4. 호서은행의 입지배경

4.1. 경제적 의미 : 산업과 상업의 거점

4.1.1. 조선후기 장시의 발전

예산이 충청남도에서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인천과 서울으로 가는 해로의 출발점인 선장(仙掌)포구가 농산물의 집산지였기 때문이다. 예산도 철도부설이전에는 주변농산지에서 생산된 미곡을 모아 선장을 거쳐 인천, 서울, 군산 등으로 운반시키는 미곡수송 및 거래의 중간지점이었다. 예산은 자연스럽게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되었고 농촌지주와 보부상과 같은 거상들이 형성되었다(그림2).

예산이 중국인 및 일본인 상인의 활동거점이었다는 정황이 「忠南産業誌」에 기술되었다. "예산은 본도에서 연안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로서 불과 4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산항의 요항 선장을 끼고 있다. 예산은 경성, 인천방면과의 물자 중계시장과 공주와 청양이 있는 상업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한국인 거상 이외에도 중국인상인[1]과 일본인거주자가 많았다. 특히, 이곳의 중국인상인은 대부분 일청전역도피자(日淸戰役逃避者)였는데 이들의 세력이 신장되면서 예산거주 중국인 중에는 수 십 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적지 않았다"[2](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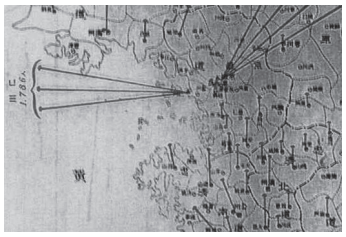


그림 1. 支那人分布圖(막대길이 : 중국인수)
朝鮮部落調查報告, 1924.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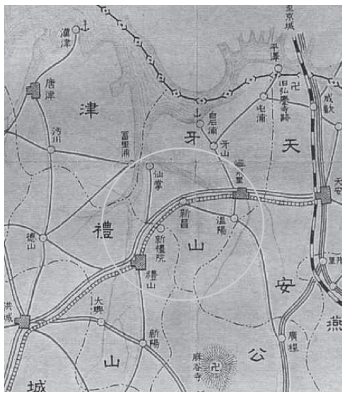


그림 2. 忠淸南道交通圖 및 産業圖,
1921. 11. 3.

이와 같이 정치적 변화로 인해 내포지방에 외국인의 유입과의 그들과의 교류확대로 말미암아 합리적 시장운영을 위해서 은행 중심의 화폐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점이전 1909년에 발간된 「韓國各府郡市場商況調查書」에서도 당시 도청소재지였던 공주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예산의 연간취인액(取引額)이 공주 260,000원과 비교해서 310,000원으로 큰 차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3].

한편, 예산과 같이 내포지방권에 속해 있는 서천(60,000), 보령(73,200), 태안(19,346), 서산(188,000), 당진(70,400), 해미(17,000), 홍주(60,000), 덕산(15,140), 신창(25,300) 등보다도 높았다.

오랫동안 행정중심지였던 홍주(홍성)가 60,000원에 불과한 점을 보면, 대한제국 말기 예산의 경제력이 충청권에서 높은 위치에

1) 예산은 "농산물 집산지"로서 화교들의 상업활동에 일대 거점이 되는 요인이 되었다. 청일전쟁 동안 인천이 일본군의 병참본부가 서게 되면서 在留華僑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상업활동거점인 예산으로 이거하였다. 田中市之助 1921, 「忠南産業誌」, 大田實業協會, 大田.

2) 예산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화교와 일본인 상인의 활동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Ibid.

3) 심지어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던 공주는 기본단위 면(面)수 21개, 당시 인구는 100,578명이나 되는 반면, 예산의 경우에 12개면에 19,895명으로 협소한 면적에 적은 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度支部 1909, 「韓國各府郡市場商況調查書」.

4) 홍주목권은 보령, 오천, 결성, 해미, 태안, 서산, 당진, 면천, 덕산, 홍주, 대흥, 예산, 신창, 아산, 온양, 전의, 목천, 천안, 직산, 평택군을 포함하며, 공주목권은 공주, 연기, 회덕, 진잠, 연산, 노성, 은진, 석성, 임천, 한산, 서천, 비인, 남포, 홍산, 부여, 정산, 청양군이 속해 있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것은 또한 강점이전부터 예산지역에 토착상인과 지주들이 장시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호서은행(1913년 5월 21일)의 설립에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표 1〉 忠淸南道各地方市場의 年間取引(去來)額 단위 : 원

지역	거래액	지역	거래액	지역	거래액	지역	거래액	지역	거래액
公州	260,000	泰安	19,346	瀛陽	36,000	瑞山	188,000	舒川	60,000
藍浦	110,654	韓山	237,600	洪州	60,000	連山	48,517	丐川	136,400
大興	13,600	唐津	70,400	禮山	310,000	德山	15,140	牙山	54,000
定山	14,900	林川	36,000	海美	17,000	全義	56,600	扶餘	133,200
保寧	73,200	木川	21,480	新昌	25,300	穩山	73,200	鎭岑	14,000
結城	146,160	庇仁	82,800	鴻山	72,000	靑陽	15,840		

출처 : 韓國各府郡市場商況調査書

또한, 1913년 호서은행설립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朝鮮總督府忠淸南道統計年報」(1913년 현황, 1915년 발행)에 따르면, 1913년의 충남지방에는 86개의 장시가 있었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43개 장시가 공주목권에 나머지가 홍주목권에 속했다[4]. 이중에 연간거래액이 10만엔 이상인 장시는 표3에서 보듯이 19개(표에는 직산입장장(124,423) 제외함)였다.

홍주목권역에 속하는 것은 예산, 결성, 천안, 보령, 직산, 서산, 홍주, 서천, 덕산 등 9개였고, 공주목역에 속하는 것은 강경을 포함한 나머지 10개장이었다. 표2과 같이 예산읍내장(458,304천엔)은 은진강경장(584,650천엔)과 더불어 가장 큰 장시에 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 주요거대장시 중에 하나인 회덕대전장, 결성광천장, 천안읍내장 등을 압도했다. 즉, 예산과 강경이 거래액이 높다는 것은 시장유동성에 맞춰서 충분한 거대자금의 확보가 용이했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1909년과 1913년의 시장자본의 유동성과 관련된 "장시별 거래액" 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은 자금의 유동성이 압도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다.

〈표 2〉 충남의 주요 장시의 연간거래액(1913년 현재) 단위 : 천엔

장시명	거래액	장시명	거래액	장시명	거래액
공주읍내장	166,692	부여은신장	234,628	회덕대전장	396,615
예산읍내장	458,304	보령대천장	154,150	연산인천장	124,026
온양읍내장	115,510	결성광천장	317,970	서천읍내장	109,200
홍주읍내장	111,342	덕산대천장	108,910	한산신장장	190,442
천안읍내장	314,339	서산읍내장	117,911	은진논산장	285,835
홍산읍내장	184,105	연기조치원장	197,471	은진강경장	584,650

출처 : 「朝鮮總督府忠淸南道統計年報」

내포지방인 예산, 결성, 천안, 보령, 직산, 서산, 홍주, 서천, 덕산 중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원활했던 지역이 예산지역이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부를 축적해서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토착 거상 및 지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5](표3 참조).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토착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은행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내포지역에 경남철도가 1922년 6월에 부설되기 10년전에 예산은 이미 농산물의 집산지이자 금융경제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6].

4.1.2. 조선후기 호서은행설립주체의 형성

당시 은행설립은 관료계인사와 대상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대자본을 필요로 했고 부의 주요형태가 토지와 실물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설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거상과 지주였다.

1922년 호서은행 본점건립 당시 4개 지점을 포함한 50명의 행원들도 모두 순수토착한인들이었다[7].

호서은행의 설립자구성도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토착지주로서, 예산에 거주지를 둔 상공업지주인 유진상(俞鎭相)과 유진태(俞鎭泰)형제와 성낙규(成樂奎, 후에 충남제사공장운영)과 성낙헌(成樂憲)형제와 최규석(崔圭錫), 태안(泰安)의 이기승(李基升), 미곡거상인 김진섭 등이 참여했다[8].

---

5) 安齊霞堂 1932, 「忠淸南道發展史」, 湖南日報社, 大田, pp.296–300.

6) 이항복 2000, "개화기 가장 빠른 내포의 금융업 호서은행의 경제자생적 의지", 「內浦文化情報(季刊)」, 예산문화원, p.126.

7) 靑友生 1922, "湖西의 一日, 湖西銀行의 新築落成宴을 機로 하야", 「開闢」, 제30호, p.88.

8) 유진상은 설립초기에는 최대 주주로서 1922년까지 은행장을 역임했고, 1924년까지 이사와 감사직에 있었다. 호서은행의 설립을 주도했던 유씨, 성씨, 김씨 중에서 1923년 이후에 유진상과 유진태는 주식을 모두 청산했으며, 초기에 참여했던 경성거상들도 이탈했다. 東亞經濟時報社 1921,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京城, pp.14–15. 하지만 김진섭, 성낙헌, 성낙규, 최규석 등의 기존 주주들은 소유주식을 늘려서 비중이 높아진다. 1923년 이후에 이들이 은행장과 이사직을 분점했다. 東亞經濟時報社, op. cit. pp.11–12 ; 湖西銀行 1913, 「第壹期營業報告書」 ; 東亞經濟時報社編 1923,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표 3〉 충청남도내 조선인의 대지주(100정도 이상의 소유자, 1930년)

성명	창립년	사무소소재지	활동지역	주식수	답	전	기타	합계
김성권	1918	예산 예산면(禮山里)	홍성,예산	710	187	22	1	210
성낙헌	1904	예산 예산면(禮山里)	홍성,예산,아산	1,304	111	17	1	129
성낙규	1897	예산 예산면(禮山里)	예산,아산	2,952	98	9	2	109
정두화	1897	예산 예산면(禮山里)	예산,아산	2,134	125	26	3	154
백충기	1892	예산 덕산면(外羅里)	예산,아산	505	131	8	5	144
장석구	1887	예산 오가면(月谷里)	홍성,예산	2,140	191	21	1	213
김동익	1874	서산 고북면(加口里)	서산	30	108	74	91	273
백남복	1907	서산 태안면(南川里)	서산	40	318	32	91	467
김규항	1902	서산 태안면(南川里)	서산	10	93	10	103	205
이성진	1902	서산 태안면(南川里)	홍성,서산	50	73	37	10	120
이기승	1899	서산 태안면(南川里)	서산	100	137	98	1,061	1,296
인근식	1897	당진 석문면(三花里)	서산,당진	100	174	26	51	251
박경래	1906	당진 합덕면	예산,당진	100	99	11	12	122
이석구	1900	서울 관훈동	서천,보령,청양,홍성,예산,아산,천안	100	940	71	8	1,019
김윤환	1900	공주 공주읍(常盤町)	보령	50	264	2	10	276
김갑순	1900	공주 공주읍(旭町)	공주,대전	50	1,267	254	1,850	3,371
김영근	1907	연기 조치원읍	연기	1,000	54	37	24	115

忠淸南道發展史/忠淸南道統計年報 참고

1925년 하반기 「第貳拾五期營業報告書」에 따르면, 총 주수는 40,000주이며, 총 주주는 총 27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한국인 주주는 255명이며, 주수는 39,293주였다. 반면에 일본인은 19명에 707주에 불과했다[9].

그 중에서 김성권(710주), 성낙헌(1,304주), 성낙규(2,952주), 정두화(2,134주), 백충기(505주), 장석구(2,140주) 등 예산지역의 토착지주들의 주식점유비율이 23%를 차지했다. 이것은 서산, 당진, 공주, 연기지역 등에 거점을 둔 이기승(100주), 박경래(100주), 김영근(1,000주), 김갑순(50주,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소유한 지주) 등의 비예산권-토착지주의 주식수를 압도하고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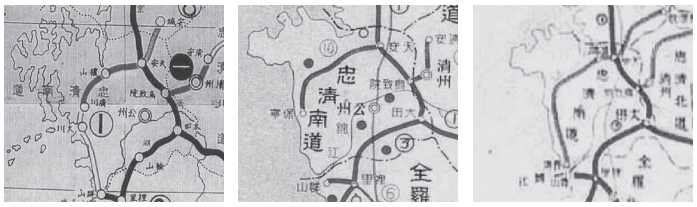
이들 모두(김성권 제외)는 1910년 이전(즉, 조선후기-대한제국시기)에 부를 축적한 한인토착지주들이었다는 점에서 호서은행의 설립은 강점기 동안 일제에 의해 형성된 자본과는 무관했다(표3). 또한, 예산지역에 활동했던 토착지주들의 주식점유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호서은행의 설립과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서 호서은행본점이 예산에 설립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장시와 장시의 주체의 형성을 통해 호서은행의 설립은 내포지방의 금융공백상태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남제사, 백제상사, 홍성상사 등의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표1과 표2에서 보듯이 조선후기에 예산을 중심으로 한 홍주목권은 공주목권역의 지방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업생산에서는 대등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금융관련시설의 설립에는 소극적이었다. 앞서 다룬 「朝鮮總督府忠淸南道統計年報」에 따르면[11] 1913년말 충남지역의 은행은 공주, 대전, 강경, 논산에 본점과 지점을 둔 한호농공은행, 강경 한일은행, 대전 한성은행, 예산 호서은행 등이 있었다. 호서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이 공주목권(공주, 대전, 강경, 논산 등)에만 존재했었다.

결과적으로 호서은행의 설립은 홍주목 경제권의 금융상의 공백을 채웠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929년까지 6개 지점 및 출장소도 홍주목 관할지역과 일치한다. 더욱이 서울에 본점을 둔 한일은행이 1911년 강경에 지점을 개설했다는 점에서, 대도시에 기반으로 한 보통은행들에 대한 비호감도 호서은행의 설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2. 정치경제적 의미 : 철도부설과 전국시장의 단일화



朝鮮鐵道一般圖(1924) 朝鮮鐵道略圖(1925) 朝鮮鐵道略圖(1935)

그림 3. 경남철도부설의 전개

9) 湖西銀行 1925, 「第貳拾五期營業報告書」. 이들을 지역별로 나누면 예산 77명, 홍성 27명, 보령 26명, 서산 21명, 아산 13명, 당진 8명, 청양 3명이었다.

10) 安齊霞堂 1932, 「忠淸南道發展史」, 湖南日報社, 大田, pp.296-300.

11) 朝鮮總督府忠淸南道 1915, 「朝鮮總督府忠淸南道統計年報」, pp.211-215.

12) 바다에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온 灣에 들어선 포구를 말한다. 이중환의 「택리지 擇里志」에서 '내포'는 홍주, 결성, 해미, 태안, 서산, 면천, 당진, 덕산, 예산, 신창의 10개 고을을 말하며, 이 지역은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고, 가야산 앞뒤의 열 개 고을을 내포라고 하는데, 이 곳은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며,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해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서울에서 세력 있는 집안치고 여기에 농토와 집을 두고 근거로 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적혀있다. 擇里志 1751, 「八道總論, 忠淸道條」.

13) 조선후기 상품유통은 "도시시장-포구-정기시장"에서 개항 후 철도교통이 발달하면서 상품유통이 "개항장-철도연변도시-내륙정기/상설시장"연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철도는 상품유통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서 한반도를 하나의 단일시장권으로 통합시키는데 기여했다.

예산은 조선말 보부상의 중심거점이었다. 철도개통이전에는 인천과 서울에서 미곡집산지인 군산을 연결하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선장포구(仙掌浦口)[12]는 내포(內浦)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였다. 예산은 내포를 경유해서 내륙으로 농산물과 생필품을 나르던 보부상과 도산매상인들의 집결지가 되어왔다(그림2).

1922년 6월에 경남철도가 부설되면서 인천으로 부터 직접운송이 가능해지면서 물길을 통한 기존의 물품운반로는 쇠퇴했다. 철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다량의 물류수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13].

경남철도는 1922년에는 천안에서 신례원까지 개통되며 점차적으로 1924~25년에는 광천과 보령까지, 1931년에는 군산까지 완전개통된다(그림3). 예산은 철도개통이후 상대적으로 거주인구가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로부터 1920년에서 1935년까지 예산군면의 인구는 약 2만8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인도 360명 정도 증가했다[14].

이것은 경남철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철도역사위치가 구시가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한인지식인과 지주들이 예산읍내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건설하도록 청원했고 그로 인해서 구도시 상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한인들은 기성회(회장 성낙헌)를 조직하고 1만여평의 정거장 터를 경남철도회사 측에 기부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또한, 철도개통 후에도 예산역을 잇는 기존도로를 2등도로로서 확장 · 개통시키는데 일조하였다[15]. 이처럼 예산은 전통적 한인상권을 유지하면서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유입되었고, 철도역사 유치과정에서도 한국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일제주도로 건설된 개항장 또는 철도변에 건설된 식민도시와는 도시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경우 철도개통은 간헐적 정기장시가 점차 상설시장화되면서 유통 및 시장구조가 바뀌었음에도 한인토착상인과 지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철도건설로 말미암아 1923년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존도로(1923년 2등도로)의 확장과 함께 시가지를 서쪽방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호서은행본점이 1922년 11월에 그 도로를 인접해서 신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황은 1922년 「開闢」[16]에서 게재된 "호서은행 준공식"의 기사에서 경남철도와 호서은행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지금은 京南鐵道가 天安에서 滿鐵線을 연결하야 新禮院까지 개통됨을 딸하 仁川港과의 通商이 …이미 成算잇는 京南線이 다시 남으로 群山까지 연장되면 이곳은 바로 京南線방면에서는 中央集産地가 되리라고 한다… 무력이 집중된 兩湖!經濟戰의 勝算이 넉넉한 湖西銀行… 이 은행의 큰 기록이 될 뿐이 아니라 영원한 장래를 두고 朝鮮經濟發達史에 막대한 공헌이 되리라 한다"[17].

이 글은 새로운 본점이 건립되면서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경남철도개통으로 경부철도가 만주철도까지 연결이 되고, 철도가 인천항과 연계해서 천안에서 예산 신례원을 거쳐서 군산까지 개통이 예정(1931년 개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은 철도개통이 한국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철도개통이 호서은행의 영업범위의 확장과 정치자립과 경제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것은 식민도시와 자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일제의 의도와는 벗어나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14) 1920년에는 80,793명(14,835세대) 중에 일본인이 408명(124세대), 중국인이 213명(42세대)이었다. 1935년말 인구는 한국인이 107,253명(17,824세대), 일본인이 769명(204세대), 외국인(중국인포함)이 162명(52세대)으로 총 108,184명(18,080세대)이었다. 田中市之助 1921, "충청남도 대정9년 국적별군별현황", 「忠南産業誌」, 大田; 安齊霞堂 1932, "충청남도 1931년 총인구현황", 「忠淸南道發展史」, 湖南日報社, 大田. 1915년 한반도내 전체 일본인 중에서 도시내 거주가 51.1%였고, 1944년에는 66.8%였다. 國勢調査報告書 1920–1944; 朝鮮總督府統計年鑑 1915–1920.

15) 철도개통으로 역사근처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시가지의 경제에 큰 손실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경남철도 개통과 예산의 장래", 매일신보 1922. 7. 2.

16) 개벽지에서 호서은행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자신의 천도교 본당인 대교당이 나카무라 요시헤이와 안톤 펠러의 설계에 의해서 건립된 것과 관련 있다.

17) 靑友生 1922, op. cit. pp.84–88.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는 국철 경부선 天安驛을 거점으로 하여 忠淸南道 西部해안가로 남하하여 全羅北道 群山에 이르는 구간과 천안에서 북상하여 安城에 이르는 延長 98.7마일인 철도부설을 신청하여 1919년 9월 30일 허가를 얻었다.

연재. 건축과 삶 ④

글. **유현준**_ Yoo, Hyunjoon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핸드폰과 도시 사이

Between a Cellphone and a City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하버드대 졸업 후 리차드 마이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장과 MIT 교환교수를 역임하였고,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한국건축가협회 베스트7, 젊은건축가상, 건축문화공간 대통령상 외 5번의 국제현상설계에서 수상했다. 미국 건축사(AIA)이며, 현재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다.

디자인 시대

우리는 디자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작게는 핸드폰디자인으로 시작해서 가구디자인, 좀 더 큰 크기의 자동차디자인, 건축디자인 그리고 가장 큰 스케일의 도시디자인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다양하고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디자인으로 넘쳐난다. 1990년대에 대우전자가 디자인에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디자인 후발주자로서 항상 선진국의 디자인을 배우려고 노력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애플社가 미니멀한 디자인 아이폰으로 휴대폰시장을 한번 뒤흔든 후에 사람들이 더욱 디자인의 위력을 절감하는 것 같다. 사실 망해가던 애플이 부활한 것은 스티브 잡스가 사장으로 컴백한 후에 선보인 아이맥이라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컴퓨터 덕분이다. 이로써 훌륭한 디자인은 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은 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디자인, 디자인 하는 것은 디자인은 돈이고 경제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다닌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디자인의 의미가 확대되어서 모든 창조적인 행위를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알고 보면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디자인을 했다. 독자들은 중학교 국사책에 나오는 빗살무늬토기를 기억할 것이다. 빗살무늬토기는 훌륭한 디자인작품이다. 빗살모양의 무늬도 디자인이지만 포물선 형태를 띤 토기의 모양은 더 훌륭한 디자인이다. 당시에는 구릉지에 살면서 열매를 따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채렵 중심의 사회였다. 곡식이나 음식 남았을 때 그것을 빗살무늬토기에 담아 흙으로 된 땅에 푹 박아 넣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포물선 모양의 토기는 아래쪽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약한 불에도 불이 접하는 면적이 넓어서 쉽게 물을 끓이거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역포물선 모양의 토기가 디자인된 것이다. 당시에 만들어진 화살촉, 바늘 등도 모두가 다 그 기능을 위해 그 시대 사람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디자인 제품들이다. 생존을 위한 창조가 곧 디자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말한 것이다.

디자인의 원칙

물리학에서 뉴턴의 역학은 우주 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구에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은 100만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계에서도 적용 가능한 원칙이다. 아폴로우주선이 달에 갈 때에도 뉴턴



빗살무늬토기/출처_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아이맥



동대문디자인플라자/출처_ 서울시

의 운동법칙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 그만큼 대단한 원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미시세계이다.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도, 뉴턴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적용된다. 물론 물리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세계에서 동시에 적용될 "궁극의 법칙"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이론이 완성되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두 개의 세계에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세계인 우주와 미시세계인 양자의 세계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가? 두 세계의 차이가 무엇인가? 답은 단순하다. 크기의 차이이다. 스케일의 차이인 것이다.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도 스케일이 다르면 디자인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칙도 달라진다. 디자인에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의 몸 크기가 기준이다. "사람보다 큰 디자인이냐? 사람보다 작은 디자인이냐?" 가 관건이다.

필자는 최근에 세계적인 미술가 아니쉬 카푸어의 전시회를 보았다. 거기에는 오목한 은색 반사체 표면에 보는 사람을 비추는 작품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알루미늄 숟가락 같은 작품이었다. 어려서 한번이라도 숟가락에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놀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똑같은 원리로 아니쉬 카푸어는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일상의 흔한 원리가 스케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숟가락일수도 있고 유명한 조각품이 되기도 한다. 스케일은 이렇게 중요하다.

세상의 디자인은 둘로 나뉜다. 그 기준은 사람이다. 모든 디자인은 디자인하는 대상이 "사람보다 크냐? 아니면 "사람보다 작냐?"로 나누어질 수 있다. 흔히 건축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타 디자인 분야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자동차를 잘 디자인하는 사람이 건축디자인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디자인은 사람의 몸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내 손안에서 가지고 노는 핸드폰을 디자인하는 방식과 여러 명이 들어가서 다양한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 게다가 핸드폰은 수년만 지나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버려지는 수명이 짧은 디자인인 반면, 건축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시간에 의해서도 다르게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건축을 디자인할 때는 더 다방면으로 깊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오브제 vs 환경

나보다 작은 것은 오브제이다. 오브제는 모양이 중요하다. 반면 나보다 큰 것은 우리의 몸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겉모양 이외에도 내부에서의 보이드 공간의 체험이 중요하다. 이는 마치 사건을 1인칭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먼 발치에 서서 3인칭 관점으로 보는 것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손안의 핸드폰은 3인칭 관점인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지만, 건축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안에서 바깥쪽을 보게 되는 1인칭 관점이 되는 것이다. 내 몸보다 큰 건축은 오브제라기보다는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 중에서도 제품 디자인하듯이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말로 건물의 외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새들이나 볼 수 있는 조감도적인

시각에서 디자인을 하는 건축사들은 더 문제다. 비근한 예로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동대문 플라자’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내부 공간적으로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곡선의 형태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건축디자인이다. 물론 외관만으로도 감동적인 좋은 작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축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조각품과는 달리 안으로 들어가서 밖을 바라보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핸드폰이나 옷을 디자인하는 식으로 건축을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그래픽디자인 관점에서 건축을 접근했을 때, 건축은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4차원을 디자인해야 하는 건축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건축은 3차원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래픽디자인은 전형적인 2차원 평면의 디자인이다. 핸드폰이나 자동차는 3차원 오브제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건축 역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3차원의 디자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건축물은 오랜 시간을 견디며 살아남는다. 심지어 인간의 수명보다 더 길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낡은 자동차와 핸드폰은 버려진다. 하지만 건축은 버려지기에는 너무 고가의 제품이다. 고가의 제품은 고쳐 쓰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시간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3차원의 물질 위에 덧씌워지게 된다. 그래서 건축은 3차원 건축물에 네 번째 차원인 시간이 합쳐진 4차원의 물질이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존재보다 더 높은 차원을 디자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 다른 기능으로 생존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시대를 초월해서 자신의 모습을 진화시키면서 살아남는 건축을 우리는 부활하는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활하는 건축

건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축의 발전은 구축기술 및 재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다른 기술 및 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시카고에 몰려들어 살게 되었다. 도시화와 고밀화가 필요한 시점에 때 마침 현대식 승강기가 발명되었다. 동시에 철골구조기술이 개발되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었고, 공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이러한 제품을 사고 싶어 했다.



오르세 미술관/출처_ wikimedia commons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최초의 백화점은 많은 제품을 전시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해야 했기 때문에 철골구조로 고층건물을 만들고 기둥간격이 넓어진 입면에 유리창을 넣어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쇼윈도를 만들었다.

한 시대의 기술과 사회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건축이 발생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공장건물일 것이다. 예전에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아녀자가 집에 있는 베틀에 앉아서 혼자서 옷감을 짰다. 베틀과 한 사람이 들어갈 공간은 작은 공간이다. 따라서 그냥 집안의 작은 방에서 일을 하면 되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때 방적기계가 발명이 된 이후 이야기가 달라진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계는 그 크기가 일반 베틀보다 훨씬 컸다. 이를 놓기 위해서 건축사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은 큰 공간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대형 스팬의 공간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은 그 시대에 나오기 시작한 주철로 만든 트러스 구조였다. 따라서 벽돌이나 돌로 만든 기둥과 아치 대신에 주철로 만든 트러스 구조의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건축은 그 시대의 사회적 · 경제적인 요구와 새로운 해답을 줄 수 있는 기술력 사이에서 탄생한다.

기술 개발과 건축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이다.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전시가 되어있는,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미술관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디자인된 건축물이 아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예전에 기차역이었다. 기차역이라는 건축물 역시 마차로 이동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시절에 증기기관차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다. 마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대중이 이용하면



서울역

서 공항이라는 건축양식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다. 오르세 기차역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증기기관의 힘이 약해서 하나의 기관차가 객차 8개를 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오르세 기차역에는 객차 8칸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하여 기관차의 힘이 세어지면서 기관차는 객차를 11칸까지 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오르세 기차역의 플랫폼이 8칸에 맞게 건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짧은 플랫폼으로 인해서 오르세 기차역은 역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어졌다.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파리 다른 곳에 새롭게 건축된 기차역에 밀려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버려졌던 오르세 기차역은 시대가 바뀌어 20세기에 시민이라는 계층이 미술품을 보고 싶어 하는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예전에 미술품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화가를 고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놓는 시스템이었다. 이처럼 그림은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던 것이 시민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도 과거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미술품 감상을 원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건축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정부는 버려진 오르세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이처럼 건축은 시대적 요구와 기술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고, 시대가 변하면서 죽게 되고, 또 다시 시대가 변하면서 부활하게 되기도 한다. 오르세 미술관은 건축물의 탄생, 성장, 죽음, 부활의 사이클을 잘 보여준다.

운영방식과 디자인

우리는 앞서 건축물이 기술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관통하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건축디자인을 살펴본 것이라면, 이번에는 기능에 의해서 어떻게 도시공간이 디자인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유럽의 도시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성당이 있다. 그것을 보통 두오모라고 부른다. 그러한 두오모 앞에는 예외 없이 성당의 길이와 같은 크기의 광장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일단 성당이 만들어지기 전의 도시를 상상해보자. 허허 벌판에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형국이었을 것이다. 교황이나 왕이 대성당의 건립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밀라노에 대성당을 짓기로 했다고 하자.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돌을 가공해야 하고, 그 돌을 야적할 공간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큰 공간은 당연히 성당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앞마당이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일을 했을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식당과 주거시설들이 그 앞마당 주변으로 배치가 되었을 것이다.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 앞마당의 사람들은 철수하게 되고 그 자리는 대성당 앞의 광장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 광장 주변으로는 식당이나 상가가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도시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문점은 왜 그 빈 앞마당에 공사가 끝이 난 다음에 다른 작은 규모의 건물들로 채워지지 않았을까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배”의 운영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성당이라는 공간은 일요일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활자가 없던 시절에는 성경책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성경말씀의 낭독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시에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때 예배당 앞에 광장이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받아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예배당 앞의 광장은 예배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 앞의 광장은 성당의 평면과 같은 크기의 규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기차역 앞의 광장의 크기도 기차가 도착했을 때 쏟아져 나오는 인파의 규모와 연관되어 있다.

서울역 앞의 광장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건축과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기술과 건축물이 사용되는 운영방식, 사람들의 삶의 모습 등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시간을 흘러 그 모양과 쓰임새가 변화되고 시간의 흔적을 온몸으로 담아내면서 비로소 건축이 되는 것이다.

연재. 근대건축사 ⑬

글. **안창모**_ An, Chang-mo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주임교수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의 변화2_ 남산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Building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2_ Namsan

식민지배의 공식적인 시작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부터지만 외교권을 상실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부터 식민지배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을사늑약은 총검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그 앞에서 찬반여부를 묻는 이토 히로부미의 강압에 대신들이 서명을 한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강압적인 조약체결에 대한 황제의 항의외교가 이어졌지만,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 우리는 일본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고, 바뀐 운명의 모습은 제일 먼저 남산에 고스란히 담겼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에는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을사늑약에서는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고 명시되었으나, 통감은 한국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 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 하였고,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문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 22일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을 칙령으로 공포한 후, 12월 20일 추밀원회의를 거쳐 통감부 관제를 칙령으로 공포했다. 통감부 관제에 따르면, 한국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을 두되, 통감은 일본왕의 직할로 외교에 관해 외무대신을 경유하여 총리대신을 거치고, 기타 사무는 총리대신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한국통감부 청사

통감의 근무처인 한국통감부가 1906년 2월 1일 설치되었다. 첫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가 1906년 3월 2일 초량에서 출발하여 당일 오후 4시 10분에 남대문에 도착하여 입성하였으니, 이토가 취임하기 한 달 전에 통감부가 설치된 셈이다. 이토가 부임하기 전까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2]대장이 통감을 대신했다.[3]


그림 1. 통감부 위치

첫 통감부는 육조거리에 설치되었다. 1907년 최신 경성전도에는 통감부가 육조거리 동쪽에 위치한 학부 북측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위치한 곳이다. 육조거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기존 건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감부가 남산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한 것은 1907년 1월 25일이었다. 남산에 신축된 통감부 청사는 전형적인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다만 전통적인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양식과 달리 건축의 주재료가 벽돌이나 석재가 아닌 목재였다. 서양에서 즐겨 사용되었던 벽돌이나 돌이 아닌 나무로 구현된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1) 이토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에 의해 하얼빈에서 사살되었다.
2) 하세가와는 테라우치에 이어 1916~1919년 사이에 조선총독으로 재임하면서 무단통치를 했다.
3) 대한매일신보 1906년 2월 2일

서울에는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을 나무로 구현한 건축으로 동숭동의 중앙시험소(1912)[4]가 유일하지만, 일찍이 서양건축을 받아들였던 일본에는 나무로 구현된 서양 역사주의양식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들 건축은 서양건축교육을 받은 자에 의해 설계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전통장인에 의해 건축되었다. 나무로 번안된 서양건축은 일본이 서양건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시절에 자신들이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건축재료인 나무를 이용해 디자인되고 지어졌다. 따라서 남산의 통감부는 서양건축 학습기에 있던 일본이 자신들의 건축생산시스템 하에서 번안된 서양건축이 을사늑약 후에 이 땅에 건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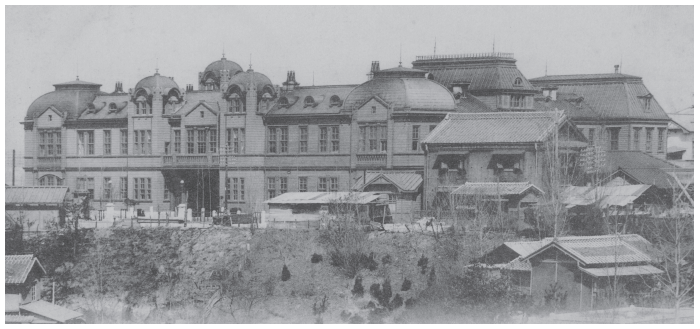

그림 2. 남산 통감부 전경


그림 3. 남산 통감부 상세


그림 4. 중앙시험소, 동숭동 소재

통감부가 왜 남산의 북측 산록에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일본이 1892년 임오군란 당시 인사동에 위치했던 자국의 공사관이 소실되는 변을 당한 후, 공사관을 일인 거류민단이 자리 잡고 있던 남산으로 옮긴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을사늑약으로 고조된 한인들의 분노로부터 통감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남산에 통감부 신청사를 건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서양인들이 안전을 위해 자국 공사관이 위치한 정동에 거주했던 것과는 반대 상황이었다.


그림 5. 임오군란으로 도피하는 하나부사를 비롯한 일본 관료를 묘사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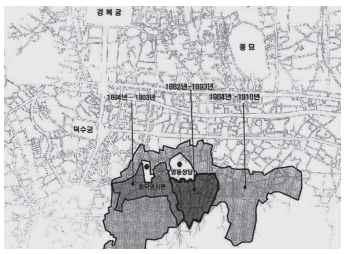

그림 6. 일인 거류지 확장과정, 출처: 정수인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5


그림 7. 남산 북측산록의 식민지배 주요시설

식민지배의 첫 심장, 남산

실제 통감부가 위치한 곳(중구 예장동 8)에는 이미 경성신사와 동본원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경성신사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 거류민단이 1898년 10월 2일 일본의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신체(神體)의 일부를 가져와 남산대신궁으로 창건되었는데, 통감부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다. 한편, 1890년에 경성포교소를 설립하였던 동본원사는 통감부 건너편에는 위치했다. 이는 통감부가 남산에 형성되어 있던 일인 거류민단의 중심에 위치했었음을 보여준다. 통감부는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한인들의 반발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 중심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인들의 거주지에 자리 잡은 것이다.(그림 6과 7참조)

4) 현재 '구 공업전습소 본관'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 건물은 중앙시험소청사로 지어지고 사용된 건물이었다. 주상훈, 1912년에 신축된 중앙시험소 청사에 관하여-'구 공업전습소 본관(사적279호)에 대한 재검토-

그림8은 경성신사의 전경 모습이다. 왼편의 길 건너에 동본원사의 모습과 명동성당이 보이고 경성신사 북서측에 통감부의 모습이 보인다. 현재 통감부 터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위치해 있다.



그림 8. 경성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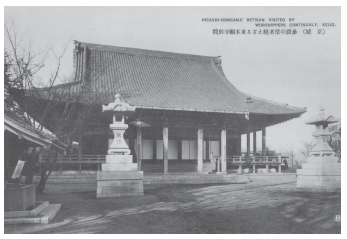


그림 9. 동본원사



그림 10. 통감부와 주변현황, 출처: 김명숙, 일제시기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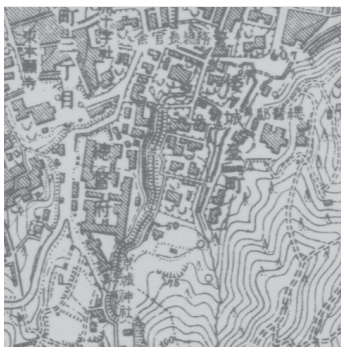


그림 11. 총독부와 주변 현황, 1921

통감부 주변에는 통감숙소와 통감부 관리를 위한 관사들이 건축되었다. 통감부와 주변은 북사면의 급경사지였던 탓에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지만, 통감부의 건설로 주변에 부속시설과 지원시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북사면에 위치한 통감부는 도성의 남쪽까지 조망할 수 있어 도성 전체를 조망하는 효과도 동시에 갖게 되었다.



그림 12. 경성신사 진입로에서 바라본 시가 전경

통감부가 설치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통감 관저에서는 한국의 국권을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대조전 흥복전에서 열린 어전회의에서 한국 병합에 관한 전권이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에게 위임되었다. 위임과 함께 이완용은 지체 없이 남산 통감관저에 있던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에게 달려가 자신의 명의로 병합조약을 체결했다. 1910년 8월 22일 오후 5시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일주일 후인 8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병합에 대한 전권이 있던 이완용에 의해 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완용의 행위 이후의 진행에서 나라를 내준 조서에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어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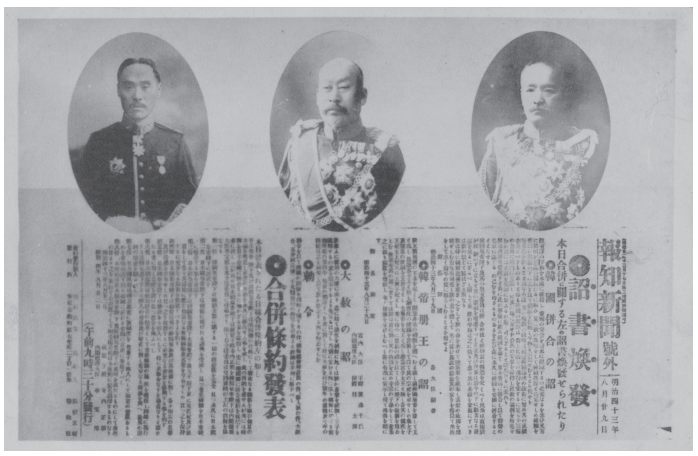


그림 13. 한일병합 기념엽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순종이 세상을 뜨면서 남긴 유언이 1926년 7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선생이 발행한 신한민보에 소개되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17년간 유수에 갇히어… 이 조칙을 중외에 선포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讓國)의 조칙은 저절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冥冥)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는 현실이 되었고,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후 이를 기념하는 엽서를 발행하였다. 그림 13의 엽서에서 가운데가 테라우치 통감으로 초대 조선총독을 지냈으며, 왼편이 이완용이다.

1910년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 통감부와 경성신사가 위치한 남산의 북측 산록은 1926년 경복궁에 총독부 신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할 때까지 식민지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림 14. 통감관저


그림 15. 통감관저, 경술국치 장소

장충단의 운명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남산에 있다. 바로 〈장충단(奬忠壇)〉이다.

국모가 살해된 을미사변(1895) 때 순국한 충신과 열사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1900년 9월에 설치한 어영청의 분소로 서울의 남쪽을 지키는 남소영(南小營) 자리에 사당을 마련되면서 장충단이 탄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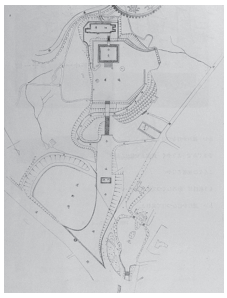

그림 16. 박문사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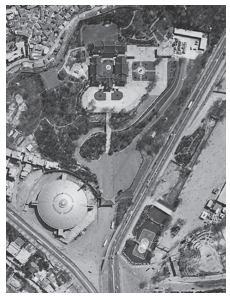
처음에는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 영관 염도희, 영관 이경호를 모셨고, 이어서 김홍제, 이학승, 이종구 등 장병들을 배향했으며, 다음 해에는 궁내부 대신 이경직을 비롯하여 임오군란, 갑신정변 때 죽은 문신들도 함께 모셨다. 그러나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1908년 제사가 중단되었다. 비극적인 것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의사에게 살해되었을 때 거국적인 국민대추도회라는 행사가 장충단에서 11월 26일에 열렸다는 사실이다. 서울에 거주했던 일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추도회 추진 세력들은 장충단에 이토의 사당을 짓고 추모제를 지내기도 했으며, 한일병합 후에는 장충단 일대에 벗나무가 심어진 공원이 조성되었다. 한때 일본 씨름을 위한 '국기관(國技館)' 건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1932년에는 총독부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명복을 비는 절인 박문사(伊藤 博文寺)를 세웠다. 본당은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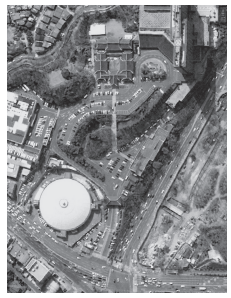


그림 17. 장충단


그림 18. 장충공원의 장충단비


그림 19. 박문사 배치도


그림 20. 영빈관 시절, 1972


그림 21. 신라호텔, 2013

박문사는 일본의 1세대 건축사인 이토츄타(伊東忠太)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박문사를 지으면서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을 옮겨 세우고, 경복궁의 선원전과 부속건물 그리고 석고각 등 궁궐의 전각들이 박문사를 짓는 데 사용되었다. 박문사는 해방 후 철거되어 영빈관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신라호텔이 위치해 있다. 더 나아가 총독부는 1937년에 장충단공원에 상하이 사변 때 사망한 일본군 육탄3용사의 동상을 세워 대륙침략을 위한 정신적 기지로 삼기도 했다.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 그리고 조선신궁

해방 전 남산에는 시기를 달리하며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 그리고 장충단공원이 존재했으며, 일부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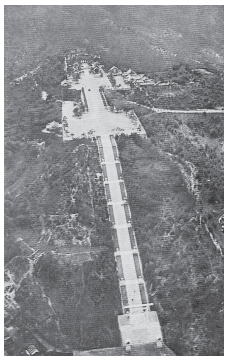
왜성대공원은 일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선조들이 왜성을 쌓았다고 주장하며, 왜성대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통감부가 위치한 곳으로, 청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전쟁에서 죽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갑오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현재에는 숭의여자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장충단공원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한제국기의 순군선열을 제사 지내는 성지를 일인들이 유희장으로 만들면서 붙인 이름인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22. 왜성대공원(남산공원)


그림 23. 한양공원

그런데 한양공원은 그 연원과 과정이 앞의 두 공원과 다르다.


그림 24. 조선신궁전경

한양공원은 1908년에 옛 남산식물원 터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도성 안 남산자락 100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공원이다. 1910년 5월 29일 오후 1시에 정식으로 개장되었으며, 이때 고종은 칙사를 보내 축사를 대독케 하고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은 비석과 함께 남산공원에 남아있다. 그러나 한양공원은 조선신궁 건설계획에 따라 사라졌다.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은 1912년부터 조선신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20년에 이토 츄타의 설계로 공사가 시작되어 1925년에 준공되었다.

조선신궁의 건설은 일제강점 후 남산의 변화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총독부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기본 인프라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 서울은 북악을 배경으로 경복궁이 국사를 모신 남산을 바로 보는 축을 형성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에 총독부 신청사가 지어지고, 남산에 조선신궁이 건축되면서 북악에서 남산에 이르는 전통적인 도시의 축이 식민지 도시의 지배적 공간구조의 축으로 바뀌었다.


그림 25. 조선신궁 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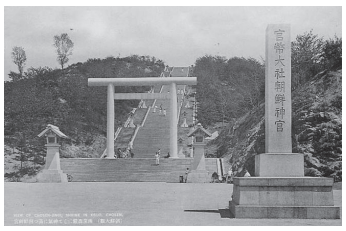


그림 26. 조선신궁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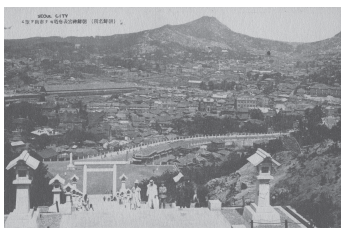

그림 27. 조선신궁에서 바라본 시가전경


그림 28. 조선신궁 배전

일제 강점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신사는, 일본에서도 등장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신도(神道)와 신사는 일인들의 삶 속에서 수천년간 전래되어온 전통적인 종교였지만, 우리의 삶을 간섭하게 된 신사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6~1889) 당시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발명된 국가종교다. 국가신도를 통해 메이지유신으로 실권을 잡은 일왕이 신으로 재탄생되었고, 신사는 국가 제사의 공간으로 재규정되었다. 이러한 신사가 일본의 한반도와 대륙침략과정에서 지배의 상징적 위상을 갖게 되면서, 경복궁에 지어진 총독부 신청사가 한국지배의 물리적 상징이라면, 조선신궁은 한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상징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황국신민서사탑

이러한 신사의 성격과 식민지 한국에서의 역할은 황국신민화사업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을 담은 황국신민서사탑이 전국에 세워졌는데, 남산 성곽복원을 위한 발굴과정에서 황국신민서사탑의 일부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황국신민서사탑은 조선신궁 진입광장 오른편에 세워졌다.

황국신민서사탑의 조각은 일인 아사쿠라 후미오(朝倉文夫)[5]에

5) 朝倉文夫(1883~1964) 동양의 로뎅이라 불렸던 조각가로 일본에서는 명망이 높지만, 우리에게는 전범에 해당하는 일을 한 셈이다.

의해 이루어졌으며, 건립에는 1939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조선 학생근로보국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림 29. 매일신보 1939년 3월 23일


그림 30. 황국신민서사탑 유구

황국신민서사(1937)는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인용 황국신민서사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 아동용 황국신민서사
1.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황국신민서사탑의 일부가 남산 성곽복원사업을 위한 발굴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황국신민서사탑은 1947년에 탑신이 파괴되었으나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기저부가 땅 속에 묻혀 있어 서사탑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호국신사

남산을 장악한 일본 신사의 마지막은 호국신사였다. 일본이 중국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전쟁에서 죽은 군인을 기리기 위한 호국신사가 서울과 나남에 건설되었다. 서울의 호국신사는 1940년부터 남산의 남쪽 기슭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국신사의 모습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해방 후에 서울의 호국신사 터에는 전쟁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해방촌이 형성되었고, 해방촌은 해방 후 형성된 도심 속 슬럼의 대명사가 되었다.

현재 호국신사 터에는 해방 직후에 건설된 주택이 남아있으며, 호국신사에 이르는 계단이 남아있다.



그림 31. 매일신보 1940년 7월 2일

남산은 조선시대 도성을 구성하는 내사산의 일부로 중요도에 비해 도시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개항 이후 남산은 서울의 근대기 성장의 물리적 중심공간이 되었다. 그 시작은 불행히도 일제강점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림 32. 호국신사에 오르는 계단, 2005년 촬영


그림 33. 호국신사 터의 주택 모습, 2005년 촬영

을사늑약과 함께 통감정치의 본산인 통감부가 일인들의 거류지에 형성되면서 남산은 일인들에 의해 빠르게 침식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신사가 있다. 일제강점하 서울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설인 경성신사, 조선신궁 그리고 호국신사가 모두 남산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해방과 함께 남산은 우리의 품에 돌아왔지만, 남산이 갖는 물리적 중심을 넘어 애국가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민들의 정신적 중심에 있게 되면서 남산의 상징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중요해진 만큼 남산을 탐내는 많은 프로젝트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

94 *SERIAL*

연재.

글. **천장환**_ Cheon, Janghwan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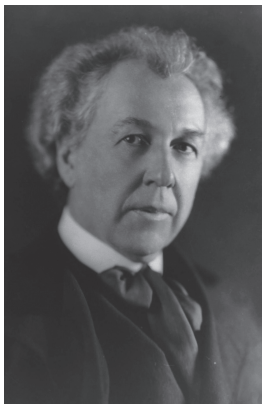
라이트 vs. 미스

Frank Lloyd Wright vs. Mies Van der Rohe

들어가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건축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창기 10여 년 동안에 젊은 주택작가로 활발히 활동했던 '제1의 황금기'(1893~1909), 그 뒤 20여 년 동안에 "시대에 뒤처진 건축사"란 조롱을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상실의 시기'(1910~1934), 극적으로 부활하여 말년에 그 어떤 건축사도 누리지 못한 명성을 누렸던 '제2의 황금기'(1934~1959)로 나뉜다. 역사가에 따라 구겐하임(1943) 건축을 전후로 한 단계 더 나누어서 4단계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굴곡이 많았던 건축 활동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 또한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했다. 그는 사생활로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으며, 괴팍한 성격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혀를 내두르게 했다. 여자들과 관련된 여러 차례의 스캔들로 경력에 오점을 남겼고, 가혹한 개인적인 비극을 겪기도 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으나 겸손함이란 미덕을 몰랐고, 그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라이트에 대한 평가는 진정한 천재 예술가부터 교활한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에게 "당신은 살아 있는 미국 건축사 중에서 가장 위대합니다"라고 칭찬하자, 라이트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뭐고 살아 있는 건 또 뭔가? 나는 이제껏 존재했던 건축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네. 미국이나 살아 있다는 말 따위는 잊어버리게."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대단히 오만하게 들렸겠지만, 지금 보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적어도 현대 건축의 역사에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와 더불어 3명의 거장 중 한 명이니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M. Arch)를 받았다. 졸업 후 5년간 뉴욕과 보스톤에서 실무를 익힌 후 2009년 가을부터 네브라스카 주립대에서 3년간 조교수로 근무했고, 2012년 9월부터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울러 이머시스(www.emer-sys.com)를 통해 건축과 도시 및 가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넘나들며 리서치 및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건축을 바꾼 두 거장〉(2013) 이 있다.

연재 목차

1. 라이트_ 제1의 황금기와 상실의 시기_ 로비 하우스와 제국 호텔
Wright_ the 1ST Golden Period and Lost Years_ Robie House and Imperial Hotel

2. 라이트_ 전설이 되다_ 낙수장과 구겐하임
Wright_ The Legend_ Fallingwater and Guggenheim

3. 미스 인 베를린_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빌라 투겐타트
Mies in Berlin_ Barcelona Pavilion and Villa Tugendhat

4. 미스 인 아메리카_ 판스워스 하우스 와 시그램 빌딩
Mies in America_ Farnsworth House and Seagram Building

1. 라이트_ 제1의 황금기와 상실의 시기_ 로비하우스와 제국호텔

Wright_ the 1ST Golden Age & Lost years_ Robie House and Imperial Hotel

로비하우스

우리가 통상 '프레리 스타일(Prairie Style)'로 부르는 라이트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제1의 황금기'에 탄생되고 완성되었다. 그는 유럽에서 들여온 것을 모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미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미국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라이트는 모든 위대한 나라는 그 자신만의 건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나라의 독특한 지형과 날씨, 사회상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라이트의 생각은 프레리 하우스의 곳곳에 나타난다.

그럼, 프레리 스타일의 특징 중 외관상 가장 눈에 띄는 숨겨진 출입구를 먼저 살펴보자. 19세기 말에 미국의 주택은 콜로니얼 양식(Colonial Style)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콜로니얼 양식이란 식민지에 이주한 사람들이 모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이주한 곳의 기후나 풍토에 맞춰 변형을 가한 양식을 말한다.

특히 유럽에서 온 이주자가 많은 미국은 비교적 온난한 지역에서는 주택에 테라스와 포치(porch)를 만들어 반(半)외부 공간의 생활을 즐겼다.

오크 파크의 일반적인 집 또한 집주인과 길거리의 행인들이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반(半)공적(semi-public) 공간인 포치가 있었다. 그러나 라이트는 자동차가 거리와 집의 그러한 관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집 앞의 포치에 앉은 집주인이 길거리를 걷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마차 안의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는 행위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가 나타난 뒤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당시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디자인했다. 그에 반해 라이트는 그때까지 없던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했다.



1901년에 건축된 프랭크 W. 토머스 하우스



1902년에 건축된 아서 B. 허틀리 하우스

그는 집을 길거리로부터 90도 돌려서 위치시킨 뒤에 포치를 없애 버리고 출입구를 잘 안 보이도록 숨겼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프레리 스타일의 독창성은 그 내부 공간에 있다. 그때까지 주택은 두꺼운 벽으로 막힌 여러 개의 방과 이중문을 갖춘 응접실로 이루어졌는데, 라이트는 이런 벽들을 없애고 지상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뻥 뚫린 집을 디자인했다. 라이트의 주택에서 방들은 더 이상 "박스 옆의 박스"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공간(open plan)이었고, 커튼이나 칸막이에 의해 각각의 다른 용도들이 나뉘어졌다. 그것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가진 집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방에 날려 버린 대단히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이처럼 박스 형태를 해체하여 널찍한 대지와 호응시킨 것이 '프레리 하우스'의 공간 구성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라이트는 공간의 전개를 언제나 대각선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공간을 점차 발견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이트의 프레리 하우스들은 안에 들어서면 공간이 단단히 짜여 있으면서도 무한히 뻗어 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더구나 천장고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서있는 사람은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천장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라이트는 종종 이 낮은 천장 때문에 비난을 받고는 했는데, 사실 그 비난은 순진하게도 5ft 8.5in(171cm)인 자신의 작은 키에 맞추기 위해 천장을 낮게 디자인했다고 한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의해서 생겨났다. 자서전에서도 라이트는 자신이 3in만 더 컸더라면 자신이 디자인한 모든 집들의 층고가 달랐을 것이라고 자못 심각하게 이야기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는 공간의 극적 조작에서 대가였다. 라이트는 인간의 눈이 천장 높이의 자그마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방 안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기 위하여 천장을 매우 낮거나 또는 매우 높게 만들었다.

그는 내부 벽을 없애는 데 머물지 않고 외부 벽들로도 같은 효과를 얻기를 원했다. 창문의 크기와 개수를 크게 늘린 뒤에 코너에 프레임 없이 유리를 맞닿게 놓아서 실내가 외부로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건물 외부에 유리를 많이 사용하는 대신에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중서부의 날씨를 고려하여 지붕을 커다랗게 했다. 프레리 하우스의 지붕은 언제나 크게 뻗어나와 있는데, 이는 여름의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집을 보호함과 동시에 겨울의 햇빛은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앞에 앉을 자리를 만들고 그 밑에는 라디에이터를 설치했고, 에어컨디셔닝이 없던 시기에 크로스-벤틸레이션(cross-ventilation, 맞통풍) 방식을 제공했다. 라이트는 언제나 미학적 고려들을 먼저 했지만, 그것들은 단지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적 현실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의 건강한 삶을 가장 우선시하여 널찍한 공간과 사생활, 겨울의 따뜻함과 여름의 시원함 사이에서 알맞은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라이트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은 대단히 환영받았고 시대보다 앞서 나간 것이었다.(라이트의 이런 재능은 주택 작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하지만 나중에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도입하면서 여러 실용적인 문제점들을 무시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라이트가 1889년부터 1909년까지 사무실과 주거를 겸했던 홈 앤 스튜디오(Home and Studio)의 거실. 라이트는 모서리에 항상 창을 배치하여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도록 했다.



로비 하우스의 전경


구조체에서 6m 가까이 뻗어나온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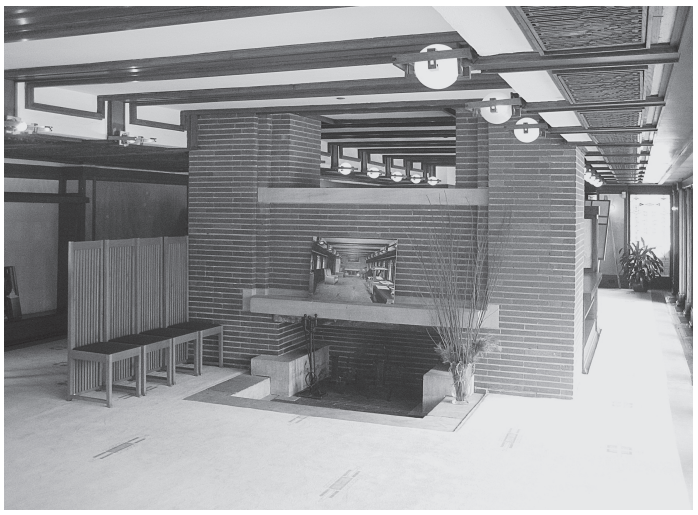
이러한 '프레리 스타일'의 정수라 여겨지는 작품인 로비 하우스(Robie Hous, 1908~1910)는 라이트의 초기 대표작으로 낙수장(1935), 구겐하임미술관(1959)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다. 1910년도에 완성된 이 집은 프레리 스타일 중 가장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가로로 쌓은 벽돌들이 수평적인 요소들을 강조해서 앞에서 보면 마치 막 출항하는 배 같은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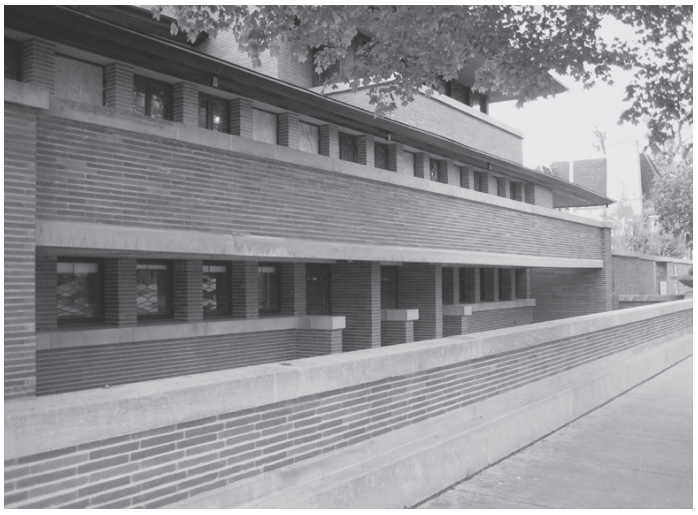
시카고 교외 한적한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로비 하우스는 길게 뻗어 나온 지붕 때문에 눈에 확 띄는데, 라이트의 지붕은 로비 하우스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길어져서 구조체에서 20ft(6m)까지 뻗어 나왔다. 이처럼 길다랗게 뻗어 나온 지붕과 낮은 테라스는 집이 실제보다 낮게 깔려 보이게 하며, 미국 중서부 지방의 평평한 지형과 잘 어울린다.(지금은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 차 있지만, 이 집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주변은 평지가 넓게 퍼져 있는 지역이었다.)

당구장과 놀이방은 1층에 있고 거실이 2층에 있지만 낮은 천장 덕분에 지상에서 접근하기 쉽고, 테라스와 바로 통하여 내부 공간이 외부로, 나아가 그 이상으로 확장되게 느껴진다. 거실에서는 커다란 창을 통해 외부를 내다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들여다 볼 수 없게 하여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했다.

유리창과 벽과 문 위에 장식된 기하학적 패턴들은 햇빛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빛과 그림자를 만들며 마치 기분 좋은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따뜻함과 함께 내부를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

쭉 뻗은 지붕을 가진 건물의 외관은 막 출발하는 기차같이 날렵하지만 붉은색의 벽돌은 건물을 육중하게 보이도록 하고, 내부에서는 외부로 활짝 열려 있는 듯이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내부를 잘 들여다 볼 수 없다.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양면성이 건물 곳곳에서 느껴지는 로비 하우스는 프레리 스타일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준다.


로비하우스의 내부. 가운데 벽난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거실 공간, 다른 한쪽은 식당공간으로 나뉜다. 가로줄이 강조된 벽난로는 크기에 비해 훨씬 날렵해 보인다.


로비하우스를 옆에서 보면 벽돌로 만든 기다란 배 같은 느낌이 든다.

라이트 건축의 정수로 여겨지는 로비 하우스이지만 그 안에 살던 주인들에게는 불행이 잇따랐다. 자전거 제조업체 사장이었던 프레더릭 C. 로비(Frederick C.)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 아버지가 사망하고 2년 뒤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고작 2년 반 만에 그 집을 광고대행업자인 데이비드 리 테일러(David Lee Taylor)에게 팔았다. 그러나 그 또한 1912년 10월에 사망하고 가족들은 곧바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 뒤 마셜 다지 윌버(Marshall Dodge Wilber)라는 사람이 그 집을 구입하여 이사했지만, 1916년에 그의 딸이 죽었다. 이처럼 집주인들에게 비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 뒤로 1926년에 로비 하우스는 시카고 신학교에 팔려 기숙사와 컨퍼런스센터로 15년간 이용되었다.

그러나 너무 크고 유지비가 비쌌으며 내부 공간이 신학교의 목적에 잘 안 맞았기 때문에 해체될 뻔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해체가 중단되었다.

1957년에 다시 해체될 운명에 처했으나 시카고대학교에 팔려서 위기를 모면했다.

1963년에는 미국 국가유적(National Historic Landmark)으로 지정되었고, 1966년에는 라이트가 디자인한 건물 중 첫 번째로 미국 국가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로 지정되었다.(라이트가 살아 있는 동안에 20%에 가까운 그의 건물들이 철거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100채에 가까운 라이트의 건물이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로 지정되어 있다.)

이 건물은 또한 미국건축사협회에 의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건물 10개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1909까지, 라이트는 야심만만한 건축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항상 불만에 가득 찼고 개인생활도 어긋나기 시작했다.

라이트는 결국 건축주의 와이프였던 매이마 보스윅 체니(Mamah Borthwicy Cheney)와 바람이 나 1909년 10월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무실의 문을 닫고, 키티와 6명의 자식들을 버려두고 매이마와 함께 유럽으로 도망갔다. 그 이후 1934년 낙수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기 전까지 라이트는 20여 년에 걸친 길고도 긴 침체기를 겪게 된다.

데이코쿠 호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생에서 오직 세 가지만이 자신의 디자인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루이스 설리반, 프뢰벨 블록, 그리고 일본 목판화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본 목판화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띈다. 라이트가 일본 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부터라고 한다. 라이트는 1905년에 최초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200점이 넘는 목판화를 가지고 와서 1906년, 1908년 두 번에 걸쳐서 시카고예술협회(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목판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 뒤로도 라이트는 수천 점의 일본 목판화 프린트를 수집하면서 전시회를 열고 강의를 하고 글을 썼다. 때로는 중개상 역할도 하여 많은 작품을 주요 수집가나 미술관에 팔기도 했고, 돈을 꾸는 데 담보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선물로 주기도 했다. 한때 미국의 미술관에 있는 90% 이상의 일본 목판화가 라이트의 손을 거쳤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할 정도다. 이렇게 라이트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본 목판화에 관심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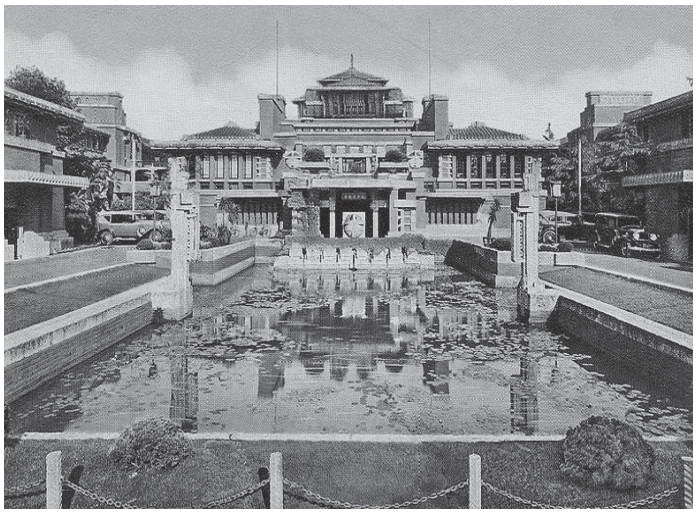
그는 1912년에 쓴 「일본 판화의 해석 The Japanese print: an interpretation」의 서문에서 일본 예술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썼다. "… 가장 중요한 일본 미학의 원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엄격한 단순화를 추구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일본 목판화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서 라이트뿐 아니라 유럽 예술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일찍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서양과 활발한 교류를 했고 자연스레 일본 미술이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 당시에 건너간 일본 그림들은 유럽 화가들인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단순한 선과 색만으로 만들어진 일본 목판화를 본 유럽 미술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명암과 원근법으로 공간과 입체를 표현하던 그때까지의 방식을 과감히 버렸다. 일본 목판화의 유입으로 투시법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서양 미술은 막을 내리고, 단순한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추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 목판화에서 모더니즘의 정수를 본 라이트의 견해는 옳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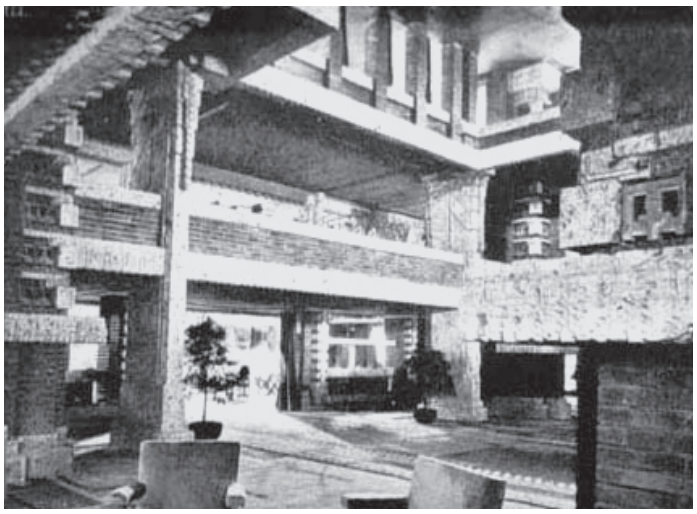
일본의 황제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쿄에 기념비적인 서양식 호텔을 짓고 싶어 했다. 1911년에 시작된 데이코쿠 호텔 건립을 위한 협의는 몇 차례의 여행 끝에 1916년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라이트는 이전에는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적이 없었고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지어 본 적도 없었지만, 언제나 일본의 예술과 문화를 사랑했다. 그런 그에게 데이코쿠 호텔은 정말로 원하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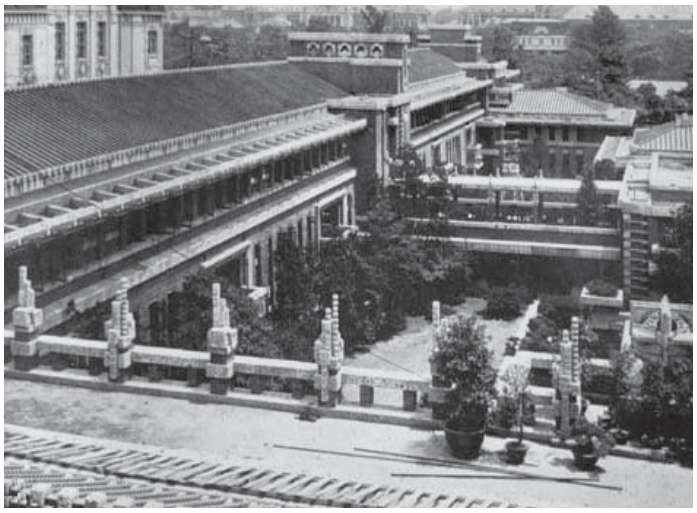
라이트는 이 일을 맡고 나서 6년 동안 데이코쿠 호텔의 디자인과 공사감독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보낸 이 시기에 계획안을 포함하여 약 12개의 작품을 일본에 남겼다. 라이트가 외국에서 설계한 작품은 모두 32개였지만(라이트는 평생에 걸쳐 1,000개가 넘는 설계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이 계획안이어서, 실현된 예는 겨우 9개였고 그중 6개가 일본에 지어졌다.


데이코쿠 호텔의 전경

데이코쿠 호텔은 라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건물 중 하나였고, 일생 동안 자랑했다. 도쿄 대지진을 견뎌낸 사실은 그로 하여금 단지 건축사로서만이 아니라 천재적인 엔지니어로서도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그러나 데이코쿠 호텔은 예정보다 훨씬 늦게 완공되었고 예산도 엄청나게 초과했다.


데이코쿠 호텔의 화려한 로비. 라이트가 디테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다.

당시 기준으로 규모 또한 엄청나서 285개의 객실과 16개의 식당, 1,000석의 극장, 300석의 카바레, 1,000석의 연회 홀과 갤러리로 이루어졌고, 처음에 잡힌 예산만 400만 달러 이상이었다. 일본의 황제는 라이트에게 일본과 서양을 모두 반영하는 건물을 디자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이코쿠 호텔의 정교한 디자인은 대체로 찬사를 받았지만, 어떤 평론가들에게서는 일본식도 현대적도 아닌 '어설픈 마야 스타일' 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데이코쿠 호텔부터 캘리포니아에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지은 몇 채의 주택까지, 1920년대의 라이트의 디자인을 보면 아메리


데이코쿠 호텔의 전경

카 인디언과 콜럼버스 이전의 미 대륙 문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화에 대한 관심은 라이트가 어렸을 적부터 가져 왔고, 그 영향은 전에도 간간이 드러났지만 데이코쿠 호텔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우리는 라이트를 천재적인 건축사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그는 건축이 예술이면서 동시에 기술이라는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데이코쿠 호텔은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볼 때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했다. 건물이 지어질 땅은 2m40cm의 표면층과 그 밑에 18m의 부드러운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토양 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이 발생할 때 건물의 구조 자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

전통적인 일본 집들은 나무로 지어져서 각각의 나무 기둥들이 그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벽돌과 스틸, 돌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은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했다. 라이트는 시카고에서 설리반 밑에 있었을 때, 그러한 땅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시카고 또한 무른 지반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연약한 지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설리반이 조수로 일하기도 했던 윌리엄 제니(William Le Baron Jenney, 1832~1907)라는 건축사 겸 엔지니어가 고안한 해결책은 '떠 있는 기반(floating foundation)'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건물 자체가 거대한 콘크리트나 스틸로 만들어진 파일이나 케이슨(caisson)에 의해 만들어진 기초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져서 건물의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어 웬만한 충격에도 버틸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

데이코쿠 호텔을 위한 해결 방법도 이와 비슷했다. 제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느슨하게 연결된 콘크리트 파일들을 약한 지반 위에 박고 건물을 그 위에 떠 있도록 하여 지진이 나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무기로 변하는 전통적인 일본 기와 대신에 좀 더 가벼운 구리 지붕을 사용했고,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게중심을 낮춰 아랫부분을 위보다 두껍게 만들었다. 화재가 날 때를 대비하여 즉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커다란 저수지를 건물 바로 앞에 놓았고, 작은 연못 여러 개를 정원 전체에 걸쳐 넓게 배치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치솟는 비용 때문에 격렬한 반대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호텔이 실제로 문을 열기도 전에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결과적으로 450만 달러가 들어간 데이코쿠 호텔은 라이트의 손길이 구석구석 안 미친 곳이 없었다. 그는 데이코쿠 호텔의 입면과 로비 공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교한 디테일들을 만들었고, 가구뿐 아니라 접시와 노트 종이까지 모든 부분을 디자인했다.(사진을 보면 그 일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링(detailing)이 만성적 자금 부족의 원인 중 하나였다. 라이트는 설계비로 꽤 많은 돈을 받았지만(설계비가 50만 달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금액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돈이었다.) 그럼에도 데이코쿠 호텔 일이 돈이 안 된다고 투덜댔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일이 5년 가까이 늘어졌기 때문이다.

호텔의 모든 부분을 뒤덮는 라이트의 정교한 장식 디자인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목수들과 장인들이 노력한 덕택에 건물은 무척 아름다웠지만, 공사 기간은 늘어났고 건축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라이트는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떠나야 했다. 물론 라이트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었으므로 스스로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관동 대지진 직후의 도쿄 시내 모습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후, 일본 건축사이자 데이코쿠 호텔의 일본 측 공동 설계자였고 라이트의 통역자 역할까지 했던 아라타 엔도(遠藤 新)는 라이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1923년 9월 8일, 미스터 라이트(라이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그를 부르던 방식-지은이), 첫 번째 지진은 많은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지진에서 살아남은 건물들을 모조리 무너뜨렸지요. 첫 번째 지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지만 극심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철골 건물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가 재로 변한 뒤에도 데이코쿠 호텔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당신에게 이 영광을.

20세기에 일본을 강타한 가장 큰 지진인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발생했다.(그 1년여 전인 1922년 4월, 도쿄에서는 30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있었지만 그때는 한창 공사 중이던 데이코쿠 호텔이 아무런 손상 없이 살아남았다. 그 3개월 뒤에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날은 기괴한 우연으로 호텔의 완공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오에 공식 오찬이 계획되었는데, 그 바로 몇 분 전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 뒤로 24시간 동안 끊임없는 여진이 이어졌고, 태풍과 화재가 도시의 절반을 파괴하며 15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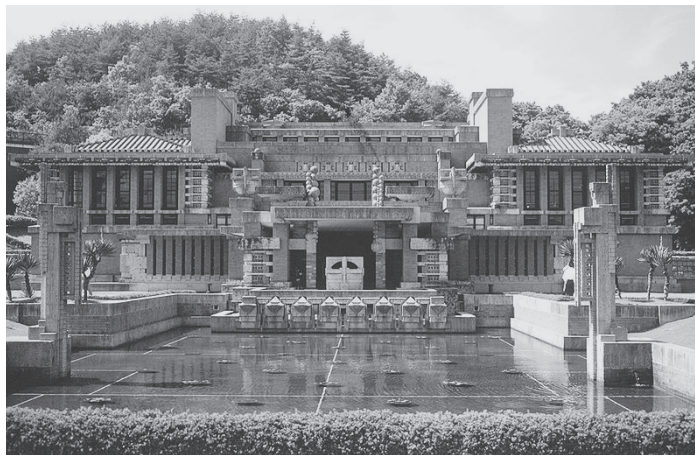
미국의 신문들은 데이코쿠 호텔이 폐허만 남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라이트는 그 소식을 접하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코쿠 호텔은 작은 손상만 입은 채 살아남아 피난민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곳에서 무료 급식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고, 대사관, 공공기관, 언론의 임시 본부가 자리 잡았다. 며칠 만에 이 호텔은 일본과 외국인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었고, 라이트는 그 위대한 건물의 건축사로서 존경받았다. 사실 다른 많은 건물들도 살아남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데이코쿠 호텔만이 살아남았다고 기억했다.

라이트의 또 다른 공공 건물인 라킨 빌딩과 미드웨이 가든처럼, 데이코쿠 호텔 또한 자본주의의 희생자가 되었다. 도쿄의 공해는 건물의 외관을 이루는 돌을 빠르게 부식시켰고, 지하철이 건물의 밑으로 지나가면서 건물 한쪽의 구조가 주저앉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건물은 끊임없는 보수공사를 필요로 했고, 최신식 호텔의 밝고 넓은 공간에 익숙한 여행객들에게 데이코쿠 호텔의 좁고 어둠침침한 공간은 별 인기가 없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땅값 또한 도쿄의 한가운데에 길다랗고 낮게 깔린 이 건물을 점차 위협했다.

1967년 11월에 문을 닫을 때까지 45년간 호텔로 사용되다가, 1968년에 세계건축협회의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어 별다른 특징이 없는 현대적 호텔로 대체되었다.(과거의 데이코쿠 호텔은 일본 왕실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현재의 데이코쿠 호텔은 법인 사업체로서 최고급 호텔 체인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나중에 나고야의 북쪽에 있는 메이지무라(明治村)의 거대한 야외 건축박물관에 라이트가 디자인한 호텔의 로비와 풀을 재현해 놓았다.


메이지무라에 재현해 놓은 데이코쿠 호텔의 로비


메이지무라에 재현해 놓은 데이코쿠 호텔의 전경과 풀장


데이코쿠 호텔 위치에 자리한 현대식 데이코쿠 호텔. 일본 공주였다가 평민과 결혼하여 황적을 잃은 구로다 사야코가 2005년 여기서 결혼식을 치뤘다.

제48회 정기총회 개최

감사에 신우식 회원 당선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7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478명 중 419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 개정의 건', '윤리규약 개정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 10개의 안건이 상정 · 처리됐다.

오전 10시 10분 김영수 회장의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유명을 달리한 회원에 대한 묵념과 고은영 이사의 건축사 헌장 낭독으로 이어졌다. 내외빈 소개에서는 심상정 국회의원과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종률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미이쇼 키요노리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 등이 소개됐다.

이어 김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해 회장에 당선되어 협회를 위해 봉사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청사진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을 발로 뛰며 많은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듣고 꾸지람도 들으면서 '회원들이 행복해야 협회도 발전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다"며 "이제 임기 2년의 반환점을 막 돌았다. 지난 1년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보완해 남은 1년 동안 하나된 건축사, 하나된 협회, 하나된 건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내외빈의 축사가 있었으며, 미이쇼 키요노리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였고, 감사패 및 공로패, 단체표창, 표창장 및 장학증서 등이 수여됐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7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한 다음 추대회원에 대한 추대 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상정에서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8호의안인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을 제외하고 제1호의안부터 제7호의안과 제9호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제10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최영집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감사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우식(주.예가 건축사사무소) 회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사 7인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됐다.

제48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윤리규약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감사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3년도 건축사업무실적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추경예산안 추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2013년도 결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수립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세출예산 중 아래와 같이 8천만원을 증액하고 해당 금액은 차기 이월금에서 감액 조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협회 지원금 / 1억5천만원→2억원(5천만원 증액)
  ▷시도(건축문화행사)지원금 / 3천만원→6천만원(3천만원 증액)
- 제9호의안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관(건립) 취득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감사(1인) : 신우식 회원
  –이사(7인) : 회장에게 위임함.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참조



제48회 정기총회 전경


개회사 중인 김영수 회장


축사 중인 심상정 국회의원



명예회원증을 받는 미이쇼 키요노리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



신임 감사 신우식 회원

신임 임원(이름 가나다순)



이사 **김강수**

(주)연우 건축사사무소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수료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現 순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광양시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위원
現 광양시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이사 **석정훈**

(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現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광진구지역건축사회 회장
現 광진구 건축심의위원
現 성동구 공동주택자문위원
現 서대문구 재해영양성 검토위원



이사 **장현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아키
동신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現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초구지역건축사회 회장
現 한국주거학회 학술이사
現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
現 안전행정부 설계자문위원



이사 **전찬홍**

아트피아 전찬홍 건축사사무소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現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現 강원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
現 강릉시 건축위원회 위원



이사 **남기홍**

(주)해안 종합 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前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現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이사 **신정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수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역임
現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KAAB) 실사위원
現 광주광역시 야구경기장 건립 TF팀 위원
現 광주광역시 KTX 개통 도시공간위원회 위원



이사 **전상훈**

건축사사무소 효성디벨럽
경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現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위원
現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위원
現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우리협회는 지난 3월 19일(수)에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부의안건 중 〈제2호의안 :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한 바 비상근부회장으로 배기업 이사를 호명하였다.

신임 감사



감사 **신우식**

(주)예가 건축사사무소
호서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現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現 한국관광협회 호텔등급 심사위원
現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현임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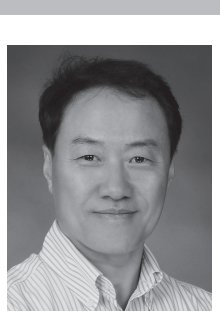


감사 **김득수**

현임 임원



상근부회장 **권병조**



비상근부회장 **심재호**



비상근부회장 **김의중**



비상근부회장 **배기업**



비상근부회장 **조충기**



이사 **고은영**



이사 **백승천**



이사 **오근석**



이사 **윤혁경**



이사 **이택붕**



이사 **임창희**



이사 **정종태**

제3회 이사회

2014년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 임의규제 재발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부의안건으로 2014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 · 위원장 선임의 건,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가칭)전통건축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승인의 건, 전문회원 입회 승인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경상남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 임의규제 재발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의 건
  - –원안대로 설치하기로 함.
- 제2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기로 함.

| 부의안건 |

- 제1호 : 2014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 · 위원장 선임의 건
  - –2014년도 위원회 조직 및 담당업무를 확정하고 위원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사를 파악한 후 회장이 선임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 –배기업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함.
- 제3호의안 : (가칭)전통건축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승인의 건
  - –전통건축협의회를 원안대로 설치키로 하고,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 ▷제4조(회원의 자격) : 회원 자격을 전통건축분야 관련 건축사(문화재수리기술자 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제11조(임원의 직무) 제6항 : 활동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간사가 아닌 회장이 보고토록 수정
- 제4호의안 : 전문회원 입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1명, 남승진(동아인재대학 사회복지학부))
- 제5호의안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자문변호사(김주덕, 이종욱), 자문회계사(황용현), 자문노무사(신항철)
- 제6호의안 : 경상남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결손처분 대상 2명, 결손처분액 : 2,010,000원)
- 제7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사용목적 : 정기관리자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충당
    - ▷예비비 사용승인 금액 : 10,000,000원

위원회 개최 현황

제4회 비상대책소위원회

제4회 비상대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유관단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에 관한 건
  -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관련
    -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와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며 참석자 및 일정은 김의중 비대위 기획위원장이 한국건축가협회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연구용역 관리 관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부에 최종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입수하여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해 대처할 방안과 연구 중간보고회(2/11)시 검토할 내용을 중간보고회 당일 오전에 논의하기로 함.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6일 16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관련 대응의 건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함.
    - 가.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명초청공모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서울건축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여부가 밝혀지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본협회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즉시 시정토록 요구
      - ▷답변이 미진할 시에는 서울건축사회와 협력하여 항의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나. 건축사자격이 없는 자가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비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도 16명이나 되므로 이번 2014년 제2기 공공건축가 선발 시에는 이들을 제외토록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함.
      - ▷1차적으로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에게 직접 개선토록 요구하거나, 서울시에 공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건의
    - 다. 건축사자격이 없는 자가 '건축사사무소 대표'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사법 위반이므로 해당자에 대해서는 이번 본협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고발 조치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요청함.
- 제2호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검토의 건
  - –지자체에서 상주감리 등록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건축사보는 배제하고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요구하므로 등록관리실장에게 실태점검을 요청함.

–아울러, 동 사항 이외에도 소규모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 인력수급 방안마련이 시급하므로, 협회발전기본계획 과제 중 건축사보 관리(6–4) 부분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건축사보의 운영실태 점검’ 부분을 보완하고, 건축인력수급 계획(2–14)에 건축사보의 인력수급 개선방안 마련이 포함되는 여부를 조사하여 보완하기로 함.

제1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합동회의

제1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합동회의가 지난 2월 25일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의 건

가.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경상북도건축문화제 행사의 연계문제

▷경상북도건축문화제와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행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조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나.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예산 조정

▷집행위원회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예년도 대회 세입 · 세출 예산 등을 토대로 금년도 대회 예산서 좀 더 보완 적성키로 하고, 추후 조직위원회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다.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 내용 개선

▷기존 건축사대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전달키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점과 의견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조직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제2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준비일정의 건

–조직위원회 회의 및 합동회의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심상봉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위원회에서 협의 · 검토한 후 조직위원회에 보고키로 하고, 나머지는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제1회 국제위원회

제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5일 16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제48회 정기총회 해외단체장 초청의 건

–2. 26(수) 환영만찬 전까지의 일정 추가

▷국립국악원 및 악기박물관 방문 의사에 대한 여부 문의 후 결정

–행사별 참석자

▷계획(안)대로 진행

| 기타사항 |

–2014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참가

▷건축사교육원에서도 참가하는 것을 권장

–AIA 뉴욕 순회 전시회 진행사항

▷추후 보고키로 함

–ARCASIA Zone C 회의 개최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별도 진행 고려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5일 15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종료에 관한 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음에 따라 선거사무를 종료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키로 함.

김영수 회장, 건축단체장들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공동회장인 김영수 회장은 지난 3월 10일 건축단체장들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한 건축단체장들은 개최 장소를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자’로 변경 ·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에 박 시장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수 회장,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식 참석



김영수 회장은 지난 3월 11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적십자사, 건단련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이용과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하기로 했다.

건축계소식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부문은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이다. 준공건축물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며, 계획건축물의 작품주제는 '오래된 미래 나만의 우리'이다.

준공건축물부문 오는 6월 5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68페이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내 공지사항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를 참고하면 된다.

'그린 리모델링 과정' 제1기 교육생 모집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에서 '그린 리모델링 과정'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 및 이수기간은 5월 17부터 6월 25일까지 총 52시간의 이론 및 실습, 현장실습 등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지원자격은, 건축 관련 분야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자이다. 제출서류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최우수교육생에게는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교육팀(02-3415-68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회, '녹색건축 세미나'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29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녹색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녹색건축 관련 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박기범 사무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이승민 부장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건축물 에너지 절감(효율)을 위한 건축설계 기법 및 전략'(이승복 교수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개정방향'(황은경 연구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다. 참석 대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및 회원사의 직원이며, 참석을 희망자는 협회 정책연구실 이메일(kira4@kira.or.kr)로 성명, 사무소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을 4월 21일까지 보내면 된다.

신간안내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

이누이 구미코, 야마자키 료 공저 | 염혜은 역 | 324쪽 | 디자인하우스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는 주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일본의 작은 마을 이야기이다. 일본에서는 야마자키현 노베오카 시 마을 재정비를 앞두고 색다른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지역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마을 디자인. 책은 건축사 이누이 구미코가 묻고, 디자이너 야마자키 료가 답하는 방식으로, 마을 만들기에 몰두한 일 년 동안 주고 받은 열아홉 차례의 왕복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만 따지던 '마을 만들기'에서 벗어나, 그 지역주민의 삶과 활동에 연계지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을 디자인하기'로 시선을 돌린 두 전문가의 제법 진지한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이누이 구미코와 야마자키 료는 '노베오카 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동시에 참여 디자인에 관해 묻고 답하는 편지를 주고받는다. 자신을 두고 '편협한 설계자의 대표'라 고백하는 이누이 구미코는 참여 디자인에 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다양한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야마자키 료의 답을 끌어낸다.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에서 '답하는' 역할을 맡은 야마자키 료는 일본 건축계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젊은 건축사이다. 지금은 지역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펜화, 한국 건축의 혼을 담다

김영택 저 | 170쪽 | 서울셀렉션



'기록펜화'의 대가 김영택 화백이 강선대, 거연정부터 회암사지 부도, 흥인문 등의 한국 전통 건축물을 그린 펜화 91점을 모은 책이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 거의 30년간 건축 문화재를 펜화로 담아내고 있는 김영택 화백은 세밀화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작가다.

김 화백은 멀게는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전반기의 사진을 참조하는 등 자료 조사를 통해 건물의 원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했다. 건물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거나 나무 등이 가리고 있는 경우, 사진으로는 온전한 건물 전경을 담아낼 수 없지만 그림으로는 원래 건물의 특징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김 화백은 '김영택 원근법'이라는 자신만의 기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글. 김은미_ Kim, Eun-me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2014 프리츠커 어워드

건축분야 최고의 영예인 프리츠커 상의 2014년도 수상자, 건축사 시게루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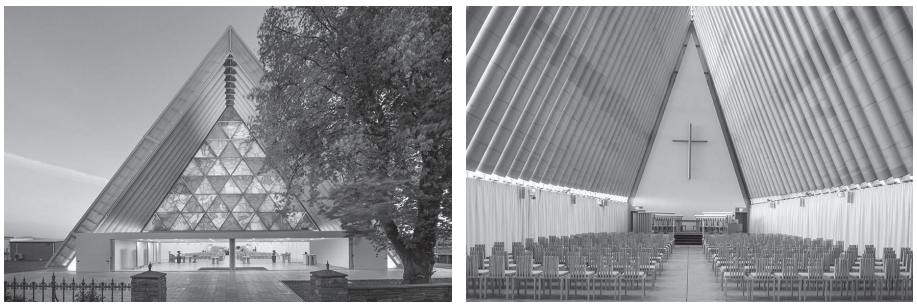
2014 Pritzker Award



Japan Pavilion, EXPO 2000, Hannover, Germmy 2000

시게루 반이 2014년 프리츠커 상 수상자가 되었다. 독창적인 재료의 사용과 재난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 등으로 알려진 그는 뉴욕, 파리, 도쿄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는 건축계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알려진 이 상을 수상한 7번째 일본인 건축사가 되었다.

본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시게루 반은 아주 놀란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Martha Thorne(프리츠커 재단 상임이사)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할 때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시게루 반은 이전에 이 상을 위한 심사위원이기도 해서, 수상의 의미에 대해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나는 내가 왜 수상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수상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 이 상의 의미는 나에게 사회적 프로젝트를 계속해가라는 하나의 격려와 독려 같은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 프로젝트 이외에도 뮤지움과 같은 프로젝트도 한다. 그래서 나는 뮤지움과 같은 권위 있는 프로젝트와 재난지역을 위한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번 수상을 업적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는 독려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Cardboard Cathedral

심사단은 혁신적인 재료와 구조 사용의 특징을 심사문에 명시하였다. 그가 설계한 프랑스 메츠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 위성 뮤지움은 가장 좋은 예이다. 목재를 엮어 만든 망태처럼 생긴 슈퍼 스트럭처를 덮은 가벼운 반투명한 막표피 지붕이 이 콤플렉스의 내외부를 덮어주어 뮤지움의 물리적인 경계를 흐리게




Left to right: Wall–Less House; Centre Pompidou Metz; Paper Log House, India.



Metal Shutter House, New York.

만들어 준다.

시게루 반은 페이퍼 튜브나 폐기된 선적용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임시 용도나 항구적 구조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고베에 지어진 Paper Church와 같은 프로젝트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에 지어진 Cardboard Cathedral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지진과 다른 자연 재난 이후 지역을 반영한 모습을 앞서 언급한 재료들의 조합들로 위엄 있고 품위 있게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진화를 보여 주고 있다.

2012년 중국 왕슈, 2013년 일본 토요 이토, 2014년 일본 시게루 반. 최근 3년간의 수상자를 대하는 한국 건축사의 마음은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 "수상자를 내려면 건축사 각자가 모험심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는 자하 하디드의 기사(연합뉴스)를 대하니 더욱 착잡하다. 필자는 이미 그녀의 젊은 시절 환경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재능 있는 건축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모든 문화의 집합적, 융합 표현물이며 그 문화의 힘을 보여 주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선진국들은 그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내부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도와 제도 개선,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건축을 건설과 분리하지 않은 하위 영역으로 인식하는 민도, 건설과정 전체 지휘자로서의 지위 인정과 그에 합당한 보수 지불 인식과 제도, 그리고 건축계 전체를 사지로 몰고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지양하는 내부의 자정 노력 등이 정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먼 서방 세계만의 얘기가 더 이상 아니게 된 상황의, 주변국의 축포 소리를 들으며 시린 마음을 계속 안고 가게 될 것이다.

혹시 이렇게 척박한 상황에서도 건축계의 김연아 혹은 박태환이 출현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반드시 접어야 한다. 이미 대학의 학생들도 건축계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움츠린 마음은 이미 만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행히 걸출한 인물이 출현한다면 더 이상은 한 개인의 인생을 건 노력에 국가가 그 등에 업혀 영광을 누릴 요행을 꿈꾸지 않아야 하며, 국가 문화의 힘이라 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나 제도, 환경의 지원을 받지 못한 걸출한 개인의 힘이므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2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277	6,277	80	160	8	29	6,365	6,466	1,797	1,797	231	462	59	177	25	100	15	99	2,127	2,635	8,492	9,101
서울	975	975	20	40	1	8	996	1,023	900	900	123	246	39	117	11	44	11	65	1,084	1,372	2,080	2,395
부산	550	550	9	18	2	6	561	574	110	110	29	58	3	9	2	8	1	7	145	192	706	766
대구	535	535	17	34	4	12	556	581	71	71	13	26	3	9	3	12	0	0	90	118	646	699
인천	295	295	3	6	0	0	398	3014	63	63	7	14	1	3	0	0	0	0	71	80	369	381
광주	231	231	1	2	0	0	232	233	48	48	4	8	2	6	3	12	0	0	57	74	289	307
대전	269	269	5	10	0	0	274	279	34	34	9	18	3	9	1	4	1	12	48	77	322	356
울산	203	203	4	8	0	0	207	211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31	238
경기	874	874	2	4	0	0	876	878	262	262	13	26	6	18	1	4	0	0	282	310	1,158	1,188
강원	202	202	2	4	0	0	204	206	27	27	2	4	0	0	1	4	0	0	30	35	234	241
충북	231	231	2	4	0	0	233	235	43	43	4	8	2	6	2	8	1	9	52	74	285	309
충남	308	308	1	2	0	0	309	310	64	64	7	14	0	0	1	4	0	0	72	82	381	392
전북	279	279	5	10	0	0	284	289	30	30	4	8	0	0	0	0	0	0	34	38	318	327
전남	218	218	0	0	0	0	218	218	24	247	2	4	0	0	0	0	1	6	27	34	245	252
경북	440	440	4	8	1	3	445	451	43	43	5	10	0	0	0	0	0	0	48	53	493	504
경남	520	520	4	8	0	0	524	528	40	40	4	8	0	0	0	0	0	0	44	48	568	576
제주	147	147	1	2	0	0	148	149	17	17	2	4	0	0	0	0	0	0	19	21	167	17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9,101	100%
서울	2,395	26.32%
부산	766	8.42%
대구	699	7.68%
인천	381	4.19%
광주	307	3.37%
대전	356	3.91%
울산	238	2.62%
경기	1,188	13.05%
강원	241	2.65%
충북	309	3.40%
충남	392	4.31%
전북	327	3.59%
전남	252	2.77%
경북	504	5.44%
경남	576	6.33%
제주	170	1.87%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3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277	2,724
서울	3,890	1,823
부산	767	107
대구	680	72
인천	379	7
광주	301	54
대전	363	47
울산	235	32
경기	1,436	113
강원	259	20
충북	326	70
충남	382	69
전북	333	28
전남	278	65
경북	486	29
경남	606	53
제주	178	38
기타	1,378	97
비고	회원 : 8,947 / 비회원 : 3,330	대학 : 2,487 / 대학원 : 237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466	2,635	9,101	
비율	71.05%	28.95%	100%	
사무소수	6,365	2,127	8,492	
비율	74.95%	25.05%	100%	